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니르바나 향해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30일)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韓 특유 '불복장 작법' 무형문화재 지정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보유단체 '불복장의식보존회' 인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상과 불화 내부에 불교 관련 물목(物目)들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 작법(佛腹藏 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복장 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되는 '불복장 작법'은 불상 · 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을 봉안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즉, 불복장 작법은 봉안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 · 불화에 신앙적 가치가 부여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00년 秘藏돼 전래된 중요 의식

불복장 작법은 1500년대부터 간행된 〈조상경(造像經)〉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활발하게 설행(設行, 베풀어 행함)됐지만, 앞선 고려 시대부터 설행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국가 중 불복장 작법이 의식으로 정립 · 전승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의례의 저본이 되는 〈조상경〉 역시 한국에만 있는 경전이다.

이 같은 불복장 작법의 역사성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주요한 요소가 됐다. 문화재청은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다"면서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 · 교리적 의미가 부여돼 있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불복장 전수 노력들 결실맺어

이와함께 불복장 작법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가 인정 예고됐다.

불복장의식보존회는 평생 불복장 작법 전승에 매진해 온 무관 · 경암 · 수진 · 승호 · 도성 스님이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설립됐다.

보유단체 인정 예고 이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 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보유단체로 인정된 불복장의식보존회와 조계종의 노력으로 함께 이뤄진 결과다.

불복장의식보존회는 설립 이후 학술세미나 · 시연 · 전시 등을 통해 그간 비전돼왔던 불북장 작법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왔다.

조계종 역시 문화부를 중심으로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또한 2013년 12월 제정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에 따라 전국 사찰에 무형유산을 발굴해 종단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사업도 전개 중에 있다.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불교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현법 스님은 "전 세계 불교 중 불복장 작법이 전해지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단순한 불상을 모시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점안하는 중요한 의례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고려부터 설행 · 조선代 활발
한 · 중 · 일 중 한국만 의식화
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높아

2014년 불복장보존회 설립
조계종 무형유산 발굴 성과
"불복장 작법 전승에 최선"

이어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시한 종책 중 하나가 유 · 무형유산 발굴과 보존"이라며 "발우공양, 사찰음식과 같은 불교 무형유산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유단체인 불복장의식보존회는 불복장 작법 전승 · 홍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불복장의식보존회장 경암 스님은 "보존회 설립 이래 4년여 노력들이 보상받는 것 같아 기쁘다. 조계종단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면서 "보존회 차원의 통일된 불복장 의식뿐만 아니라 5명의 스님에게 전해졌던 작법들도 함께 전승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복장 작법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시키는 게 최종 목표"라면서 "불교 안에는 다비 · 정대불사 · 예불 등 무형 유산이 많다. 이 같은 불교 무형유산들의 지정도 추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대 學僧, 적멸의 길 떠나다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이 시대 학승으로 평가되는 조계종 원로의원 호암당 인환 대종사가 10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내원정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7년, 세수 88세. 10월 30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엄수된 영결식과 다비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들과 사회 각계 인사 등 불자 500여 명이 자리했다. 사진은 인환 대종사 다비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행 선사 가르침 학술 조명 '활발'

대행선연구원 · 한마음과학원 학술대회 잇달아

10월 26 · 27일 안양본원서 개최
대행선 수증관 · 수행 체계부터
가르침 응용 연구까지 '다채'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가르침을 응용 연구한 성과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개최됐다.

대행선에서 깨달음 · 수행체계 조명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10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에서 대행선과 묵조선의 수증관의 원리와 구조를 분석하고 그 접점을 살폈으며, 박소령 동국대 교수는 대행 선사가 제시한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 여래선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생활선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청강 스님은 '대행의 증명관 일고'를 통해 대행 선사의 관법 수행에서 증명관의 원리와 실천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김준호 울산대 교수가 '초기불교의 자아와 무아관'을,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이 '묘공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해'를, 고승학 금강대 교수가 '화엄사상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각각 발표했다.

선사 가르침, 과학 · 교육서 응용된다면

대행선연구원이 선사의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면 10월 27일 안양본원서 개최된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의 제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과학 · 의학 ·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한마음과학원 식물팀은 '선법가가 콩나물의 발아, 성장 및 질병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대행 선사의 선법가가 식물 재배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안영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공생 생명체로서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 발표를 통해 홀로게놈 개념을 중심으로 생명 진화에 대해 조명했다. 한마음과학원 의학팀은 한마음 관법 수행 시 뇌파 변화 연구 계획을 소개했으며, 한마음과학원 공학팀은 '대행 선사 법문에 나타난 에너지 발생 장치의 기초연구를 위한 활동보고'를 발표했다.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은 '대행교육학 정립을 위한 실천사례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한마음선원 해외지원 역사와 특징 등을 분석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혜유 스님은 해외지원 포교의 중요한 요소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꼽고, "선사의 수행법이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통용된다"고 주장했다.

1천여 대중 참석… 연구 활성화

대행선연구원과 한마음과학원의 학술대회는 3, 4층 법당에 마련된 좌석을 모두 채울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인 지원장 스님과 신도들은 각각의 학술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열정적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에 참여했다.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개회식에 참가한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대행 선사께서 입적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2번의 학술대회가 열리고 문중이 여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선사의 수행과 덕화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상찬하며 "더 많은 대행 선사와 같은 수행자가 나오는 계기가 되는 학술연구와 발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일 간의 학술대회에서 환영사와 격려사를 한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한마음선원의 출재가 제자들은 선사께서 체득해 제시한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법이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대중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관련 기사 A4 · 5면〉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그 시는 언어의 사리

– 단시조집 〈고마운 아침〉을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송하는 시 몇 편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립거나 고향이 그리우면 그리움 시를 읊으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랩니다. 우울하고 슬프거나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랑 시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사랑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그린 시는 마음의 친구가 되고 감정치료사나 심리치료사가 되기도 합니다. 시를 읽고 쓰면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치료〉라는 책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 치료사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사람이 시적이어서 그런지 시를 가까이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촉촉해집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대됩니다. 시는 세상을 비판 고발하기도 하고, 역사를 반추하기도 하니까요.

따뜻하고 명징한 詩 설법
"장경속에서 더 많은 시어
걸어나와 세상 밝히길"

*산승이 최근 불교언론인 홍사성 시인의 단시조집 〈고마운 아침〉을 보았습니다. 불교라는 글자가 없는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이 시집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늦깎이로 등단해 첫 시집 〈내년에 사는 법〉이 주목을 받더니 이번에는 정형시를 모은 단시조집 〈고마운 아침〉이 출간과 함께 시선집중이라고 합니다.

'안심을 얻다' – 장맛비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다 / 우산을 썼는데도 온몸이 다 젖었다 / 차라리 비에 젖으니 되레 마음 편했다 /

거스르지 않고,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순리와 비움의 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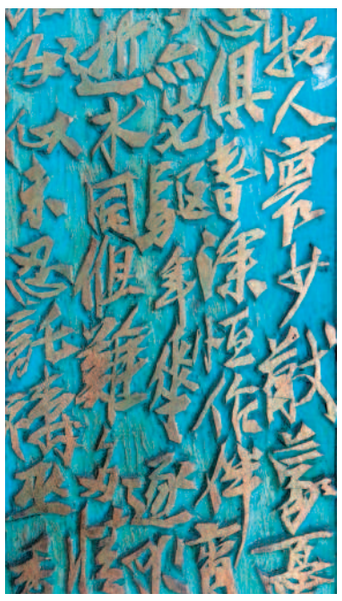
'결론' – 어찌해도 안 되면 어찌해야 합니까 / 눈감고 / 귀 막고 / 입 닫고 / 돌아 앉으세요 / 그리고 기다리세요 / 곧 결론이 날 겁니다 /

안이비설신의 6근을 쉬고 기다리면 업대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천망극' – 지천보다 가깝던 사형님이 입적했다 / 회자정리라 /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나 / 거짓말 할 곳 없는 게 가장 허전하다 /

혈육 같던 사형으로 시인였던 오현선사의 입적을 누구보다 아파했던 시인은 '영정사진' '그 얼굴' '만해마을에서 하룻밤' '설악산' 등 여러 편의 추모시를 헌정했습니다. 향기로운 인간관계입니다.

'패랭이꽃'은 31,80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의 인연을, '모두가 꽃'은 세계일화의 화엄을 노래했습니다. '태풍일과후'는 자연이 일러주는 겸



시는 영혼의 사리 그림 · 조향숙

손을 그렸습니다. 책의 제목인 '고마운 아침'은 당연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라고 아내 사랑과 함께 전합니다.

응축된 함축미를 보이는 이 시집은 절집의 주련 같은 시조 법문집으로 따뜻하고 명징합니다. 산승은 이 시집을 오랜 수행의 불심과 시심이 일체화된 통찰지의 언어 사리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시는 그 어떤 설법보다도 대중교화의 힘이 있습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입니다. 〈고마운 아침〉처럼 불교시가 아닌듯한 불교시도 좋고, 선시나 게송도 좋습니다. 문수와 보현의 화신이라는 한산과 습득의 시도 좋습니다. 시를 벗 삼읍시다. 그리고 팔만대장경 속에서 아름다운 시어가 걸어나와 세상을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비구니 헌신, 불교발전 영향 지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창립 50주년 기념법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68년 '우담바라회'로 출발해 1985년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비구니스님들의 역량 결집을 도맡아온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10월 28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전국비구니회 50주년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법회를 열고, 반백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100년을 도모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교역직스님들과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김정숙 영부인, 박원순 서울시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내빈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서는 전국비구니회의 50년 활동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다큐멘터리에는 목동 청소년회관을 시작으로 전국비구니회관을 건립 · 운영하면서 일궈낸 문화, 복지, 교육 발전에 담긴 비구니스님들의 활약상이 조명됐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환영사에서 "50년의 성상을 지내오며 때로는 한국불교의 영광과 위기의 순간을 함께 이겨내야 했으며, 비구니스님들의 수행과 포교를 격려하며 사부대중의 의지처가 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50년 역사와 역대 비구니 원로스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원력을 세워 보살도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비구니스님들이 법상에서 후학을

원행 스님 등 스님들 비롯해
김정숙 여사 · 박원순 시장 등
사부대중 2000명 참석 축하

뮤지컬 등 문화공연 선뵈고
강남구에 장학금 · 백미 전달
육문 스님 "새 원력 세우자"

제접하고 대중을 교화하는 것은 이웃종교, 이웃교단,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승한 전통이다. 이 같은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평등의 세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격려한 뒤 총무원장 후보시절 공약인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 등에 대해 종단 중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인 명성 스님은 영상 격려사를 통해 다가올 100년을 비구니회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명성 스님은 "10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교육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후대를 위해 지금 이 자리서부터 힘을 내 인재불사를 해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초발심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영부인은 축사에서 "전국비구니회 50주년을 축하드린다"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구니스님들이 대한민국의 등불이 돼 달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달라"며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의 가르침이 사회 전반에 흐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대중이 활동상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은 "부처님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생각나는데, 특히 비구니스님 사찰에 가면 푸근하고 편안하다"며 "앞으로도 크게 발전해 한국불교 중흥에 비구니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5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장학금 1000만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백미 200포(2,000kg)를 강남구청에 기탁했다. 또한 오후 문화공연서는 뮤지컬 '손오공과 급식 원정대(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온 가족 사찰음식 대잔치)'를 비롯해 찬불가 · 샤카디타 앙상블 · 어린이 중창 · 수화공연 · 핸드벨공연 등이 강당에서 진행됐다. 아울러 전국비구니회 각 지회들은 플리마켓을 운영해 사찰음식과 각종 소품 등을 판매했다.

"연기 가르침, 청소년 자살문제 대안"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1주년 대화마당

'청소년 소외' 주제로 다뤄
"해결보다 접근부터 선행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청소년 사회문제에 대한 대화마당을 열었다. 첫 대화마당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청소년 소외문제를 다뤄 연기의 가르침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10월 31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연속 대화마당 '불교, 미래세대를 말한다'를 열고, '미래세대의 소외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사진〉

이날 진창호 생명생존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



워크 실행위원은 마중물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현황과 청소년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에 토론자로 나선 황선미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은 "불교는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폭력과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한 발생원인과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연기적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매 삶의 순간에서의 실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국장은 이어 청소년 상담사례를 제시한 뒤 "불교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과 교육에 무관심했다. 앞으로 스스로 주체 · 객체가 돼 연기적 공동체에 대한 자각의 확산,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며 "종단과 사찰, 단체 등 연대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수안 스님은 "청소년 소외는 어느 종교, 어느 부처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접근이 이뤄지도록 유연하게 대처한 방법론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선출 두고 내홍 조짐

단독 입후보 김성권, 재임 무산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이 단독후보로 나선 제30대 중앙회장 선거가 부결됐다.

대불청 중앙대의원회(의장 최재혁)는 10월 28일 제69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0대 중앙회장 선출 선거를 진행, 찬성 55표, 반대 81표로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성권 현 회장의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불청 중앙대의원회는 선거일 및 입후보 등록기간을 재공고하고 11월 25일 오후 1시 재선거를 치루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불청은 정회원 자격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불청 정회원 자격은 만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회원 고령화로 인한 자격 상한 폐지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군승파송 50년, 군포교 활성화 박차

군종교구 11월 30일 기념법회 등 사업 진행

10월 28일 호국 원광사서 초대교구장 공덕비 제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가 역대 군승과 교구장 업적을 선양하는 한편, 군불교 역사 정리, 청년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불자 양성 나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10월 30일 군승파송 50주년을 기념해 인제 만해마을에서 사상 최초로 육해공 군종병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그동안 군종교구는 군종병들의 신심을 북돋기 위한 집체교육과 연수를 마련했지만, 직접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각군 군종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군종교구는 지난 8월 한국불교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최초로 전국대학생과 군장병들의 교류의 장을 만든 바 있다. 군종교구와 대불련은 이를 통해 제대 후 청년불자로 자리잡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대 교구장 일면 스님의 공덕비 제막식 모습.

역대 교구장 공덕비 건립

이와 함께 군종특별교구는 10월 28일 서울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초대 교구장 일면 스님의 공덕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일면 스님은 초대교구장으로 교구기틀을 닦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김병주 대장, 예비역불자연합회장 박정이 장군, 전 육군참모총장 임충빈 장군, 육군선임법사 이정우 법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막식에서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일면 스님은 군종특별교구로서 위상을 다지고 조직과 교구업무 수행의 기틀을 다지셨다. 특히 군법당 관리와 행정의 기반을 닦고, 군승40년사 발간 등 군불교 역사 정리 및 비전제시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김병주 국군불교총신도회장도 "스님의 발자취에 비하면 공덕비는 다소 부족함이 많다. 공덕비 제막을 계기로 위법망구의 마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다"고 축하했다.

일면 스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군포교와 한국불교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군승가사 봉정 등 기념식

군승파송 50년을 기념해 호국 원광사와 서울 조계사를 잇는 행사도 마련된다. 군종특별교구는 11월 30일 제50주년 군승의날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호국 원광사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평화의비가 봉안되며,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초기 전시가사 및 군불교 50년사 봉정식, 사진으로 보는 군승 50년 전시전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군승법사들에게 법어를 내리고 활발한 군포교를 당부할 예정이다.

군종교구 측은 "군승 파송 50년을 맞아 새로운 군불교, 군포교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라오스 위해 NGO단체와 '뭉쳤다'

9월 말 협약, 학생 대상 현지구호 착수

지난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이 중단된 가운데, 조계종이 NGO단체들과 현지 구호 공동대응을 위해 뭉쳤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과 공동주관으로, 라오스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NGO단체들과 '라오스 홍수피해 구호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9월 말 비공식적으로 체결, 총 30만불 규모의 구호활동에 착수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협력단체에는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등 불교계 NGO단체를 비롯, 아시아협력기구, 태화복지재단이 포함됐다.

재단 등은 △텐트 및 천막을 활용한 교육 공간 구축 △책걸상 및 학습물품 등 교육 기자재 구비 △정수시스템 및 위생설비 구축 △건강검진 및 기초보건관리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서 공동 구호를 전개할 계획이다.

구호활동은 지난 9월부터 세피안 · 통태 · 싸남사이 중학교 등 3개 학교서



전개됐다. 재단 등은 이 지역 약 2천여 학생들을 위해 약 60동의 텐트를 설치하고 임시 교육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수행단체 관계자들은 10월 11일 현지를 방문, '라오스 홍수피해 공동대응 사업 기증식' 〈사진〉을 통해 지원물품 등을 전달했다.

10월 3주차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이번 활동은 불필요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시도"라며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각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해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미소서 느껴진 슬픔' … 문제해결 다짐

나눔의집, 10월 27일 故배춘희 할머니 흉상 제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하점연 할머니가 지난 10월 26일 별세한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관련 민간단체 등이 모여 피해할머니들을 기리고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릴 것을 다짐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10월 27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서 '故배춘희 할머니 흉상 제막식 및 조소작품 공모전 시상식' 〈사진〉을 열었다. 이날 광주시, 광명시, 광명평화의소녀상참뜻계승관리위원회, 영화 〈귀향〉 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압구정성당봉사팀을 비롯해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나눔의집서 생활하던 故하점연 할머니의 타계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간결하고 차분하게 치러졌다. 이행균 작가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故배춘희 할머니 흉상을 제작했다.

故배춘희 할머니(1923~2014)는 경북 성주 출생으로, 19세에 취업 사기로 중국 만주서 4년간 성노예 피해 생활을 했다. 1980년 귀국 후 매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이 작가는 "모습은 배 할머니와 닮게 만들었지만 미소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담기가 힘들어 작업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각자 본분서 최선을 다 하면 일본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조소작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양형규 작가가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8작품은 한 시민이 기부한 100평 부지의 추모공원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화 〈귀향〉 촬영 세트장으로 조성된 영상기념관 개관식도 진행됐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귀향〉을 통해 370만 관객에게 '위안부' 이야기를 알리고 대부분 수익을 나눔의집에 기부한 바 있다. 김지원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⑯

장점숙 부산보훈병원 봉사자

"함께 행복한 삶, 호스피스에 있어요"


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장점숙 봉사자. 환자들에게 연꽃등을 나누고 있다.

마음 나눔, 생사 초월 보람
죽음 두려움 없어져 행복
가족이 함께 동참 눈길

통도사 봉사단으로 사찰에서 활동하던 장점숙 봉사자가 호스피스 공부를 시작한건 2002년도였다. 이해 8월 장점숙 봉사자는 환희불교복지대학 9기로 졸업 후에 부산 보훈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욕봉사부터였다. 사찰에서 봉사를 했지만 환자들을 목욕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경험이 없는데 환자를 보러 갔으니 어려웠어요. 보훈병원은 대부분 고엽제 환자분들이 많았거든요. 가족사도 안좋은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2003년도 5월부터 부산 보훈병원에서 있으니 이제 15년이 넘었다.

장점숙 봉사자는 "대부분 남자분이시라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분들이 많다. 상담도 하고 가끔은 울고 싶을 때 울도록 해드리면 참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봉사자는 "돌아가신 뒤에도 이런 마음을 나눈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점숙 봉사자는 이 일을 하고 나서 삶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육신을 떠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보훈병원은 특성상 국가유공자이다보니 아무래도 점잖은 분들이 많아요. 또 오랫동안 아픈 분들이 많아서 환자들의 마음이 담담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분들에게 배웠어요."

장점숙 봉사자는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한 마음 차이다. 자녀들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고 말했다.

장점숙 봉사자의 곁에는 그녀의 남편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장점숙 봉사자는 "우리 팀도 열심히 하지만 남편이 초파일 행사에서 등을 달고 하는데 심부름을 해주는 등 묵묵히 도와주고 있다"며 "부부가 함께 봉사하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점숙 봉사자는 "모든 호스피스봉사자들이 건강을 잘 챙겨 함께 불교호스피스를 열심히 해가자"고 말했다. 장점숙 봉사자는 "환희불교복지대학 또한 기수별로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되는데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자비나눔을 통한 행복한 삶을 맛보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7대종단 평신도가 함께하는 캠페인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www.hspa.k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개신교 · 불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천주교 ·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답게살겠습니다 운동본부 (가나다순)

한반도 평화다짐 걸기축제

모두함께 우리답게

I 행사안내 I

행사일시
공식행사 : 2018. 11. 10.(토) 13:00 ※식전행사 12시
걷기대회 : 2018. 11. 10.(토) 14:00

행사장소
무대행사 :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걷기대회 : 올림픽공원 일대(3.2km)

프로그램
무대행사 : 평화 다짐 세레모니, 축하공연(박현빈 외)
부대행사 : 스포츠스타 초청 사인회, 경품행사
※경품 : LED TV, 청소기, 자전거 외 (걷기대회 참가자 대상)

I 신청안내 I

참 가 비 무 료
기 념 품 걷기대회 전 참가자 대상 소정의 기념품 제공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18.10.15.(월)~11.8.(목)
현 장 접 수 : 2018.11.10.(토) 11시 30분~13시
참가신청 공식홈페이지(www.답게살겠습니다.kr)
문 의 사무국 02-2272-3848

2018. 11. 10 토 13:00 |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대행선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 되길”

대행선연구원 제2회 학술대회

‘대행선 수행과 깨달음’ 주제로 10월 26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수증관 · 수행체계 등 연구 발표

글= 신성민 · 사진= 노덕현 기자


김호귀 교수


김준호 교수


법상 스님


청강 스님


박소령 교수


고승학 교수



대행선연구원은 10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제 발표 후 이뤄진 종합토론.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10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수행법에 대한 수증관 · 수행체계 등을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대행선 · 묵조선 수증관 친화성 높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를 통해 대행선과 묵조선의 수증관이 접점과 친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호귀 교수는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를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로 나눴다. 대행선에서 “관법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자리의 성격이 농후하고 오공법은 이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법과 오공법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호융된다는 게 김호귀 교수의 설명이다.

김호귀 교수는 “자리에 바탕한 이타가 아니면 공허하고, 이타에 근거하지 않은 자리는 독선”이라며 “그래서 관법의 수행과 오공법이 실천은 차제적이고 개별적인 구조가 아니라 동시적 · 호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행 선사의 수증관 원리에 대해서는 △즉생활적인 원리 △‘수증불이(修證不二)’를 강조하는 점 △한마음의 이치가 현성(現成)되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김호귀 교수는 묵조선 수증관 원리가 좌선을 통해 개개인이 ‘본래성불’임을 자각하는 것이며, 이는 ‘생수(生修)’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임을 제시했다.

묵조선 수증관의 구조에 대해서는 △수행과 깨달음이 좌선을 통해 드러나는 지관타좌 △몸과 마음에 자유를 얻어서 분별과 집착이 없이 초월된 삶으로 나타는 신심탈락 △본래성을 그대로 자각하는 행위인 본증자각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호귀 교수는 “대행선과 묵조선에서 수증관의 접점은 구조의 측면에서 주인공에 대한 믿음과 놓고 맡겨둠과 지켜봄의 방식이 본증자각 · 지관타좌 · 신심탈락에 근접하며 원리적으로는 수증불이에 근거한다”면서 “대행선의 수증관은 조사선 수행의 전통에 바탕하면서 자리의 관법과 이타의 오공법이라는 보살도와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래선 바탕한 현대적 생활선”

대행 선사가 제시한 ‘주인공 관법’이 여래선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생활선이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박소령 동국대 교수는 대행 선사의 법어 중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이 관법은 생활선이면서 여래선”이라고 설했던 것을 주목하며 불교전통의 실천사상인 ‘여래선’과 대행선의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박소령 교수는 초기불교 경전 〈증일아함경〉 등을 근거해 여래선은 “대승적 일심과 반야 그리고 여래장 사상이 종합된 실천관”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여래선은 중국 달마선종의 실천원리로 전개됐으며 선종 4조 도신, 6조 혜능, 마조도일 선사 등도 여래선을 표방했다.

“중국적 조사선법의 실천원리는 대승실천사상인 반야공관과 여래관이 압축된 여래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 박소령 교수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도 이 같은 ‘대승적 여래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소령 교수는 “주인공 관법은 마음의 진실한 주체로서의 주인(主人, 여래관)과 마음의 객체로서의 만법이 공(空, 반야공관)한 주인공을 한마음에 의거해 관하는 실천체계”라면서 “한마음, 주인공, 오공 사상이 종합된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생활선에 대해서는 대행 선사가 설한 ‘행주좌와 관법’을 통해 분석했다. 실제 대행 선사는 “우리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선정에 들어있어야 하며 또,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했으며, 법문 중 주인공 관법을 ‘행주좌와 관법’이라 명명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박소령 교수는 “대행 선사가 ‘행주좌와 관법’을 말한 이유는 자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불교와 생활은 양립이 아닌, 생활이 곧 불교이기 때문”이라며 “선사는 불교 전통적 여래선을 시대에 걸맞은 주인공 관법으로 되살려 내 현대 대중에게 바로 실천해 자각할 수 있는 생활적 실천 수행법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다”고 대행선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일상이 수행’, 대행선 수행체계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은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대행 선사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를 개론적으로 분석한 ‘묘공 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해’를 발표했다.

법상 스님은 대행 선사의 수행체계는 세 번 죽는(三死) 수행을 통해 삼공(三空)을 관하여 삼제(三諦)를 체득해 오공(五共)으로 드러내 삶의 현장에서 구현한 ‘생활 속의 참선, 참선 속의 생활’이라고 규정했다.

대행 선사의 체득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있음으로 해서 상대와 세계가 펼쳐진다는 연기적 관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마음요전〉 ‘수혜편’에 나타난 선사의 게송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상 스님은 “대행 선사가 전한 깨달음의 진정한 내용은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도리’”라며 “이는 조사선에서 중시한 ‘증득의 도리’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대행 선사 증명관, 어떻게 볼 것인가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청강 스님은 ‘대행의 증명관 일고’를 통해 대행 선사의 관법 수행에서 증명관의 원리와 실천, 간화선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했다.

청강 스님은 대행 선사의 증명관을 “견성하기 위해 본래 자신이 부처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로 본래성불사상을 근간으로 한 불성론인 ‘한마음 · 주인공’을 제시했다.

대행 선사의 증명관 실천 체계로는 ‘믿음 · 놓음 · 지켜봄’ 3요소를 들었다. 이에 대해 청강 스님은 “주인공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인공에 대한 믿음과 놓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행 선사는 체험을 통해 편안함과 감사함 등이 나오면 이를 주인공에 회향하는 한편, 근본 참나인 주인공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생기면 증명관을 해볼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강 스님은 대행 선사의 관법은 묵조선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증명관은 간화선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공통점으로는 본래성불에 대한 깊은 믿음과 이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하는 점과 의정을 꼽았다. 하지만 화두 제시 유무와 의정의 의도성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행 선사가 제시하는 증명관의 특징을 보면 선사의 관법 수행이 조사선 사상을 현대에 맞게 계승해 가는 과정에서 묵조의 사상과 유사한 반면 증명관은 간화선과 유사하다”며 “이는 불성 사상의 본각에 바탕을 둬 불성을 증명하는 시각(始覺)적 방법이다. 이러한 증명관은 선사가 제시하는 수증관에서 견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준호 울산대 교수는 ‘초기불교의 자아와 무아관’에서 대행선의 정체성을 ‘한마음 · 주인공’이라는 술어에서 찾고 ‘자등명(自燈明)’ 불교정신과 무아설을 주목했다.

고승학 금강대 교수는 ‘화엄사상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중국 화엄종지엄의 수행론을 분석했다.

“대행선 연구 활성화 노력”

학술대회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학술대회를 계기로 대행 선사의 수행법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발원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는 언설로 다할 수 없는 수행을 통해 광대한 마음의 도리를 깨치신 후 한마음선원을 세워 평생토록 쉼 없는 법회와 설법을 통해 불법의 지혜를 전하고 각자 인생의 주인이 돼 대자유인으로 사는 길을 일러주셨다”면서 “선사의 가르침은 이제 눈 밝은 학자들을 통해 대행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펼쳐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마음선원이 일궈낸 성과는 모두가 선사의 신명을 아끼지 않은 수행과 깨달음의 산물”이라면서 “한마음선원의 출재가 제자들은 선사께서 체득해 제시한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법이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대중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많은 업적을 이룬 스님들이 입적한 뒤 제자 간의 갈등 등으로 그 덕화가 퇴색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하지만 대행 선사께서 입적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2번의 학술대회가 열리고 문중이 여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선사의 수행과 덕화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상찬했다.

이어 “대행 선사가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대행 선사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계기가 되는 학술연구와 발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연구실장 혜선 스님,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장,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휴대전화 011-870-0021

대행 선사 가르침, 과학 만나다

한마음과학원 제3회 학술대회

10월 27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과학 · 교육 · 심리 등 제반 학문
대행 선사 가르침 접목 연구

글= 신성민 · 사진= 노덕현 기자


이준엽(의학팀)


이상호 박사


김영래 교수


김민선(교육학팀)


혜유 스님


박근영(공학팀)


최재석(식물팀)


김재영 교수


안영우 전문의


랄프 패슬러 교수


한마음과학원은 10월 2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모든 발표자가 모여 진행한 종합토론.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란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1927~2012). 대행 선사 사상을 의학 · 교육 · 환경 ·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연구한 결과물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10월 27일 오전 9시 안양본원에서 '제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과학 학술대회서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과학 · 교육 · 의학 등에 접목 · 연구한 논문과 계획 보고들이 대거 발표됐다.

한마음과학원 식물팀은 '선법가가 콩나물의 발아, 성장 및 질병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대행 선사의 선법가가 식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음성대조구로서 무처리군, 양성대조구로서 단일파장 처리구(1kHz)와 모차르트 음악처리구, 양성대조구로서 선법가 처리구(삼세가 둘 아닌 노래)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식물팀은 콩나물을 20℃에서 5일간 콩나물 재배기를 이용해 암조건으로 배양했으며, 1일 2회 각각 60분씩 음원을 처리했다. 이 같은 실험은 각 군당 약 1000개체를 대상으로 3번에 걸쳐 이뤄졌다.

식물팀은 "실험결과 선법가군과 모차르트 음악군에서 질병 발생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추가적인 생리생화학적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SCI급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마음법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공생 생명체로서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 발표를 통해 홀로게놈 개념을 중심으로 생명 진화에 대해 조명했다.

생명현상에 대해서 대행선사가 일찍이 명료하게 밝힌 것은 '생명체란 개체로 따로 존재하는것이 아니고 무수한 자생중생을 내포한 더 큰 하나'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개념에 가장 유사한 것이 '홀로게놈'이라고 보았다.

'홀로게놈'은 숙주와 공생미생물을 합쳐서 부르는 새로운 용어다.

안영우 전문의는 "홀로게놈의 변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확실히 전해지고 있다"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은 새로운 종을 탄생하는 데 있어 결정적 구실을 한다. 동물이나 식물의 진화를 일으키는 힘은 그들의 공생미생물 간의 협력을 통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홀로게놈 개념은 의학적 치료와 질병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바이러스나 세균 무리가 수십억 년 동안 유전자 가공을 자연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큰 틀에서 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행교육학 정립 시도 '눈길'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주인공 관법을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지를 밝힌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수는 '지혜교육으로서의 한마음교육 연구'를 통해 대행 선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관을 비교하고 한마음교육관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

김영래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지혜는 '대상을 참답게 원리적으로 아는 것'인 반면 대행 선사에게 있어 지혜는 한마음에 직결된 한생각의 지혜이며, 일체에 통신돼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는 지혜라고 분석했다.

순수한 진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극복하는 '자기초월의 길'이 필요한데 대행 선사는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김영래 교수는 주장했다.

김영래 교수는 "선사의 가르침대로 일체가 둘이 아니며 나 아님이 없음을 아는 지혜를 얻고 일체와 더불어 공심, 공체라는 것을 알고 이 도리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론적, 체험적으로 증명해낸다면 보편적 지혜교육론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은 '대행교육학 정립을 위한 실천사례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도 사례를 통한 주인공 관법 중심의 대행교육에 대해 교육학팀은 "학습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마음작용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인공 관법을 적용해 마음의 힘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자비를 구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대행교육학은 종교의 틀을 넘어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일상 속에서도 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행 교육을 학교 교육과 일반 사회교육에 확장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적 접근들과 연계해 학문적 이론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마음과학원 공학팀이 '대행 선사 법문에 나타난 에너지 발생 장치의 기초연구를 위한 활동보고'를, 의학팀이 '한마음 관법 수행에서 나타난 뇌파 연구 계획'들을 소개했다.

대행 선사 수행법, 세계로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마음과학원의 연구 스터디 이외에도 개인들의 연구 발표도 이뤄졌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수행중인 혜유 스님이 발표한 '한마음선원 해외포교 현황'이었다.

스님의 발표 논문은 지난해 독일 본대학 비교종교학 박사 학위 논문 '서양 내 한국불교-대행 선사 사상을 중심으로' 중 해외포교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한마음선원 해외지원의 역사와 신도 구성 등에 대한 의미를 살폈다.

혜유 스님에 따르면 한국불교 해외 진출은 이민자를 위한 사찰을 건립한 1970년대부터 이뤄졌으며, 한마음선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지원을 개원하기 시작했다.

한마음선원의 해외진출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접한 이민불자와 현지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미주지역은 대행 선사 법어집을 읽고 미주 이민불자들이 개원 설립의 요구가 이어졌고 1987년 산호세지원, 알래스카지원이 1988년 모건힐지원이 잇달아 개원하며 미주 포교의 서막을 알렸다.

독일의 경우에는 글루브레히트 前 하노버 대학 교수가 1974년 처음 대행 선사를 친견한 이후 30차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가르침을 배웠고, 1996년 독일지원 개원에 주축이 됐다.

남미 지역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과 뚜꾸만지원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감화받은 이동구 · 서아리 씨가 크게 마음을 내어 이뤄졌다.

현재 한마음선원 해외지원은 10곳으로 조계종 소속 사찰 중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각지에 있는 만큼 해외지원의 신도 구성들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지원과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은 한국인과 현지인이 1/2씩 차지하며, 한국 교민들이 많은 태국과 미주지원은 대부분의 신도가 한국인이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뚜꾸만지원은 불교 수행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이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혜유 스님은 "한마음선원은 종교 전파의 개념이 아닌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에 목적을 둔다"며 "이러한 태도는 각각의 나라, 문화에서도 화합돼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해외포교의 중요한 요소로 '가르침'과 '수행법'을 꼽았다. 실제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주인공 관법은 해외지원의 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선원을 다니는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혜유 스님은 "대부분의 해외 신도들은 한마음선원을 다니기 전 이미 불교를 알고 참선을 접했다"면서 "주인공 관법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선수행법이기에 미국, 독일, 태국 등 지원 신도들은 대행 선사의 생활선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양에서 유행처럼 받아들여진 젠(Zen) 문화에서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현지인 불자들은 명확하고 현대에 맞게 설명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받아들였다"며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과 주인공 관법이 국가와 인종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김재영 서강대 교수가 '한마음연구와 종교심리학 운동의 적합성- 대행선사와 윌리엄 제임스를 중심으로', 랄프 패슬러 마르부르크대 교수가 '고대 문헌 연구가 대행 선사 법문 번역에 기여하는 점'을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마음 본질 연구 법석 펼치겠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학술대회에 앞서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은 삼귀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 격려사, '한마음 과학'에 대한 대행 선사의 영상법문으로 진행됐다.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대행 선사께서는 항상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법을 알아서 유한한 세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하셨다"면서 "이 말씀이 한마음과학원에서 각 전문 분야를 통해 마음의 본질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일을 쉼 없이 해 나가는 이유다. 앞으로도 이렇게 법석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등 전국 · 해외 지원장 스님,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카렌다 BUDDHISM CALENDAR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11〉 조천읍 조천리 고관사

대웅전이 면사무소로…4.3아픔 佛心 극복



1960년 중반 이후 석조건물로 지어진 고관사 지장전.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조천포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문이었다. 육지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문이기에 조천은 과거 연육의 교통 요충지였다. 그만큼 항일운동에 앞장선 조천리,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감내해야한 일제 하 참담한 과거 안겨준 아픈 상처들. 역사의 피해자이면서도 고통받는 주민들의 의지처로써 역할을 담당하며 수행해온 사찰이 바로 고관사다.

옛 관음사라는 뜻의 사명이 보여주듯 고관사(故觀寺)는 고려 전기에 창건돼 19세기 중엽까지 존속한 옛 관음사의 명맥을 이은 사찰이다. 1927년 화주 고계부와 강정완 보살이 기와로 된 개인 주택을 매입해 선암사 제주포교사로 창건하게 된다.

1930년 고자선 보살이 전라남도 선암사에서 목조 아미타불좌상을 모시고 봉안하면서 사찰의 기반을 닦게 된다. 고관사는 신도가 증가함에 따라 1938년 마을 재가불자들과 함께 지장계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불교 활동을 펼치지만, 1948년 4.3이 발발하면서 그 여파로 조천면 사무소가 불에 타 고관사 대웅전이 강제로 매각된다. 고관사 대웅전이 조천면 면사무소로 이용되자 강정완 보살 등은 조천초등학교 인근 사가에 아미타불좌상을 모시고 명맥을 잇게 된다.

고관사 창건주인 강정완 보살의 외동딸 김영환(만 97세) 보살의 남편도 4.3 당시 '폭도'로 몰려, 제주시 박성내서 총살되는 비운을 맞는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김영환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무신 장사를 하며 자신이 낳은 자식들과 더불어 절과 인연이 된 어린 자녀 3명을 키우는 등 관세음보살의 화신처럼 삶을 살아온다.



4.3이전에 고관사에 모셨던 아미타부처님.



1970년대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고관사 신도들의 모습.

전각 강제매각, 私家 불상 봉안

주민 의지처로 명맥, 1963년 불사

스님·신도 한마음으로 지장전 세워

김영환 보살의 딸 이명자 씨는 "석유 등잔불 아래서 어머니가 반야심경을 외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면서 "사찰의 재일이나 안택기도가 있으면 어머니가 떡이나 묵을 쑤시는 등 정말 사찰 일을 자신의 일처럼 정성을 다하셨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4.3이 안정을 찾으면서 강정완 창건주와 신도들은 강제로 매입당한 옛 법당을 찾아 나선다.

당시 1958년 주지로 부임했다가 지금은 환속한 향촌 거사에 따르면 "내가 1958년 5월경에 봤던 고관사는 한심스러웠다. 건물이라고는 전통식 기와집으로 면적은 알 수 없었지만 창고 한 채와 화장실 곁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다. 법당 건물 한켠에 작은 방 하나가 붙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스님은 새롭게 법당을 짓고자 1963년 모연을 했으나 고관사 신도들의 주머니 사정으로 자신이 구상하는 법당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 고심 끝에 손수 법당을 짓는데 온 몸을 바치게 된다.

스님은 "직접 인력거와 망치, 골채를 사고 자갈과 모래 등을 사다가 직접 집을 짓는데 공을 들이다보니 불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면서 "불사를 내 손으로 마칠 수가 있어서 혼자 방에서 불보살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석조 건물로 다시 지어진 건물이 바로 지금의 지장전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위가 넘쳐난다.

그리고 고관사의 도량 가운데는 부처님의 '불족'이 하얀 대리석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대웅전 앞마당에는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 사리 2과를 모신 3층 석탑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고관사

조천마을 피해 보듬은 안식처

고관사는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말사로 조천읍 조천리 마을 안에 있다. 고관사는 1927년경 화주 고계부와 강정완이 기와로 된 사가를 매입해 선암사 제주포교소로 창건했다. 1930년에는 고자선이 선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모시고 와 봉안했다.

1948년 제주4.3사건시기에 조천면사무소는 무장대의 공격에 의해 불타버렸다. 이에 면장은 총을 들이대며 고관사를 매각할 것을 협박했다. 기와 법당과 초가 한 채를 40만원에 매각하고 불상과 탱화를 사가에 옮겨 모셨다. 돌아온 이후 1968년경에 재매입했다. 당시 함께 했던 기와 법당과 초가는 헐렸고 탱화 일부는 훼손돼 없앴다. 당시 아미타불상과 독성탱화는 지금 고관사에 남아있다.

고관사가 위치한 마을 조천은 제주4.3사건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마을이다. 조천리는 해방 이후 제주 사회 흐름에 적극 동참한 마을이다. 1948년 1월에는 남로당 조천지부 회의장을 제주경찰이 급습해 220여 명을 검거한 사실 등을 통해 조천 마을 사람들의 동향을 알 수 있기도 하다. 3월에는 조천중학원의 김용철 학생이 조천지서에서 취조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과 주민들이 지서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1948년 5.10선거 준비 기간에는 투표소가 방화되기도 했다. 10월 23일 무장대가 조천지서를 공격했고 11월 4일에는 조천면사무소를, 다시 11월 11일에 조천지서를 공격했다. 조천면사무소는 불에 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무장대의 활동으로 토벌대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복학살을 벌였다. 이를 피해 주민들이 대규모 입산하기도 했다. 입산자가 있는 집안은 입산이 죄가 됐고, 다시 내려와 귀순한 사람들은 또 입산 경력이 죄가 돼 학살의 대상이 되던 시절이었다. 12월 21일에는 조천리가 무장대의 공격을 받자 보초를 잘못 섰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을 총살했다. 토벌대는 자수해서 내려온 조천면 주민 150명을 제주시 박성내로 데려가 집단 총살을 하기도 했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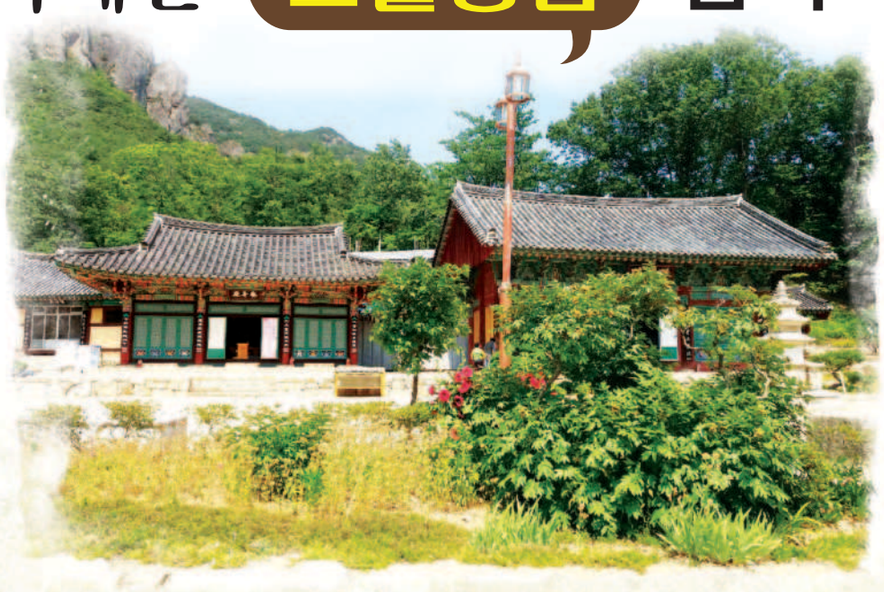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고기 덜 먹기가 답이다

⑧ 육식문화와 대량축산, 이대로 둘 것인가



심장과 뇌혈관 질환 및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들은 우리의 식습관이 채식에서 육식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닭 8억8천만 마리, 오리 5천만 마리, 소 1백만 마리, 돼지 1천 5백만 마리 등 총 9억 5천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잡아먹었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50년쯤에는 육류소비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소개되기도 했다. 불과 30년 이후의 일이다. 이는 지구가 2050년 예상인구인 90~100억 명을 먹여 살리려면 육류의 섭취를 최대 90%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공장식축산업이 지구의 황폐화와 이상기후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식용가축들의 일생은 대부분 고도밀집형태의 공장식농장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다. 이처럼 음식으로 소비되는 동물들은 대자연 속에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농장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료를 강제로 먹으며 죽지 못해 살다가 어느 날 도축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다. 바로 여기서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이에 따른 대량 살처분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불현 듯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라는 말이 생각난다.

불과 몇 해 전의 일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당국이 시행한 가금류의 살처분 숫자가 무려 1,20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같은 이유로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이미 4,000만 마리를 상회한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음식으로 소비하는 고기가 더 많은지 땅에 파묻은 가축의 숫자가 더 많은지 헷갈릴 정도이다. 그뿐인가. 2010-2011년 겨울동안 구제역의 여파로 매몰된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 숫자를 합치면 현재 전국의 땅속은 거대한 동물 공동묘지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집단 매몰지역 주변에는 침출수의 하천유입과 2차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비극적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의 음식문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식 위주의 식사가 불러온 필연적 과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더 많은 고기를 더 싼 값에 공급하려는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그동안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억눌러왔던 우리들의 고기 소비욕구와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전문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 간 우리나라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숫자는 매년 감소한 반면, 농가당 기르는 가축 수는 반대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예컨대 1990년에 농가당 평균 2.62마리이던 한(육)우가 2010년에는 6배 이상인 16.86마리로 늘어났고, 34.05마리이던 돼지는 1237.63마리로 40배 가까이 늘어났다. 닭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증가폭이 커 462.5마리에서 4만 1051.88마리로 폭증했다. 벌써 7-8년 전의 통계이니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말 그대로 공장식 축산환경 속에서 소나 돼지, 닭 등의 식용동물들이 대규모로 강제사육당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 대비 식용동물 사육 규모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각종 전염병 발생의 씨앗
살처분 동물 4000만 마리
살육의 업보 돌아온다

이런 환경에서 가축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그 결과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의 낭비와 함께 엄청난 숫자의 살처분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공업(共業)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게도 그 악업의 과보가 되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냉정하게 한 번 따져보자. 우리가 고기나 달걀, 우유 등 동물성식품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죽기라도 하는가. 대부분의 환경에서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고도 잘 산다. 그것도 아주 잘 산다. 이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백 만 명의 채식주의자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우리가 고기음식을 포기한다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도 아니요, 없어서는 안 될 건강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식탁 위의 쾌락'을 잠시 유보하는 것일 뿐이다. 이에 반해 동물들은 인간의 식도락을 위해 그들의 하나뿐인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실천윤리학자인 피터 싱어가 강조하고 있는 이익동등고려의 원리에도 한참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는 고기를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굳이 살아 있는 동물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육식문화를 채식문화로 바꾸는 시도야말로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명윤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잠시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려 보자.

>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 **인간에게도 그럴 수 있다.**
>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
> -임마뉴엘 칸트-

> **어떤 국가와 국민의 품격은**
> **그 국민이 동물을**
>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보면**
> **알 수 있다.**
>
> - 마하트마 간디 -

이 말은 불살생과 비폭력의 종교인 불교를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있는 우리 불자들에게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동안 우리는 과연 동물들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아마도 깊은 반성과 무거운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들 것이다. 조금 전까지도 우리는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고기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동물농장이 아닌 동물공장을 하루도 쉬지 않고 풀가동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불살생계를 오계의 첫 번째 계목으로 삼고 있는 불교는 현대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환경이나 생명생태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종교보다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이에 걸맞는 윤리적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붓다는 누구보다도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초목을 베거나 땅을 파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이것은 하찮은 풀과 나무도 엄연히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가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땅 속의 벌레조차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일깨운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은 붓다의 생명존중사상을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에 맞게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문득 불교집안의 아름다운 전통인 발우공양과 오관게(五觀偈)의 생명윤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게 된다. 밥상에 놓인 음식물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나와 자연은 서로 불일불이(不一不二)의 관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찰에서 먹는 곡물과 채소의 인연도 이럴진대 살아있던 동물에게서 나온 고기반찬이 우리 앞에 놓이기까지 가축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다시 한 번 더 옷깃을 여미게 될 것이다.

-오관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던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법정스님 번역, 길상사 공양게).

인간은 먹어야 산다.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이다.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불교적이란 말인가. 문제의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당장 조금이라도 고기를 덜 먹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작은 윤리적 인식의 공유야말로 불교윤리의 현대적 적용이 아닐까? 이는 곧 불교적 의미의 중도행(中道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기를 조금 덜 먹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살생계를 수지한 우리 불자들이 먼저 앞장서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여태껏 가능하면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고기 덜 먹기'의 불교윤리적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계속 이렇게 살다보면 언젠가 나도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허남결(동국대 불교학부)

창 종 공 고

사단법인 대한불교대경조계종

(문화관광부허가 제2017-10호 법인등록171321-0004642)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스님

(사)대한불교대경조계종은 불조인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의지하고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교리를 봉체하고 대승불교사상과 중도관을 용으로 진언밀교 종풍을 선양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과 호국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로 광도중생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제방의 큰 스님들과 법사님 및 포교사를 모십니다.

승정원장 일월 감찰원장 혜성 법계고시원장 정란 교육원장 해룡
호법원장 성담 포교원장 정허 연수원장 도국 비구니원장 용정

❑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 및 납골당 사업 · 승려 등 수행자 복지사업 · 교정사업 · 다문화 전통문화사업

입 / 종 / 안 / 내

◆ 입종 구비서류
승려 및 법사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 안팎 사진 1매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1부.

▶ 입종 종도는 승려증(법사증),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 한해서 위촉장 및 추대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총본사 / 총무원 : 천룡사 - 경상북도 안동시 향교1길 27-15호 (송천동) ✪ 총무원 전화 054)823-6777 직통 010-4053-2722

*본 종단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종무행정을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雨中 고행길이지만 신심으로 극복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⑨ 22~23번 사찰 가는 길


22번 뵤도지 전경. 본당으로 가는 계단 옆으로 코보대사의 샘이 보인다.

순례에 제일 힘든 건 '우천'
비에 젖은 옷·신발은 고난
오네 고갯길에 '룽따' 걸고
오가는 순례자 안전 기원을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다. 밖을 보니 밤새 비가 왔다 간 듯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숙소를 나서려니 카운터 직원이 배웅을 나온다.

"오헨로상!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해요. 조심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비소식이다. 순례길에서 가장 힘든 존재는 작열하는 태양도, 발 여기저기 난 물집도 아니다. 바로 비다. 비가 내리면 배낭과 옷이 젖어 걷는 속도가 느려질뿐더러 신발에 물이 스며 걷기 불편해 진다. 최악의 경우 산길로 이어지는 순례길이 계곡이 되기도 한다.

오늘의 목표는 23번 야쿠오지(藥王寺). 산길을 넘는 길이 몇 곳 있어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고 길을 지체할 수 없으니 길을 나선다. 어제 로프웨이로 내려와 원래의 순례길에서 조금 벗어났다. 1시간 반 정도를 걸어 순례길로 돌아가야 한다.

다행히 비는 오후부터 쏟아진다고 한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최대한 거리를 많이 가둬야 한다. 지도를 보니 오늘은 약 30km를 걸어야한다. 불행중 다행으로 산길이 이어지는 코스는 오전에 끝날 것 같다.

22번으로 이어지는 순례길 중 오네(大根)고갯길은 필자가 좋아하는 순례길 중 한곳이다. 그리 험하지 않은 오르막이 끝나면 대나무가 싱그러운 순례길이 순례자들을 맞이한다. 숲길을 빠져나오면 또 한 동안 논 옆을 걷는 길이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길이다. 하지만 비가 오고 난 다음의 고갯길은 여기저기 미끄러워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길바닥만을 보며 꾸역꾸역, 가쁜 숨을 쉬어가며 고갯마루에 도착했을 때, 일단 배낭을 풀고 쉬기로 했다. 그나마 덜 젖어 보이는 풀숲에 배낭을 풀어 놓고 쉬려니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다. 잠시 길 옆으로 빠져 미숫가루를 꺼내 먹기로 한다. 어제 같이 숙소에 묵은 동료들도 뒤따라 올라온다.

다들 배낭을 풀어놓고 주섬주섬 먹을거리를 꺼낸다. 나야 항상 먹는 미숫가루 경단에 생강편, 일본친구는 빵을, 프랑스 친구는 어디서 났는지 비스킷을 한가득 꺼낸다. 다함께 둘러 앉아 나눠 먹으니 아침부터 아주 배가 부르다.

"박상은 그 가루 참 잘 먹네. 힘이 나요?"

"탄수화물이니까요! 생각보다 배가 불러요."

"네팔 사람들도 비슷한 걸 먹던데."

"그렇죠,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네팔 이야기를 하니 문득 배낭 안에 넣어둔 기도 깃발, 룽따가 생각난다. 예전에 인도에서 사온 것이다. 티베트나 히말라야 문화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룽따는 오색 깃발에 불경을 써둔 것이다. '바람의 말(風馬)'라는 뜻의 룽따. 바람에 깃발이 나부낄 때마다 바람을 타고 부처님의 말씀이 퍼져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갯마루에 룽따를 걸며 길손들의 안전을 비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전통 중 하나다.

미숫가루를 털어먹곤 배낭에서 룽따를 꺼냈다. 고갯마루 위로 길게 펼쳐 걸곤 잠시 손을 모은다. 이 룽따 밑으로 지나는 순례자들이 모두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모두 안전하게 순례를 마치기를. 날을 헤아려보니 마침 오늘이 달라이라마 존자의 생신날이다. '룽따를 걸기엔 길상한 날이구나'라고 생각한다.

다시 배낭을 둘러매고 내리막을 조심조심 내려간다. 낙엽 밑에 숨어있는 진흙길에 발을 헛디디길 여러 차례, 고갯길이 끝나고 포장도로로 들어섰다. 탁 트인 길에 긴장했던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한 것이 먹구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게 보인다. 걸음을 서둘러 22번 사찰을 향한다.

22번 뵤도지(平等寺)는 최근 여러모로 칭찬이 자자한 사찰이다. 젊은 부주지 스님의 다양한 노력이 지역과 함께 사찰을 부흥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원래 시골 사찰이란 동네아이들의 놀이터'라는 생각으로 산문의 울타리를 허물어 경내를 개방하고, 사찰에서 판매하는 호신부는 지역특산품인 족물에 염색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과 상생하는 사찰, 함께하는 이웃으로 불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코쿠 88개소에 청·장년의 젊은 주지 스님들이 하나 둘 등장하면서 여기저기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 순례 중에 만난 나이 많은 도보 순례자는 "약 30년 전에도 주지들의 세대가 바뀌면서, 숨어있던 시코쿠 헨로가 일본에 널리 알려졌다"며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실제 내가 만났던 젊은 주지 스님들이나 부주지 스님들은 헨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늘어나는 외국인 순례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감사했다. 지금 시코쿠 순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니 미래가 기대될 따름이다.

뵤도지의 본당으로 오르는 길에는 작은 샘이 있다. 코보 대사는 수행 중에 약사여래의 모습을 친견하고 석장으로 땅을 찌르자 솟아나왔다는 샘이다. 코보 대사는 이 샘으로 목욕재계하고 백일기도 끝에 약사여래를 조성해 모셨다는 것이 이 사찰의 연기 설화다. 약사여래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구제하기에 그 이름을 '뵤도지(平等寺)'라 지었다.

참배를 마치고 납경소 옆으로 있는 작은 차당(茶堂)에서 빈 물통을 채우러 들어갔더니 커다란 유리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옆에 컵도 가득 놓여 있어 무엇인가 하고 옆의 안내문을 읽어 보았다.

"22번 뵤도지는 옛날 코보 대사가 약사여래의 가피가 깃든 샘을 솟아나게 하여 세워졌습니다. 뵤도지는 매일 아침 이 샘물을 길어 부처님전에 올립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알가수(閼伽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그만 알가수를 많이 길어 참배오신 여러분께 가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드시거나 떠가주세요."

설마하니 실수로 물을 많이 긷었겠는가. 분명히 순례 온 이들을 위해 물을 가득 채워둔 것이다. 그래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만 많이 길어버렸다'며 살며시 뒤로 물러난다. 세심한 마음씀씀이에 잔잔한 감동이 스며든다.

납경소 직원이 마침 나왔다가 내 손의 빈 물통을 보시더니 걱정 말고 물통에 물을 받아가라 권하신다. 대사의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나오니 걱정 없다며.

다시 배낭을 둘러맨다. 일기예보에는 오후에 비가 온다 했는데, 바람결에 물방울이 하나 둘 날리는 것을 보니 서둘러야 할 판이다. 사찰에서 2km쯤 벗어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살살 내리는 비라면 그냥 맞아가며 걷겠는데 빗발이 제법 거세다. 한숨을 푹 내쉬곤 판초우의를 뒤집어쓴다.

23번을 가는 길은 바닷가를 따라 걷는 길이 처음으로 나오는 순례길이다. 처음 순례를 왔을 때엔 조금 편하게 가보겠답시고 국도를 따라 걸었지만, 교통량이 많아 위험한 것을 알곤 그 뒤론 바닷가를 따라 걷는다. 날씨가 맑았다면 탁 트인 태평양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겠지만 빗발에 거센 파도소리만 귓가를 때린다.

해수욕장에 서있는 휴게소에서 잠시 쉬면서 지도를 더듬어 본다. 23번까지는 8km 남짓 남았다. 보통 걸음이라면 2시간 안에 도착할 거리지만 거센 빗속에선 더 지체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신발은 빗물에 푹 젖었고, 발도 목욕을 다녀온 것처럼 쪼글쪼글 주름이 잡혔다.

일본인 친구가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보더니 한 2시간 안에 비가 좀 그친다고 전해주었다. 그래도 어차피 버린 몸, 더 버려봤자 잃을 것도 없다며 다시 빗속으로 나아간다. 딱히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도 없으니 그냥 걷기로 했다.

빗속을 뚫고 걷기를 2시간. 저 멀리 23번 사찰의 탑이 보이고, 일기예보대로 빗발도 약해졌다. 대신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몸이 으슬으슬해 일단 몸을 좀 말리고 참배하기로 한다. 23번 사찰 앞의 전차역 휴게소에 마침 무료족탕이 있는 게 기억나 서둘러 역사로 들어선다. 동네에 온천이 나오기에 마련된 시설이다.

비에 젖은 몸을 화장실에서 대충 닦고, 배낭에서 마른 옷을 꺼내 갈아입었다. 족탕에 발을 담그니 떨리던 몸이 금세 진정된다.

참배를 나가기 전에 역사 옆의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 묵으려는 젠콘야도를 관리하는 곳이 이 식당이기 때문이다. 식당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난색을 표한다. 벌써 순례자가 다섯 사람이나 와 있다는 것이다.

"공간이 좁아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직접 가서 이야기 해보세요."

잠시 식당 밖에서 의견을 나눠본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밤에는 비가 그친다는 예보를 믿고 역사에서 노숙하기로 했다. 결정을 내리니 마음에 부담이 없다.

이곳의 젠콘야도는 오래된 버스를 개조해 만들어 유명하지만 공간이 조금 좁은 게 단점이다. 젖은 옷을 선풍기 바람에 말리며 쉬고 있으니 식당 사장이 들어왔다. 오셋타이라며 찬합에 저녁밥을 가져왔다. 그런데 순례자가 한 사람 더 따라 들어온다. 좁은 공간에 9명의 순례자. 오늘 길만큼이나 잠자리도 험난한 밤이 돼버렸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 22번에서 23번으로 가는 길은 크게 해변루트와 국도루트로 나뉜다. 국도루트가 조금 더 빠르지만 교통량이 많으니 주의하자.
- 순례기에 나온 젠콘야도는 저녁밥을 오셋타이 해주기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현재는 폐쇄되었다.
- 23번 사찰로 첫 번째 현인 토쿠시마가 끝난다. 토쿠시마현만 참배할 예정이라면 전차역 앞에서 전차로 고속버스로 도쿠시마시나 오사카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대나무가 싱그러운 오네 고갯길.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합리성’ 더한 새시대 불교윤리 필요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㉑ 집, 자동차, 고기, 마늘, 파의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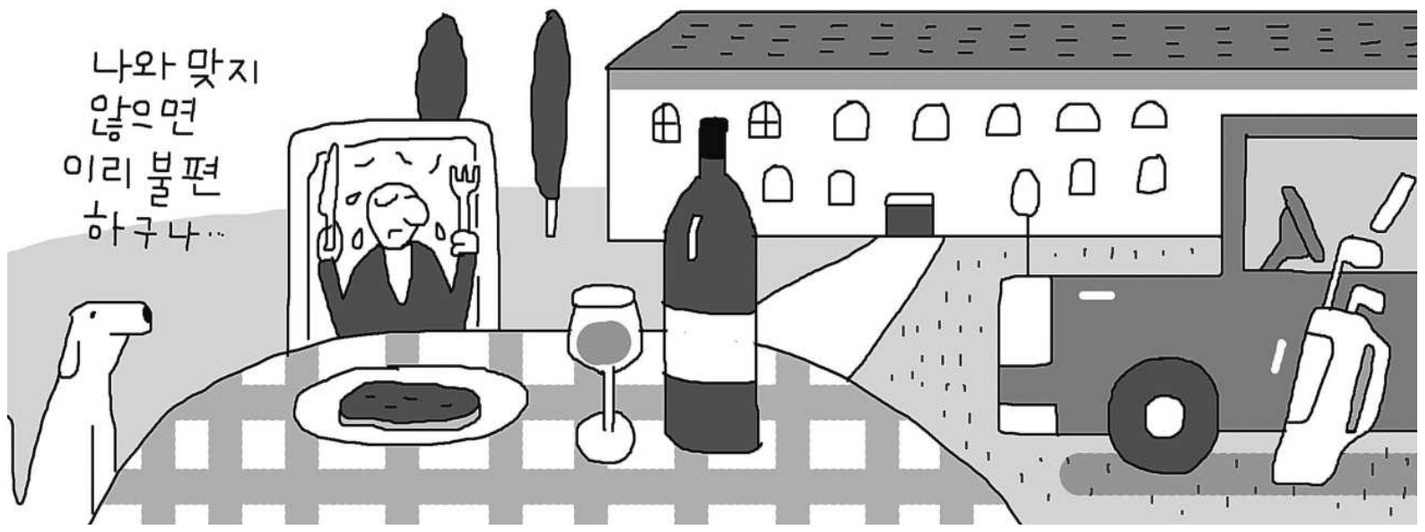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쥐를 좁은 공간에 집어 넣고, 넓은 공간에 집어 넣고 살게 한 경우와 비교하니 각종 이상행동을 보였다. 군대에서는 과거에 너무 좁은 공간에서 많은 군인이 잘 때 천정을 보면서 누워서 잘 수가 없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 옆으로 누워서 자면 더 많은 사람이 잘 수 있었다. 이러한 취침을 칼잠이라고 불렀다. 과연 인간에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적절할까?

인간에겐 옆으로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위로의 공간도 중요하다. 천정이 높으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 업무에 적합하고 천정이 낮으면 구체적인 분석이나 계산 업무에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요즘 아파트는 천정이 낮다보니 가끔 천정이 높은 분양 정보가 광고에 등장하기도 한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두 개의 아파트를 놓고 고민했는데 천정이 더 높은 아파트를 선택했다고 한다. 나도 같은 조건이라면 천정이 높은 집에서 살고 싶다. 꼼꼼한 업무를 해야 한다면 다락방의 낮은 지붕 아래서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결국 이런 환경은 아파트보다는 단독 주택에서만 가능하다.

집은 그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 이상의 기능을 한다. 집은 생각하고 느끼는 공간이기에 지나치게 좁으면 곤란하고 지나치게 넓으면 불교가 말하는 중도에 벗어난다. 옆으로는 얼마나 넓어야 하고 위로는 얼마나 높아야할까? 과연 어느 정도가 불교적일까?

한 때 큰 주택을 좋아하던 대한민국도 이제는 작은 주택으로 급격하게 선호가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에 건축되었던 대형 아파트의 가격은 중형 아파트의 가격에 비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폭락했다. 작은 주택 선호 현상은 전세계적이다. 미국에서도 주로 젊은이를 중심으로 소형 주택 바람이 불고 있다.

불교는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집이 아닌 중도적 규모의 집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주택 소유에 있어서 중도적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모든 소유에 적용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택은 분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불교는 부자는 더 큰 집에 살아도 된다고 허용한다. 모두가 소형 주택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주택은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수 십개의 방은 주택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 하고 비판하지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시대에 파피루스에 적힌 글을 보면 그때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한탄이 있었다고 한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고 공부도 집에서 나와 근처 커피숍에서 한다. 집은 정말 잠만 자고 물건을 보관하는 역할만 한다. 불교는 어떤 경우에도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의 생활패턴에는 구태여 큰 집이 필요 없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집이라는 공간은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여서 넓은 집이 필요하다.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겨진 주부에게도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은 거실이 작아도 답답하지 않으니 집이 작아도 될 것 같다. 마당이 아파트의 거실 일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파트인가 단독주택인가에 따라, 생활패턴이 어떤가에 따라 주택의 규모도 달라져야 불교적이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 증가했다. 집은 월세에 살면서 좋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많다. 남자가 차가 없으면 데이트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좋은 외제차를 압구정동 거리에 정차 해 놓고 멋진 여자에게 타라고 유혹하는 ‘야타족’도 있다. 여자가 집착하는 물건이 있듯이 남자가 집착하는 물건이 있다. 명품 자동차는 남자의 로망이다. 여성이 옷과 백에 꽂이듯이 남자는 자동차에 꽂힌다. 일본에서는 온 재산을 비싼 스포츠카인 페라리 구입에 쓰고 집도 없이 차에서 자고 공원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식사는 편의점에서 해결하며 자동차 유지비는 알바로 충당하는 페라리 거지가 화제가 된 적도 있다. 한국에서도 집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난해진 사람의 경제 상태를 지칭하는 ‘카푸어’라는 단어가 나왔다.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불교적인 소유의 관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아무리 중도 · 절제의 단순 소박한 불교적 삶을 살더라도 안전도가 낮은 자동차의 구입은 망설이게 된다. 안전도가 높은 차는 비싸고 낮은 차는 싸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트럭 같은 자동차인데 도로의 황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대형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부상이 없을 정도로 단단한 차로 알려져 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부인이 남편의 외도를 알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쫓아가자 타이거 우즈가 피하려고 자신의 차인 에스컬레이드를 몰고 도망가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았는데 멀쩡한 이유가 바로 이 차를 운전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가격은 1억2천만원 정도 한다. 이런 차들은 대개 크고 연료를 많이 소비하며 비싸다. 서양에서는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환경운동가들이 SUV 앞에서 SUV를 타지 말자는 시위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V는 안전도가 높다는 이유, 운전대가 높아서 넓은 시야가 확보된다는 이유 등으로 요즘 선풍적 인기다. SUV의 매출이 급증하자 전통적으로 고급 승용차만 생산하던 자동차회사도 SUV 생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SUV는 사륜구동이 보편적이지만 승용차는 사륜구동이 아주 예외적이고 오직 고급브랜드나 고급모델에만 있다.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사륜구동 승용차는 체어맨W와 제네시스인데 과거에는 체어맨W뿐이었다. 체어맨W나 제네시스는 모두 비싼 승용차이다. 게다가 사륜구동은 눈길이나 빗길에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지만 만들기 어렵고 무게가 더 나가며 따라서 연비가 안 좋다. 자동차의 목적과 기능을 ‘안전’으로 본다면 사륜구동 승용차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사륜구동의 선택을 비불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소유는 중도 · 분수 맞게
목적 기능 고려한 합리적 판단
계율도 합리성 근간해 탄생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철수한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스바루의 레거시는 체어맨W나 제네시스보다 훨씬 싼 3천만원 후반대 가격에 판매되었다. 이 정도의 가격대면 결코 비싼차가 아닌데 이차는 놀랍게도 사륜구동이다. 스바루는 세계 최초의 4륜구동 세단이다. 스바루는 미국에서 최근 연평균 두자리 숫자의 판매증가량을 10년 이상 기록한 유일한 브랜드이며 2008년발 경제위기에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고전할 때도 두자리 숫자의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 각종 충돌테스트에서 최고점수를 얻으며 내구성도 최고 수준이다. 세계 1위의 자동차기업인 도요타가 투자할 정도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다.

누구나 스바루를 보면 외모에 실망한다. 스바루를 설명할 때는 항상 실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촌스러운 디자인과 평범한 내부인테리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해 결국 철수했다. 미국에서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스바루를 구입하는 교포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와 이미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좌우되는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대형 럭셔리 세단 시장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다.

모든 소유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분수에 맞고 적정해야 한다. 자동차 구입도 첫째 분수에 맞고 둘째 적정해야 한다. 사륜구동 수준의 안전도를 원한다면 체어맨W나 제네시스를 구입하는 것이 적정한데 문제는 비싸기 때문에 분수에 맞지 않게 된다. 스바루 같은 수입차를 사면 돈이 절약되기는 하는데 수입차는 사치스럽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국산차 SUV는 대부분 모노코크 방식인데 기아의 모하비와 쌍용의 렉스턴 G4만 프레임 방식이다. 프레임에 기반한 차량은 용접하지 않고 차량의 뼈대를 하나의 강철로 만들었기에 훨씬 견고하고 차체가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모하비나 렉스턴 G4는 차량 가격이 4천만원을 넘는데도 매니아들이 많아 중고가격도 만만치 않다. 모하비와 렉스턴 G4는 일부 수입차보다 비싸지만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사람에겐 목적과 기능에 맞기 때문에 적정하다. 모하비와 렉스턴을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보다 싼 스바루는 수입차라고 해도 목적과 기능에 맞추어 적정하다. 안전이라는 목적과 기능을 원해서 사륜구동차를 원한다면 싼 차가 스바루, 모하비, 렉스턴 G4 등이다.

안전이라는 목적과 기능을 생각하면 고급승용차를 구입해야 한다.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면 많은 사람에게 분수에 어긋난다. 안전과 가격이 상충될 때 해결책이 있을까? 고급중고차를 사면 차량의 안전도는 거의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은 많이 떨어진다. 안전과 싼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고차 구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남이 쓰던 차라는 찜찜함만 극복하면 분수에 맞고 적정한 구매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중고시장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기값은 식품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사람이 출가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고기를 먹었으며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춘다라는 재가자가 돼지 고기 음식을 공양했는데 탈이 나셨기 때문이다. 경전을 보면 사슴이 죽어 있어서 제자들이 끌고 와 부처님께 먹어도 되느냐고 묻는다. 부처님이 죽였느냐고 묻자 죽인 것이 아니고 죽어 있었다고 답한다. 부처님은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신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사촌 제바달다는 사사건건 부처님에게 대항한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에게 고기를 먹지 말자고 요구하지만 부처님이 이를 거절하자 많은 추종자를 데리고 교단을 나갔다. 부처님은 중도를 주장하셨기에 무조건 고기를 먹으면 안된다는 획일적인 기준은 수용하지 않으셨다. 고기를 먹지 않게 된 것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다. 나는 개인적으로 스님이 고기를 먹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고기는 그렇다치더라도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 등 이른바 오신채(五辛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오늘날에도 지켜야할까? 어떤 신도가 마늘을 보시할 뜻을 비치고 밭치기에게 비구에게 일정량의 마늘을 주라고 지시했는데 비구들이 신도가 지시한 마늘 분량을 초과해서 가져가자 비난이 일어 마늘을 금한 것이며 마늘을 넣어 만든 샐러드나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다. 신도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던 걸식의 전통이 있는 승가에서 오신채가 들어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별하기 쉽지 않았을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오신채를 금한 이유는 첫째 당시에 양치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오신채로 인한 독특한 냄새가 집단생활을 하는 출가자들의 화합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둘째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는 등 자극적인 요소가 있기에 금했다. 셋째 음식을 더 맛있게 먹으려는 탐심이 작동하기에 금했다. 오신채는 현대 영양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다. 게다가 양치기술이 발달했기에 그 이유 때문이라면 먹지 말아야할지도 의문이다. 오신채 이외에도 성욕을 강화하는 음식과 약이 넘치는데 이를 놔두고 기록되어 있는 오신채만 금지해야 하는가도 의문이다. 오신채는 조미료에 비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기능도 뒤떨어지는데 조미료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먹어도 되고 기록되어 있는 오신채는 먹으면 안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부처님은 생전에 제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서 계율을 수정했다. 지금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신채 금지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실까?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74개의 명당자리가 한 곳에 모여있는
화제의 신간
신비의 명혈명당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천하(天下)를 지배한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세상(世上)을 변화시킨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입신양명(立身揚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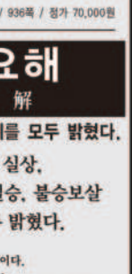
천하대지(天下大地)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이 한 장소에 74개씩 네 곳에 296개가 모여있는 명혈명당(名穴明堂)의 실체(實體)를 밝히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468쪽 / 정가 30,000원

금강삼매경요해, 드디어 나왔다!!

천년千年의 보물,
불지혜佛智慧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그토록 찾던 불佛지혜 깨달음의 보물!
성불成佛의 심오한 비밀 지혜통로와
그 지혜 과정을 상세히 모두 밝혔다.
깨달음 보살세계 무위지혜의 차별차원
대승, 일승, 일불승, 불승, 불佛의
최상 깨달음과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최고지혜경전, 금강삼매경 불지혜로 꿰뚫어 자상히 두루 밝혀
5종금강삼매경(고려장경·대정장경·원효론·원정주해·주진통종기)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신국변형판 / 936쪽 / 정가 70,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정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분제무수 심오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新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817쪽 / 50,000원

사주풀이의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棋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여래 삼매 속 일체 존재가 평등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㊴ 〈원각경(圓覺經)〉 2

중생이 일체 모든 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불교를 만나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불자들은 법문을 사찰에서 직접 듣기도 하지만 인터넷과 TV, 라디오를 통해 많이 접한다. 그러나 법문을 듣고 스스로 수행을 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일방적인 깨침에 대한 정보만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세계다. 고통을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보고, 듣고, 이해하여 반드시 실천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娑婆世界 見聞解行處).

수행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단 한 번의 수행이나 공덕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 학습, 끝없는 정진이 행복을 가져온다.

〈원각경〉을 중생의 행복을 위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인 원각이 원융불이(圓融不二)함을 밝히고, 동시에 그 곳으로 안내하는 수행의 길을 단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처음 불교에 입문한 사람이 부처님의 지위(佛地)까지 이르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과정을 인지법행(因地法行)이라고 한다. 인지법행을 통해 수행자의 안목을 알아볼 수 있고, 수행법도 만나게 된다. 능엄경 편에서도 말한 삼매의 3가지, 사마타, 위빠사나, 선나를 적절히 섞어서 수행방법을 늘리면 '25가지 수행법'이 된다. 물론 상근기 수행자는 믿고 이해하여 즉시에 깨닫지만, 중근기는 이해한 뒤 실천행을 통해, 하근기는 방편에 의해 원각묘심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춘 눈높이 수행법이 담겨져 있다. 청정한 원각, 일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 우리도 〈원각경〉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때 바가바께서 신통한 대광명장에 드시어 삼매를 바로 수용하시니 모든 여래들이 광명으로 장엄하여 머무시는 자리이며, 이곳은 모든 중생들이 청정한 깨침을 하는 곳이며, 몸과 마음이 적멸하여 평등한 근본자리로서 시방에 원만하여 불이(不二)를 수순하시며, 불이의 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나투었다. 대보살마하살 십만명과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이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당보살, 미륵보살, 청정혜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등이 모든 권속과 더불어 상수가 되어 삼매에 들어 여래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참여하였다."

바가바는 부처님의 이칭(異稱)이다. 법신이나 보신의 의미가 깊은 부처님 명호다. 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니 모든 여래의 광명이 함께하고 중생들도 모두 깨친다는 그 곳은 정토, 즉 불국토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각양각색으로 차별되어 있지만 적멸인 이곳에서는 중생이나 부처님이 모두 평등하다. 부처님과 중생이 평등하니 이 둘이 차별 없음은 당연한 일이라 불이수순(不二隨順)이라 한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평등', '불이', '청정', '자유자재'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마도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도 이 말을 듣기만 해도 평온한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그대들은 모두가 나와 더불어 평등하니 청정한 부처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문수사리보살(Manjusri, 묘길상)이 부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① 부처님이 최초에 일으켰던 마음으로 수행한 즉 인지법행에 대하여,

② 보살들이 대승법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여의는 방법에 대하여,

③ 말세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을 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돌직구로 물었다.

"대견하고 기특하구나,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미래의 말세 중생을 위하여 이렇게 묻는구나. 자세히 듣거라. 내 이제 그대들을 위해 말하리라."

〈서울 반야사 주지〉

내 안에 무한한 지혜가 있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㊳ 어머니와 금강경

이제 나는 금강경 수행으로 어리석고 캄캄했던 마음을 극복하여 지혜를 실현한 나의 체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4년 1남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일에 무관심한 분이셨기에 중학교 때부터는 어머니 혼자서 가정을 꾸려온 셈이었는데, 의지할 곳 없는 어머니에게 유일한 아들인 나는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허덕허덕 가정을 꾸려 나가는 어머니가 늘 딱하게 생각되어 고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내가 이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데 취직해서 어머니가 먹고사는 걱정은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네가 대학만 졸업하면 우리 집안은 아무 걱정 없다"고 하시며 성심껏 학비를 조달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 후 정작 취직할 때가 되었지만 도인을 만나 출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란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데 딱 그 처지가 된 것입니다.

"네가 수도하러 가면, 네 동생과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사니?"

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금강경을 가르치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으니 100일만 공부하고는 곧 집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얼버무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울며 매달리던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며 상당 기간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부처님 공부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정을 끊어 놓고 신의를 배반하게 하는 공부인가?'

슬픈 감정이 북받치는 날에는 부처님 공부고 뭐고 다 던지고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에는 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슬픔으로, 슬픔은 공부의 퇴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 애틋한 정이 마음을 닦는 데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절대적 존재임이 틀림없는데, 밝은 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방해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종종 선지식께서 "정말 너희 어머니가 불쌍한 것이냐? 네 마음에 불쌍하게 보는 소질이 있어서 너희 어머니가 불쌍한 존재로 보이는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가 불쌍한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소질이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불쌍하게 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식께서는 자주 깨우쳐 주십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바로 네 생각일 뿐이다. 그 생각이 착각이요, 잘못된 것인 줄 알아라.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이라 하였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란 바로 네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는 그 생각이 착각이요, 잘못인 줄 알라는 뜻이다.

즉견여래(則見如來).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생각을 정성껏 바치다보면 마침내 너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능력자로 바뀌게 되며, 무지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 결국 밝아진다는 뜻이다. 만일 불쌍한 생각이 잘 안 바쳐진다면 그 마음에 대고 지금 이야기한 금강경 사구게 즉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여래'를 자꾸 되풀이 염송하라. 또는 그 불쌍한 어머니의 얼굴에 대고 정성껏 미륵존여래불을 염해라."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구지 선사의 일지두선(一指頭禪)

무엇이 불법의 대의 입니까? 구지 선사는 누가 무엇을 묻든 지간에 일생 동안 검지 손가락 하나만 세워 보였다. 구지 선사 곁에서 시봉 하던 시자가 있었는데, 어느날 선사가 출타중 마침 어떤 스님이 찾아와 "요즘 스님의 법문은 어떠신가?"하고 물으니 아무 말없이 검지 손가락을 들어 보여 주었다.

매일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니 스님의 흉내를 낸 것이다. 선사께서 돌아오셔서 "누구 찾아온 자가 없었더냐" 말하니 시자가 말했다. 하루는 선사께서 주머니 칼을 몰래 숨기시고, 시자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 인고" 말하니

시자가 검지 손가락을 세워 보이자, 선사께서 얼른 그 검지 손가락을 잡고 칼로 잘라 버리니 피를 흘리며 달아나자, 구지 선사께서 "아무게야"하고 시자를 부르셨다. 시자가 울면서 고개를 돌리자, 재빨리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 인고" 하시니, 시자가 얼른 검지 손가락을 세우려다가 손가락이 없는 것을 보고 홀연히 깨쳐 버렸다. 손가락의 뿌리(空性)를 본 것이다.

관색관공(觀色觀空) 즉색공(卽色空)이라, 즉 '이 뭣고'로 색을 관하니 색에서 공을 본 것이다. 중생들은 색(色) 성(聲)을 필연적으로 쫓아 따라 가는 꿈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이 뭣고' 수행은 내안의 공성(空性)으로 회귀(回歸)시키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인 것이다.

구지 화상이 태산에 토굴 짓고 정진 하고 있을 때 하루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웬 비구니 스님이 혼자 육환장을 짚고 삿갓 쓰고 찾아와 예를 갖추지도

> **"중생들은 색(色) 성(聲)을 필연적으로 쫓아 따라 가는 꿈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이 뭣고' 수행은 내안의 공성(空性)으로 회귀(回歸)시키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인 것이다"**

않고 거만하게 선상(禪床)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러자 구지 화상이 "비구니는 비구니의 예를 갖추어야지" 말하자 "스님의 본래 면목을 바로 일러 주시면 삿갓을 벗고 오체투지하여 예를 올리겠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죽자 살자 수행한다고 했지만 비구니에게 꾸짖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분한 생각이 들어, 내일 토굴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 백발 노인이 나타나 현몽하며 "내일 큰 도인 스님이 와서 너에게 법을 주실 것이니 기다리고 있거라"고 명했다.

저녁때가 되어서 노스님이 토굴에 찾아오니, 구지 화상이 실제 비구니에게 당한 일을 설명드리며 가르침을 청하자, 묵묵히 계시다가 찰나에 검지 손가락 하나를 세워드는 순간 구지 화상은 확철대오 했다.

이 사람이 바로 천룡(天龍) 스님이다. 그는 마조 스님의 제자 되는 대매법상(大梅法常) 스님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 공안(公案)에 대한 성철 스님의 송(頌)은 이렇다. "삼천대천세계에 큰 불이 일어나 부처도 조사도 다 타고 없어 천지(天地)가 텅 비었는데, 다시 거기에 청산은 옛날과 같이 흰 구름속에 솟아 있네. 혀끝을 삼천리 밖에서 놀리니 유리 항아리 속 별천지의 해와 달이 스스로 분명하다"고 하였다. 유리 항아리 속 별천지에 해와 달이 분명하다는 이 뜻을 바로 알면, 구지 화상이 확연히 깨친 소식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야부 스님 송(訟)에 "천척사륜직하수(天尺絲綸直下垂) 일파재동만파수(一波纔動萬波隨) 야정한수어불식(夜靜寒水魚不食) 만선공재월명귀(滿船空載月明歸)"라는 것이 있다. 이를 풀이하면 "천길이나 되는 낚시줄을 깊은 바다에 드리우니 한 물결따라 만가지 파도가 뒤따르네. 밤은 깊고 물이 차니 고기 하나 물지 않으니 빈 배에 허공(虛空)만 가득싣고 달빛속에 돌아오네"라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굴셀건 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



청소년과 호흡한 불교 30년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 30주년 행사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경륜)은 개관30주년을 맞아 10월 27일 '청소년 희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을 비롯해 문영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덕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 등 시설 관계자와 청소년 및 지역주민 4,000여 명이 참석해 30년간 운영에 최선을 다한 소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겼다.

청소년 난타동아리 '두드림'의 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함께한 30년, 미래를 이끌 30년' 기념식 및 우수표창 △마술, VR, 직업체험 등 부스 △청소년 팀대항 '흑백전' 등으로 구성됐다.

관장 경륜 스님은 "올해 정년을 맞아 개관 30주년을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청소년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참여자 요구를 반영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기부자 뜻 모두 환자에게"

동국대병원, 기부자 유가족 초청행사

동국대일산병원(병원장 조성민)은 10월 30일 기부자 유가족을 초청해 병원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이진호 의료원장, 조성민 병원장 등 유가족 5명이 참석했다.

동국대일산병원은 2005년 병원 개원 준비 시 故한기성 기부자로부터 기증받은 기금으로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을 최신 시설로 단장했다. 유가족들은 병원에서 준비한 환영식서 한기성 기념 영상 및 병원 발전상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이들은 71병동에 마련된 한기성 기념 동판 제막식에 참석하고 해당 병동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은 "뜻깊은 기념행사에 초대해 준 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버지 이름의 기념 병동이 많은 환자에게 좋은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형기 마친 재소자들 평범한 삶 보며 보람"

Interview

교정의날 국민포장 받은 승천 스님



조동제 전북지사장

1984년부터 35년째 교정활동
불교교리대회 · 발원문 쓰기 등
재소자 교화 위해 행사 열어

"재소자들이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10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3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은 35년간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교화활동에 힘 쏟으며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이 같이 밝혔다.

승천 스님이 교정교화활동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때는 1984년이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가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재소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뜻을 두게 됐다.

"재소자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사회의 다른 봉사활동 못지않은 보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들이 다시 건강하게 사회에 돌아가면 우리 사회도 한층 밝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전주교도소 독지방문위원으로 교정교화활동에 뛰어든 후 1997년 종교위원으로 위촉된 승천 스님은 어느덧 35년째에 이르고 있다.

"수용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집에 남은 가족들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이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회의 목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인들이 교정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승천 스님이 그동안 전주교도소에서 개최한 불교교리발표대회, 발원문 대회, 부모님께 편지쓰기 같은 행사에 참여한 연인원만 4만 명이 넘는다. 전주교도소의 불교행사를 주도하고 후원한 일도 1천회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맡으면서는 불우수용자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수용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며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재소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신경 쓰는 승천 스님은 혹서기에는 삼계탕과 얼음생수를 전달하고, 명절이면 합동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송편과 제수용 과일을 전달하기도 했다. 범죄 예방활동에도 나서 2000년부터는 전주지검 정읍지청 범죄예방 대책위원으로, 정읍경찰서 자문위원과 경승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스님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수행방편 삼아 활동을 하다 보니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한편 승천 스님은 일광사 신도들과 함께 매년 경로잔치를 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년에 2차례씩 자비의 쌀을 전달해오고 있다. 스님은 불우청소년 선도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을 통해 그늘진 사람의 아픔을 부처님 자비로 어루만지는 사회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가을 국화로 지역농민과 win-win"

부산 장안사, 개산 맞아 기장 화훼사업 농민 격려



사찰이 지역 농민을 돕고 서로 상생하는 사례를 보여준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됐다.

부산 기장군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정오)는 개산 1345주년을 맞아 '제2회 가을 국화향기를 품다'를 10월 27일 장안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개회식은 △개산조 원효대사 헌다공양 및 설법전 현판식 △경과보고 △축사 △분재품평 시상식 △격려사 △축시낭독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를 시작으로 11월 4일까지 총 9일간 열린 국화축제에는 기장군농협기술센터와 기장군 국화분재동호회 그리고 도시화훼학교가 함께 수준 높은 국화분재 작품 450점을 선보여 화려함을 더했다. 아울러 국화분화 2700여점도 전시해 장안사를 찾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기장군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기장군의회가 후원해 힘든 농민을 격려하고 직접 국화분재도 판매해 활기를 띄었다.

아울러 장안사는 개회식에서 국화분재 품평 시상식을 열고 금상 30만원(1명), 은상 20만원(2명), 동상 10만원(3명)을 선정해 격려했으며, 천년고찰 장안사를 국화전시장으로 회향해 고즈넉함이 어울리는 품격 높은 행사로 지역 농민을 도왔다.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은 "처음 개산대재를 개최했을 때와는 달리 지역 농민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천년고찰이 기장에 있어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다. 1345년 역사를 가진 소중한 문화재인 장안사에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역 화훼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장안사는 설법전 현판식을 열고 준공을 기념했다. 장안사 설법전은 지하 1층 공양간, 2층은 설법공간으로 활용된다. 현재 장안사는 '장안사 불사 10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해동전과 종각, 천왕문 등 불사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심사, 삼성각 중창 낙성식

前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등 300명 동참



낙동강 무심사(주지 무심)는 10월 28일 삼성각 중창 낙성식을 비롯해 칠성여래 · 용왕 · 산신 점안법회 및 제5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낙성식에는 前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무심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자님들이 마음을 내주셔서 불사를 원만 회향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당산제 효사랑 잔치

지장선원, 10월 28일 헌공 · 헌향 등



팔공산 지장선원(선원장 지공)은 10월 28일 '제4회 당산제 및 효사랑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연등사 회주 덕륜 스님, 만민선원장 만민 스님, 지장선원 육법공양봉사단, 지역단체장, 홍사단 애기애타 웃음봉사단, 풍물단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헌공, 헌향의식에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 거조사 오백나한대재

주지 태관 스님 "정혜결사 정신 잇자"



팔공산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7일 오백나한상을 모신 영산전(국보 제14호) 앞마당서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주지 태관 스님은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보조지눌 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 자비와 평화의 불국정토를 이루는 나한대재를 봉행한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탄)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탄)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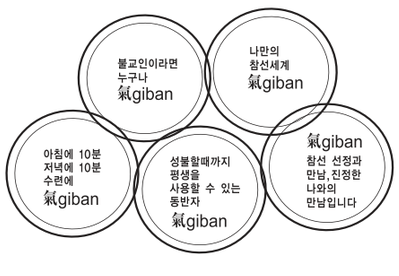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일제강점기 일본불교 생활상 조명

군산 동국사–한일불교문화학회 공동 학술대회

일제강점기 전북 군산과 익산, 경주의 일본불교와 당시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와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27일 동국사 백주년 기념관에서 '일제강점기 군산 · 익산 · 경주의 일본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양은용 원광대 교수는 '모하시 조쿠죠와 익산주재 36년'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일연종 승려로 한국에 파견돼 영국사를 창건하고 1945년 패전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간 모하시 조쿠죠의 회고록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역할과 익산의 생활상 등을 조명했다.

양 교수는 "모하시 조쿠죠의 수고본 회고록과 그의 아들이 이 회고록을 바탕으로 저술한 활자본 '주선36개년'의 번역이 마무리되면 일제강점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생활상 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키 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는 '경주 법장사의 성립과정에 대한 역사인류학적 고찰'을 주제로 대한제국의 관청건물이던 일승각이 법장사 대웅전으로 남게 된 배경과 당시 대한제국의 목조 문화재 등 문화재 전반의 보전과 파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호남의 일본인-인명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호남에서 활동했던 일본인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선광사, 개산 맞아 孝나눔

10월 26일, 17주년 경로잔치 및 장학금 전달

선광사가 개산을 기념하며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를 매년 베풀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부산 사상구 선광사(주지 성문)는 개원 17주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효사랑 경로큰잔치 및 장학금 전달식'을 경내 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사진〉



1부 축하법회에서는 원일 스님의 법문과 주지 성문 스님의 인사말, 내빈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대덕여고 학생 15명에게 장학금 각 50만원, 총 75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사찰봉사에 앞장선 모범 신도를 표창하고 격려했으며, 찾아온 지역민을 위한 선물을 전달해 박수를 받았다.

주지 성문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매년 잔치를 열고 있다"며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륭사, 원효성사 육법공양 다례

원효성사와 요석공주, 설총의 행적지 경산 반륭사(주지 혜해)는 10월 27일 제11회 원효 · 설총 · 요석공주 육법공양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반륭사 주지 혜해 스님은 "원효성사, 설총선생, 요석공주의 얼과 행적이 있는 반륭사는 10여 년간의 불사로 크게 일신해 도지정문화재(제675호) 보유 사찰로 등록됐다"며 "이번 행사는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성현들의 고귀한 넋을 추앙함은 물론 더불어 고승대덕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왕재산행, 어르신잔치, 육법공양 다례재가 진행됐으며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성황리에 봉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역대 조사에 禪茶 향 올려"

해운정사,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 성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심인법의 법맥을 잇고 있는 제79대 적손 진제 스님이 조사전 앞에서 헌화하고 합장했다. 이내 조사스님들의 명호가 차례로 불렸고 해운정사 다도팀이 나와 헌다했다. 차 향은 불조(佛祖)의 심인법을 계승한 108명의 조사스님들에게 널리 퍼져갔으며 모든 대중들은 일제히 손을 모으며 감사의 대재를 올렸다.

선종본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11월 1일 해운정사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佛祖心印傳燈茶禮大齋)'를 봉행했다. 행사는 명종과 개회사로 시작해 헌화 및 헌다가 진행됐다. 이어 발원문 및 헌사, 내빈 축사가 이어졌으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문으로 마무리됐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는 2,600년 전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의 심인법을 적통 계승한 108명의 역대 조사스님에게 헌다 공양하고 중생의 깨달음과 교단청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울러 세계에 선법이 선양되길 발원하는 자리로 매년 음력 9월 24일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다례재에 맞춰 대중이 해운정사를 찾아 10월 30일부터 철야용맹정진을 진행했으며 다례재에서 정진 회향해 더욱 뜻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에는 처음으로 지역민을 위한 특별 잔치 한마당이 개최돼 볼거리도 제공했다. 해운정사 다도원을 필두로 다례재를 진행한 후 수도암 향적 다례원, 정빈다도원, 정경 다례원, 부경대 중국차 평생교육원 등 전문 차인들이 펼치는 화려한 찻자리가 지역민을 반겼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을 대표하는 차 문화와

심인법 적통 계승한 108조사
그윽한 차향으로 공양 올려
철야용맹정진으로 의미 더해
"한국 선법이 만방에 꽃피길"

서양의 홍차 생활을 보여주는 특별 찻자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김성녀 국악인의 전통 무대가 열렸다. 아울러 점심공양 및 푸짐한 선물도 지역민에게 제공돼 베푸는 잔치 한마당으로 회향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태고 선사의 가풍이 면면히 내려와, 경허 성우 선사에 이르러 아손이 번성하니,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선풍을 널리 선양하여, 한국의 선법이 만방에 꽃을 피우고 있다"고 법문했다.



해운정사는 11월 1일 해운정사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진제 스님이 조사전에 헌화하는 모습.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존재만으로 사무치게 고맙고 감사한 저희들의 스승님! 바른 법을 만나 귀의하오니, 그 공덕으로 업보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조사관의 밝은 빛으로 반야의 품에 들게 하소서"라고 헌사했다.

의현 스님, 서병수 부산시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홍순현 해운대구청장 등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참석한 불자들은 무엇보다 "심인법의 법맥이 지금까지 내려왔고 적손이 진제 스님이셔서 복되다"고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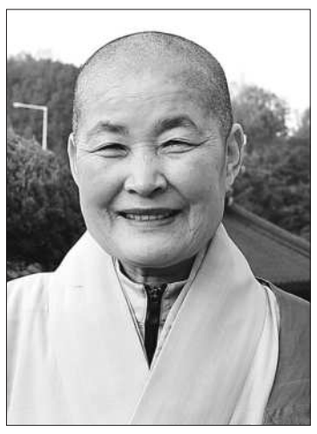
오영희(55) 씨는 "부처님의 법맥이 이어져 면면히 내려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적손이신 진제 스님께서 차를 올리시는 모습은 그 자체로 환희로웠다"고 말했다.

김지영(45) 씨는 "화려한 다례재를 보는 것도 행복했고 조사스님들께 헌다하는 뜻 깊은 다례재를 보니 마음을 다해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다례재에는 종정 진제 스님, 前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서병수 前부산시장, 박대성 해운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여했다.

"화합으로 광주불교 혁신을"

제4대 광주불교연합회장 신광사 동현 스님 선출
부회장 명신 · 보응 · 도계 스님



"승가의 화합을 통해 광주불교의 혁신을 만들어 나아가겠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0월 26일 광주불교회관 법당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광주불교연합회장에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동현 스님은 회장 선출 직후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광주지역 회원 스님들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단독 출마해 당선된 동현 스님은 "승가의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광주지역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 다양한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대외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특히 광역시 최초 비구니의 연합회장 당선에 대해 "광주불교가 종단과 비구, 비구니를 포함해 사부대중이 새롭게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장에 이어 수석부회장은 명신 스님(연화사), 보응 스님(세심정사), 도계 스님(소원정사)이, 행정감사는 인성 스님, 재정감사 혜법 스님(미륵사)이 선출됐다. 선출된 임원임기는 2년이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정기총회에는 증심사 합창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불교의례, 시상식, 안건심의,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광주불교연합회와 빛고을나눔나무에 큰 공헌을 한 명신 스님, 혜월 스님(한마음선원광주지원), 혜법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에 역할을 한 이동배 교법사(정광고교), 홍신도 회장(광주운전불자회), 부설단체인 사진문화반 김광수 · 광주불교산우회 류윤숙 등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2018년도 결산과 2019년 예산안 인준도 진행됐다.

한편 제4대 회장에 선출된 동현 스님은 1973년 신광사 석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니계를, 1980년 범어사 지관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동학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성암, 삼선암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광주 금선사 주지, 광주조계종승보회장, 광주불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신광사 주지, 조계종 광주비구니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동현 스님은 광주전남어린이청소년연합회 이사, 광주불교연합회 연희기획단장,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의 이사, 광주지방경찰청 경승위원 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불교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 불교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일을 하면 끝을 맺고 결코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별역잡아함경〉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최상기도법)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손도사(6신통大도사)
책이름검색,1권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신을 움직이게 한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스님 모십니다

1. 기도 예불스님 모심
2. 처사님 봉고 운전면허 소지자
3. 절에서 공부할 행자 심부름

010-3840-4355

산문철학 1개월 완성

▶ 책임지도
▶ 고승비급 전수
동국대 대학원 졸업(석사)
정 광 합장
010-3936-2295

곽민 신기원

【예약상담만 가능】
농협 계좌
302-1325-1333-31
곽영리
문의 010-8620-2334

출가하실 분

▶ 45~60세 ◀
금니사경, 달마도,
문인화 전수
010-9208-3835
스님 010-4504-6565

불교용품양도

일신상 관계로 스님께서
사용하신 탱화, 소불, 석탑,
석불 등 사찰 운영에
필요한 불교용품 일체를
양도 하고자 합니다.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010-3508-2223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사주팔자/관상/손금 수강생 모집(비범)

①스님 우대, 무속, 일반인, 철학관 개업하실 분
② 말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속성지도)
③수강 3개월 지나면 개업 가능(뒷바라지 계속 지원함)
④개인 지도 가능(상담 후 시간조절)

부산 미래 예측 연구원 원장 도 담 합장
H·P 010-5823-2710 TEL 051-804-8688

불교 공부 모임 (무료 공부방)

(1) 회원 간의 자율적 공부, 수행 (2) 지도법사 수행안내, 집중수행 지도
- 대상 : 누구나 가능 - 회비 : 자율보시(점심공양은 각자 지출)
- 일정 : 주말(토)에 진행예정. 차후 개별적 일정 안내함
- 모임 : 묘법연화경 강독모임 / 참선모임 / 명상모임

무료 인생상담, 무거운 짐 내려놓는 법 강의
문의처 : 묘진사(대구 내당동 소재)
053)652-2714 / 010-9616-2477(우송스님)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한글 독경CD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4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과거 생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이다.
이는 전생의 복이 크기 때문이다.

〈 아난분별경〉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인천 ◎ 위치 : 경북
◎ 대지 : 750평 ◎ 대지 : 101평 ◎ 총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약 34평 ◎ 법당 : 2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4평 ◎ 요사 : 20평
◎ 양도액 : 20억 ◎ 양도액 : 12억 ◎ 가액 : 2억 8천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절대 비밀보장...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 구서동(지하철 3분)
- 새로 개금불사 및 법당 모두 수리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100평(산신각 포함)
- 시설비, 권리금 한푼도 없음
- 전세, 월세 조건 맞추어 드림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254평, 하천부지330평 총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광 진 불 사

◎ 위치 : 강원도 천년도량 ◎ 위치 : 서울
◎ 부지 : 7000평 ◎ 대지 : 100평 사용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70평. 외 ◎ 요사 : 60평. 역세권
◎ 매가 : 20억 3천 ◎ 매가 : 11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대지 : 53평(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 연건평 : 123.38평
- 지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1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2층 : 30.8평(요사채)
- 3층 : 30.8평(밥당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여수 시내에 위치하여 포교원 운영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 양도가:4억 - 공시지가:3억 8천

010-3841-1748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동작구 사당 4동 4층 건물 중 2층. 27평
- 법당1, 방1, 실내 화장실1, 주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없음(호불탱화1, 신중탱화1, 산신탱화1)
- 가스보일러 설치
-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 5분 거리

010-9728-0788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시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660평. 남향
- 요사체 포함 11동. 무건물
-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1000평.약수물.각종 유실수 다량
- 4륜구동 차량 진입가능. 주차장
- 가액 3억 5천

010-9203-1165

서울, 수도권 사찰

- 대지: 123평, 대웅전 목조단청
- 요사채: 80평부지 건물등재
- 종무소, 3층석탑, 향나무등
- 아름다운 전통사찰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2억3천만원

문의처 010-2607-7114

포교원 안내

- 위치: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원시장 부근 2층
- 지하철2호선 신림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0만원(부가세 포함), 시설비1300만원
- 약 25평

02-856-155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 법당, 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 대지200평,군임대부지 약300평, 법당 10평,산신각 2평,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황토방 5평,창고 약5평
- 외불미륵불, 지장보살
- 가액 : 2억. 절충가능
- 레미콘 차량 진입 가능한 포장도로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85-17 중심지
- 대지:100평,건평 70평,1층 전체
- 건물: 대웅전, 삼존불, 법당 외 방3, 화장실3, 도시가스
- 보증금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1,200만원(상담조절가능)
- 대구 최고 중심지. 단독 1층 전체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전망좋은 사찰 • 대지: 350평
- 대웅전,삼성각,요사채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13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 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부산진구
- 면적: 부지 약 600㎡, 건물 약 80㎡
- 법당, 삼성각, 방2, 부엌
-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주차가능
- 기도하기 좋은 곳
- 가액: 1억 8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7(연산동, 호성빌딩)

010-5346-413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터미널 10분거리. 버스, 빌라, 주택많음. 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456㎡. 138평. 목조 5칸. 법당3칸. 방2개. 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매일 새벽 4시 도량석,종성 문제없음
- 30년 이상된 고찰. 생활불편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5천

010-3565-0087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암 자 안 내

- 위치:경북 영주시 이산면 영봉로 1031번길
- 토지 120평. 건평 약20평 (등기되어있음)
- 지상권만 양도(정남향,지하수)
- 토지 1년 도지세 쌀 한가마
- 삼존불 봉안 양도 금액 2100만원

010-6783-25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통영시
- 대지: 83.5평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각
- 종무소, 스님처소, 공양간, 창고, 실내화장실1, 실외화장실1
- 집기일체, 즉시법회
- 가액대출 2천만원 안고 4억
- 소방도로 계획 요지

010-9049-301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48-4737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3층 40평 법당 삼존불 시설원만
- 방2 주방 화장실 옥상사용함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5분 거리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보성길70 (산을 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 총75평(1층,2층)/ 법당,신당, 사주카페 등 • 주차장 확보
- 팔공산 명마산 자락 대로변. 위치 최상권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전세7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시설완벽, 주거살림가능)

010-6418-994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대전통영 고속도로 고성IC에서 약15분거리
- 대지: 총 3,356평. 건물 84.5평 (대웅전 37평 포함)
- 120미터 지하수 사용. 가건물 약 60평(숙소 및 식당 등)
- 용도: 사찰 및 요양병원, 복지관 등 조건 좋음
- 사찰이 필요치 않고 요양병원 등이 필요만 할시 분할 매각 가능. 분할 매각시 [대지 1,490평. 건물 47.2평(단독주택)] 가능. 지하수 공동 사용가능함
- 매각대금은 상호 절충가능함

010-8785-1574

암자 부도전 수목원

- 부도전 및 수목원 가능
- 위치: 강원 동해시내(바다조망). 임야 3.349(대지 400평)포함
- 건물: 5동.약120평(1동80평 신축건물)
- 특징:유명한 약수물 있음. 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 경내 차량진입
- 창건: 1945년 암자.소쿠리터
- 은행설정. 2억5천. 안고 1억

010-2873-3446

명당 절 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계곡물 전기
- 평수 : 150평
- 양도가 9천만원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전망 좋은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바닷가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양도가 : 1억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칠순, 돌잔치, 명절 등 각종 행사, 가족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전기소매업’ 도전하는 日스님들

7개 종단 스님 모여 ‘테라 에너지’ 창립

박영빈 객원기자

재생가능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가운데, 일본에서 불교계 전기회사가 탄생했다. 일본의 7개 종단 스님들이 뜻을 모아 전기소매업 주식회사 ‘테라 에너지(TERA Energy)’를 창립했다고 지난 10월 25일 산케이 신문, 니혼케이자이 신문, 교토신문 등의 현지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일본에선 지난 2016년 4월부터 전기소매업이 자유화되면서 지금까지 약 500곳 이상의 업체가 등록했다. 대부분이 가스 공급회사, 석유회사 등 자원 관련회사들이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이번에 설립된 테라 에너지는 사장부터 운영진 모두 스님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사장인 타케모토 류고(40) 스님은 교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왜 절에서 전기사업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들의 경영난은 물론 사찰과 지역민의 연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찰의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회사 설립취지를 밝혔다.

테라 에너지는 ‘지역과 사찰간의 순환기능 활성화’ ‘불교의 가르침에 근간한 상업활동의 실천’ ‘지구환경보존, 탈탄소에너지사회 실현을 위한 일본불교적 모델확립’ ‘불교를 배경으로 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회사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2016년 전기소매업 자유화
500곳 이상 업체 등록 마쳐
불교계 전기회사 최초 탄생
지역-사찰 상생에 방점 둬

테라 에너지는 후쿠오카현의 지역에너지 지원회사 ‘미야마 파워 HD’와 연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를 판매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단체들과 협력해 사찰이 소유한 산지에 소규모 수력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자체적인 전기생산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해 계약자의 희망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 회사설립 취지와 사업계획을 발표한 관계자와 류고 스님(가운데). 사진출처=산케이 뉴스

전기는 먼저 내년 4월부터 일본 중남부의 추코쿠와 시코쿠지역의 사찰들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이 지역에 소재한 사찰들은 6천 개소가 넘는다, 이 중 현재 테라 에너지의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절은 28개소다.

테라 에너지측은 “사찰 네트워크를 활용, 각 사찰들과 신도들을 중심으로 판로를 넓힐 것이다. 이를 통해 광고비와 인건비가 절약돼 타 회사들의 일반가정용 전기요금제보다 2~3%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며 경제성이 높은 점을 장점으로 소개했다. 이어 “2년 내에 오사카와 교토등지로 확대, 최종적으로는 일본 전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회사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또 테라 에너지는 수익의 일부를 계약한 사찰들 가운데, 경영이 힘든 곳의 개보수와 지역활동을 위한 ‘지역사찰 보조금’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익의 1%를 자살방지 및 자살유가족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류고 스님은 “사찰과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회사의 경영취지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고야산 진언종, 도쿄서 결연관정 첫 봉행

11월 23일부터 3일간, 예약제도 도입해

1200년 넘게 일본 진언종의 전통으로 내려온 결연관정(結緣灌頂)법회. 오는 11월 말 사상 최초로 도쿄에서 법회를 봉행한다고 지난 10월 23일 ‘산케이 뉴스’가 전했다.

결연관정이란 불보살과 인연을 맺는 밀교의식을 말한다. 관정법회에서 제자는 눈을 가리고 만다라 위로 꽃을 던진다. 꽃이 떨어진 곳에 계신 불보살이 제자와 인연이 있는 본존이 된다. 불보살과 인연을 맺기에 고야산에서 연중 봉행되는 법회들 가운데 가장 위의를 갖춰 봉행하는 법회로 결연관정이 꼽힌다.

고야산 진언종의 총본산 콘코부지 측은 “결연관정은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코보대사가 812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진언종에서는 코보대사가 11월에 결연관정을 받은 것을 기념해 매년 가을에 결연관정법회를 봉행한다.

콘고부지는 “해마다 많은 참배객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올해부터 예약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예약제의 도입과 함께 “관정을 받고자 고야산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라는 목적으로 사상 최초 도쿄에서 봉행을 결정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3일간 봉행되는 결연관정은, 23일 오전 ‘정의결연관정 삼매야계’라는 예비의식으로 시작된다. 그 후 총 28차례에 나누어 비공개로 관정이 진행된다. 콘고부지는 “결연관정은 남녀노소, 종파를 떠나 불보살과 인연을 맺는 귀중한 자리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며 법회의 봉행의의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고야산 금당에서 결연관정을 봉행 중인 스님들. 사진출처=결연관정 공식트위터 계정

삼보종 창시자 ‘상가락시타’ 별세

지병 앓아 93세 일기로
전 세계 추모물결 이어져

영국 불교 전파자 상가락시타(Sangharakshita)가 93세 나이로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오전 별세했다. 상가락시타는 폐렴과 패혈증 등 지병을 앓았다.

불교 언론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이날 상가락시타의 타계 소식과 함께 생전 그의 업적을 보도했다. 상가락시타는 불교 지도자이자 삼보종(Theravada tradition) 창시자다.

상가락시타는 1925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중 아시아로 파병된 것을 계기로, 제대 후 20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불교를 공부했다. 그는 남방불교에서 상가락시타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불교에 귀의했다. 그 후 그는 다르도 린포체(Dhardo Rinpoche), 키엔체 노르부(Jamyang Khyentse), 두좀 린포체(Dudjom Rinpoche) 등 중국의 티베트 점령으로 인해 인도로 망명한 스님들과 함께 불교를 공부했다.


상가락시타 생전 모습.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특히 상가락시타가 1952년 인도 헌법의 제정자이자 최초 법무장관인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를 만나 초창기 인도 불가촉천민의 불교 개종 운동을 이끈 점은 큰 업적으로 꼽힌다.

인도 카스트제도 하의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난 암베드카르는 상가락시타의 도움으로 불가촉천민들을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대규모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1956년 10월 14일 38만 명의 불가촉천민이 불교로 개종했고, 그는 6주 후에 사망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가락시타는 암베드카르의 불가촉천민 사이 불교 운동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끌며 큰 공을 세웠다.

이후 1964년 상가락시타는 영국으로 돌아와 1967년 공정무역 불교 단체인 FWBO를 설립했다. 이 공동체는 당시 젊은 층에게 ‘대항문화’의 일환으로 불교를 전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크게 성행했다. 당시 상당한 영국인들을 불교에 입문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상가락시타는 1990년대에 은퇴하고 지도부에서 물러났지만, 영국 불교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꼽힌다. 삼보종은 2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 불교계도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유명 명상 지도자 비슈바파니(Vishvapani)는 상가락시타의 사망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가락시타는 나를 불교로 이끈 스승”이라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나는 경외와 사랑 없이 그가 작가로서, 스승으로서, 영적 친구로서 얻은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챙김 치료 전문가 비마라사라 메이슨존(Vimalasara Mason-John)도 “나와 다른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꿔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 특히 나에게 ‘알아차림은 혁명이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라고 회고했다. 이들은 모두 상가락시타의 생전 제자들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몽골, 학생들 할로윈 기념 ‘전면 금지’

불교 등 전통 문화 침체 우려가 원인

몽골이 학생들의 할로윈(Halloween) 기념 행위 및 축제를 전면 금지했다. 몽골의 급진적 경제 발전으로 인해 불교 전통문화를 침식시킨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 그 이유다.

몽골 교육 당국은 지난주 전국 모든 학교에 ‘할로윈 기념 금지’ 방침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월 30일 전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할로윈 분장을 위해 돈을 모으거나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평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할로윈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국가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학교가 올해 할로윈 기념행사를 중단하도록 조직적으로 명령했다.

미국에서 유래한 할로윈은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다. 이 같은 할로윈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성행할 뿐 아니라,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도 점차 인기 있는 축제가 되어 가고 있다. 몽골은 1990년 모스크바가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한 후 그 여파로 급속한 변화를 겪었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개방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문물이 대거 유입됐다.


몽골 교육 당국은 지난주 전국 모든 학교에 ‘할로윈 기념 금지’ 방침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사진출처=thewestAustralian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큰 상황이다. 바로 유목민 및 불교문화 등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것.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명상, 커피는 안 되고 茶는 된다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5. 자비다선 차명상

1) 대자유로 인도하는 차명상

오늘부터는 자비다선 차명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명상의 목적은 고통, 즉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수행자는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고 마음에서 시작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상은 힘든 순간에도 인간 스스로 지탱하여 무너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며, 희망의 의지를 줌으로써 삶 속에서 멍들고 짓눌린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고통에서 해방되거나 다가올 고통을 예방하여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명상이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명상이 갖는 이러한 의의는 곧 차명상의 그것과 같다.

또한, 차명상은 다른 명상법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상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접근성을 가지는 수행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서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는 자비심, 그리고 존재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일미(一味)의 지혜를 얻도록 한다.

사람은 본성이 공하여 높낮이가 없어 평등한 존재이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익숙하거나, 인정하면서 몸과 마음을 불평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 우리가 불평등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기준은 심리적 요인과 관습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타인에 비하여 높다고 판단하여 거만하거나 우쭐해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타인에 비하여 낮다고 판단하여 주눅 들어 있는 상태이다. 관습적 요인으로는 사회적으로 습관적 · 학습된 불평등의 결과물로 남녀, 나이, 계층, 종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높낮이는 우리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높낮이는 진실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우리 삶 그대로 표현되는 남녀, 나이, 계층에 속박되어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이 사회의 무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는 일미의 지혜가 없어서 벌어진 결과일 뿐이다. 일미의 지혜는 모든 존재를 상호의존, 평등으로 보게 하고 불평등에서 야기되고 있는 테러, 전쟁, 환경오염, 성차별, 계층 간의 차별, 인종차별 등에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한다. 이를 개선시킬 실천적인 행은 자비심이다.

자비심은 중생연자비에서 법연자비, 무연자비로 상승한다. 이 자비로써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일미를 실천한다. 즉, '지각 있는 모든 유정'을 도와주는 자비심이다. 또한 이 자비의 지혜로써 마음의 본성을 덮고 있는 단단한 번뇌와 무명껍질에 균열을 내고 그 틈새로 불공의 일미가 표출되면서 최종에는 범부가 성인으로, 중생이 붓다로 전환한다. 즉,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어 보는 일미의 깨달음과 대자유를 성취하는 것이다.

처음 지각 있는 모든 존재를 대할 때는 자기의 업(業) 때문에 평등을 이해한다고 해도 자기와 있는 인연 있는 존재들에 대해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다르마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을 반연할 뿐인 중생연자비(衆生緣慈悲)이다. 그렇지만 중생연자비에서 차명상을 통하여 상호의존, 무상, 고, 무아, 공에 대한 이해가 익어지고 체험이 분명해지면서 지각 있는 존재들을 상호의존, 무자성, 공 등 법으로 생명을 보기 시작한다. 즉 체험적으로 평등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법연자비(法緣慈悲), 이 법연자비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주객이 사라진 공성 하나로 꿰뚫어 보는 지혜와 공성에 입각한 자비삼매 속에서 주객이 사라진 진정한 평등을 깨닫는다. 그래서 인식대상이 없는 무연자비(無緣慈悲)라는 최상의 경계를 모든 생명에게 실천하게 된다. 이 무연자비를 차명상으로써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자비다선이다. 결과적으로 차명상의 틀이 작용하여 자비심을 일으키게 한다. 자다선(慈茶禪) 비다선(悲茶禪)은 이러한 차명상의 특징을 더욱 잘 보여준다.

커피는 열매, 차는 잎이어서
각각 수렴 · 발산 의미 나뉘어
땀나고 몸 가볍게 하는 차는
번뇌 약하게 하는 데 도움 돼

다도와 선다, 그리고 다선

차명상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다도(茶道), 그리고 선다(禪茶)와 다선(茶禪)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도의 도(道)는 진리라는 뜻이 있지만 또한 수단, 방법의 뜻이다. 그래서 다도는 차 마시는 방법, 차의 색과 향과 맛을 보는 방법 등의 뜻이 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선다(禪茶)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선(茶禪)과 혼동되고 있다. 선다와 다선은 차와 명상이 결합한 단어로, 선다는 다법(茶法)을 강조하고 다선은 선법(禪法)을 강조한다. 즉, 선다는 선을 이용하는 '다법'이고 다선은 차를 이용한 '선법'이다. 선다는 차(茶)가 중심이 되므로 차의 종류, 차를 마시는 순서와 방법 등을 중시하는 반면, 다선은 차(茶)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다법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차명상의 경우 차를 매개로 하는 '명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차명상으로 지칭되는 것들은 다선의 다른 이름이다.

다선의 차명상은 선(禪)하는 스님들에 의해 전승되어 내려온 것이다. 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차를 접해도 선을 모르는 분들은 다선을 알 리가 없다. 더욱이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의 조사선(祖師禪), 간화선 수행자에게는 차를 마시면 그대로 다선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 다선법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선승(禪僧)들이 앉으면 좌선이요 걸어가면 행선이 되고 차를 마시면 다선이 되기 때문이다. 굳이 다선(茶禪)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헌에도 다선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이 제시된 것이 없었던 것이다. 단지 다선일미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기록이나 끽다거라는 선문답이 조사어록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선 수행을 모르는 요즘 사람들 대부분은 다법은 알아도 차를 통한 선법을 모르기 때문에 선을 모르는 분들의 다도나 선차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법 중심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선수행자의 다선의 영향으로 다법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할 뿐이다. 중국,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차명상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다법 중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다선 차명상의 등장 때문이다. 1998년 송광사 강원에서 학인들을 대상으로 차를 매개로 한 수행법을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1999년에 '찻잔 속에 달이 뜨네'라는 차명상법이 발간되고, 2001년 BTN불교TV에서 '차수행법'을 강의하면서 차명상법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0여 년간 차와 수행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차 마시기가 생활의 고상한 취미 수준을 넘어서 수행이 될 수 있는 차명상 방법을 최초로 체계화시켜 그 효용을 제시했다. 차명상 수행법인 '다선일미 차명상'과 '자비다선'을 통해 차명상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상담전문가 1급 자격을 갖춘 마음치유 상담전문가이자 불교방송 '우리는 도반입니다' 프로그램의 인기 진행자인 선업 스님은 1990년대 중반부터 차담을 통한 소통대화법으로 마음치유에 차명상을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의 차명상은 '차명상'이 아닌 '차담명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공감과 나눔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장 스님은 차가 어떻게 마음에 작용하는지에 대해 초기불교수행론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중이 쉽게 명상에 다가갈 수 있게 앞장서고 있다. '차명상'이라는 현대적인 용어는 2005년 지장 스님이 '초의차명상원'을 개원하면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미얀마 등지에서 명상 수행을 직접 경험하고 차명상의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승가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차명상은 그 이름을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다. 2010년 3월 25일 지운, 지장, 선업을 중심으로 하여 사단법인 '한국차명상협회'가 발족하면서 차명상이 본격적으로 출발하였고, 그 산하에 현재 약 5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각 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차명상 및 차문화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각 대학의 평생 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차명상은 그 이름을 대중적으로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명상은 대중적인 명상방법으로 자리 잡는 추세이다.

차가 명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커피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차와 커피는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차이는 커피는 열매이므로 수렴의 뜻이 있고, 반면 차는 잎으로 만드는데 발산하는 성질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커피는 마셔도 땀이 잘 흐르지 않지만 차를 마시면 몸에 땀이 흐르고 몸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 이유는 바로 차가 기운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커피와 다른 점이고 명상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차의 기운이 몸의 기혈을 뚫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몸의 기운이 일어나고 몸이 가벼워진다.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번뇌의 힘이 약해짐을 뜻한다. 마음과 기운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연재에는 마음과 기운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220호 현대불교
2018년 11월 7일(9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하나하나 버리지 말고 모두 공심으로써 함이 없이 살아라

(지난 호에 이어서)

큰스님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죠? 통신?

질문자3(남) 전화통신공사업.

큰스님 전화통신이요? 우리가 양쪽에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전화가 통하죠? 그러니까 주인공과 자기가 같이 연관이 돼 있죠? 여러분이 다요. 누구나가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전국에 다 전화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통신처거든요. 통신처만 되는 게 아니지만 지금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 면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모두 그 주인공에다 통신을 해서 다 당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이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 사람만 도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망이 다 이렇게…, 음파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음파가 통하면 통하는 대로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응해 주십니다.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거기다가 관해 보면 '좋지 않다, 좋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는 그거를 그렇게만 나눌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쪽이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장사를 못 하겠다 하더라도 그쪽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더라도 해라 이 소립니다.

질문자4(남) 저는 제주지원 심용회 회원입니다. 저는 제주지원 거사림 합창단을 잠깐 소개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불교계에 최초로 거사림 합창단이 지난 1월 26일 법형제를 중심으로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제주문예회관에서 거행된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불교합창제에 보살 합창단과 혼성으로 참가하여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법가를 배우고 음성공양을 하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음성공양으로 보통 찬불가들을 하는데요, 이건 선법가입니다. 찬불가와 선법가는 다릅니다. 찬불가는 일체 음파가 법망에 통하질 않지만 이 선법가는 통합니다. 통하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꾸 부르면 그것도 아주 염원을 하는 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달린 거니까 생각을 크게 넓혀라 이거죠. 넓히면 넓히는 대로 나한테 이득이 오고 상대방에 이득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 선법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고…. 이 선법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딴 데서 그렇게 선법가를 잘 지어서 법문으로 듣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선법가를 여러분께서 한 곡 한 곡 부르실 때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그냥 그 운기가 김으로 올라가서 불이 하늘을 두루 붙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넓히는 게 지혜를 넓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버리지 말고 한다는 거, 또 모두 공심으로써 함이 없이 살아라' 하는 이런 뜻이 바로 놓고 가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라. 내가 한다는 말 없이, 내가 산다는 말 없이,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에 허무한 생각도 좀 들고, 무상한 생각도 들고, 좀 고난이 심하면 살기 싫은 때도 있고, 조용한 데로 가서 좀 있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지죠, 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걸 응용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선 딱 책정을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화해집니다. 화해지고 넓어지고 그대로 웃어지고 그대로 편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법가를 요만한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애탄지탄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공부가 채 뭔지도 모르고 병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이 왔다가 이제 조금 알았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각 지원의 여러분이 공부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지원에 계신 분이 지금 나오셔서 질문했는데 그만큼 하고 가신다면 그, 공부 잘하시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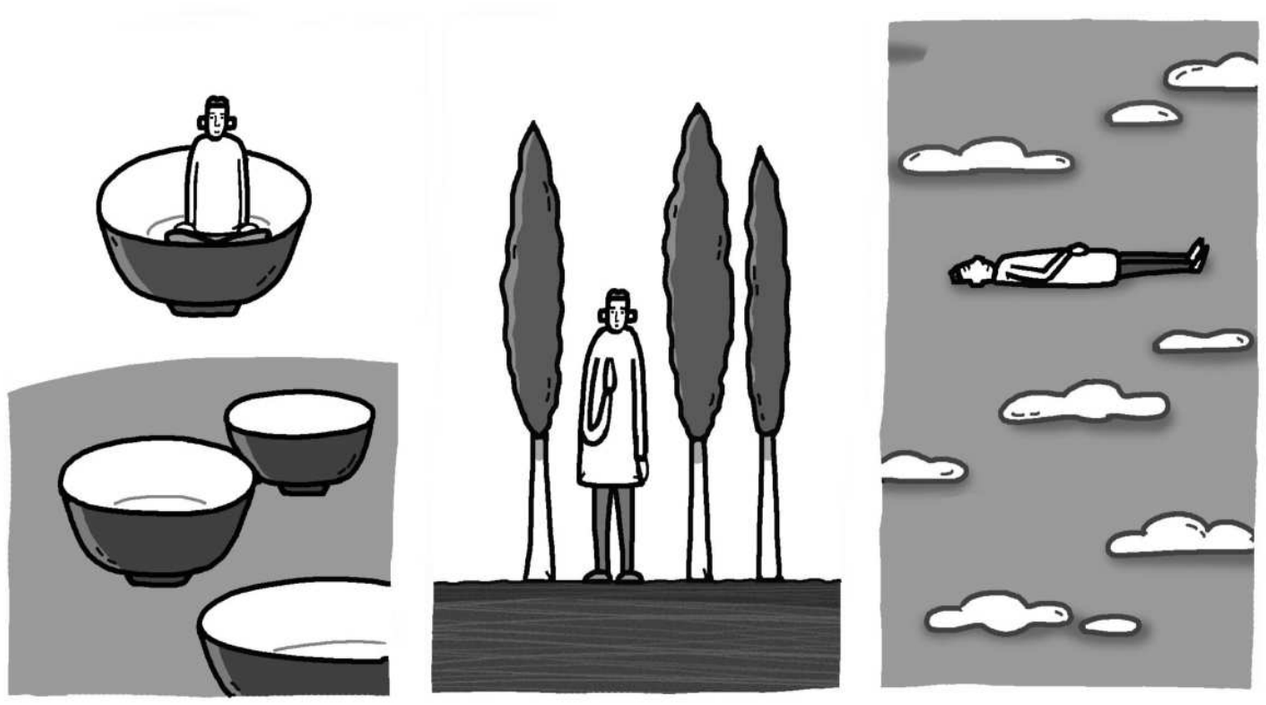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평상시에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법사스님이 아까 '국이 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스님네들이 사는 데서는 짜면 그냥 물 타서 먹고요, 싱거우면 간장 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살아나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전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 탓으로 돌려라. 모두가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어디에 가서 이 부처 저 부처 찾을 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들이 전부 내 한 마음에 있으니 내 한마음 속에서 다 용도대로 써라,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이 내 한마음 속에 들어 있으니까 용도대로 꺼내 써라. 이렇게 간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구 공장에서,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이거는 죄가 있어서 미생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미생물로 나와서 성장을 해서 인간까지 와야 사람이 되니까요. 도리를 모르니까, 업보가 있어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죠. 인간 하나가 불쑥 태어난다 해서 인간이 아니죠. 얼마만큼 해서 인간이 됐느냐? 즉 말하자면 축생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느냐? 또 저런 나무들, 목성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물에서 나왔으냐, 흙에서 나왔느냐? 이 문제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용도대로 주어진 거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못나게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못나게 나온 거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거지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나오고, 까치 둥우리에서는 까치로 나오고 그렇게 그냥, 이걸로 들어가면 이걸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사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진짜 사람이라면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느냐? 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다. 진리를 참구해야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리를 알아야만이 우주 법계의 모든, 즉 말하자면 법망을 다 자유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법망에 걸림이 없다 이 소립니다.

아무리 승려들이 못났든 잘났든, 일단 신도들이 볼 때는 그저 자기 주인공과 둘 아니게 봐라. 스님네들만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모두 자기와 같이만 봐라. 자기와 같이 보면 손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는데 꿈을 꾸었더래요. 너무 찌들려서 살다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조상들이 다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조상님네들도 둘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둘이 아닌데 뭐 그렇게 성가시게 하고 그렇게 괴롭게 살게들 하느냐?" 이러니까 조상들이 나왔다가 다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져서 그냥 연기처럼 해서 자기한테로 다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겁이 나 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연기처럼 해 가지고 저한테로 다 들어왔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하고요. 그래서 "허허허…. 연기처럼 들어갔다면, 네 영에다가 영이 연기처럼 해서 들어갔으면 그게 영이 몇 개나 되겠느냐?" 하니까 "영은 영이죠, 그냥." "그러면 됐지 않느냐? 그랬으면 벌써 너의 몸으로 인해서 재생이 돼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님네들도 모두 그렇지만 다 가

☞ A18면으로 계속



이 지구라는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야 자유껏 산다

☞ A17면에서 계속

족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입산을 하러 오면 그거부터 물어보셨답니다. "너는 왜 한짐 짊어지고 왔느냐?" "전 하나도 가진 게 없이 그냥 왔습니다." "너, 너의 식구를 다 짊어지고 오지 않았느냐? 짊어지고 온 거 다 벗어 놓고 오너라." 이럭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떼어 놓고 해결을 하고 또 몇 달 만에 오니까 "아니, 그거는 떼어 놨지만 재산 문서를 왜 죄 짊어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진정코 공부하려고 들었던지, 돌아가서는 그 재산을 죄 그냥 배에다 싣곤 바다로 나갔더래요.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다 다 집어넣으려고요. 있던 물품도 뭐, 그냥 전부. 그러니까 집에서는 식구 다 죽게 재산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느냐고 야단들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만 식구가 다 산다." 그러곤 나가서 배를 바다에다 띄우려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냥 소리가 나더래요. "함이 없이 하라니까, 물건에 뭐가 붙었다고 그걸 갖다 버리느냐?"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착을 버리라는 말씀에 그걸 도로 실어다가 집에다 갖다 주고선 그냥 가니까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받아 주시더래요.

우리 스님네들도 속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호하다면, 그냥 단호하게 맡길 수 있다면 그건 그만이거든요. 그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지금 여기도, 정말이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다 같이 와요. 내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냐고 그럴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좀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그냥 고마워서, 자식이 그렇게 하고 손주가 그렇게 하니까 고마워서 그냥 따라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수만이 다 건져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 생이나 되겠습니까? 수천 생이 됩니다, 이 몸속에도. 그게 인과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지구라는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껏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에 있는 에너지로 그냥 우리는 자유스럽게, 때로는 이 모습으로도 되고 때로는 저 모습으로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 전체를 다녀도 손색이 없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현실이거든요. 과거 미래가 현실이란 말입니다. 내일이다 하는 교차로가 있을 뿐이지, 어저께다 하는 교차로가 있을 뿐이지, 그 교차로라는 것만 알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죠, 그냥. 하난데 '그 하나도 모두 공했으니까 너까지도 놔라. 너가 있단 말도 하지 마라. 너도 공했다. 삼세가 공했으면 너도 공했고, 네가 공했으면 네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공했다. 다 공했으면 함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죄도 없고 업보도 없고 인과도 없고 유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너가 없는데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리를 진정코 알아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그 유전성이 폐제(廢除)가 되기 때문에 그 악화된 아픔, 병세 이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공부 한다고 해서 아주 잘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지 않고 살게 되고, 또 진짜로만 믿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자연적 웃고 살게 되고 생활도 지치지 않게 하고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업보가, 인과성, 유전성 모두가 다 무너지니까, 구름이 다 걷히니까 햇볕이 짱짱 비쳐서 내 젖은 모습을 다 말려 준다 이런 뜻과 같죠.

그래서 배운 글자로, 학식으로만 해서는 이 공부를 못 하죠. 학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수화풍을 베개 삼아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는 지수화풍에서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피만 조금 안 돌아도 야단법석이죠? 물 한 컵 먹을 것도 없으면 야단법석이죠? 불이 없어 보세요, 또. 불만 없어도 야단이죠? 공기가 없어 보세요, 또. 그냥 죽죠, 뭐. 그러니까 모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 그 자체가 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더 사실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난이 채 못 알아들어서 좀 더 사시다가 가시라고 그런 말을 못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면 원하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꼭 가야만 된다 할 때는 가야 되겠죠. 이거는 양면의 살림살이뿐 아니라 두루 살림살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체에 두루 책임이 주어져서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뛰는 건요, 하나도 괴로움이 없고 하나도 걱정이 없고 하나도 하는 게 없고, 하는 게 없으면서도 진실로써 그냥 되는 거죠.

딴 데서 천도를 하고 왔다 이러는데도 그 조상님네들은 그냥 거기 갇혀 있지 않으면 그냥 떠돌고 이러거든요. 그것을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마음이라야 되죠. 똑같은 염불을 해도 지극한 마음으로 주인공에다가 관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그냥 주인공에다 관하고 하는 거하고, 관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곤 다르죠. 만약에 신도가 똥을 누다가 그냥 왔다고 그래요. 그럼 밑을 딱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밑 씻는 것까지 참견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야 아주 편안하게 나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매끈하게 얘긴 못해도 그냥 내가 실천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대로 믿어 주세요. 그것이 진정코 진실이니까요. 어떤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못 배운 거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상당히 고달프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어느 때에 타다 남은 숯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숯을 집어서 그냥 글을 쓴 거예요. 글자는 모르고 쓰기는 멋지게 써 놓은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데, 내가.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자는 모르는데 그냥 숯으로다가 한문으로 멋지게 글을 써 놓았다면 그걸 누가 봐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함이 없이 하라. 내가 한다는 말 없이,
내가 산다는 말 없이,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주인공 속에서, 즉 말하자면 내 과거, 바로 불성 자체가 연결이 돼 가지곤 '글자를 알려고 하지 마라. 글자를 알아도 그 소리, 글자를 몰라도 그 소린데 글자는 알아서 뭘 하느냐? 글자가 누구 하나를 건져 줄 수 있는 거냐? 글자 하나가 누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냐? 네 마음이다. 못 배웠든 배웠든 네 마음이니까 그대로 해라.' 하고 일러 준 거죠.

산에 다니면서도 그때는 참, 동네에 내려가서도 얻어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때는 모두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소나무가 아니라 조그만 소나무들인데 물이라도 좀 빨아 먹으려고 했으면 위에 있는 순을 뚝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명인데 위의 순을 딱 떼어 놓으면 내 머리 떼어 놓는 거와 같더군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만난 것이 바로 인연이 아니겠느냐.' 하고선 그 맨 밑에 있는 가장자리 거를 떼었으니 거기서 물이 뭐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물도 안 나오는 거를 껍데기를 벗기고선 빨아 먹고 이렇게 해 본 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적게 먹어도,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게 만약에 빵으로 된다거나 이런다면은 그냥 배고프지 않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모두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믐밤에 풀숲에 앉았어도 십리 안팎으로는 어느 거든지 거기를 범접치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었거든요, 허허허…. 처음에는 뱀이 보이면 상당히 무서웠는데, 언젠가 지나가다 보니까 샘터 옆에 큰, 뱀이라고 그럴 수가 없죠, 크니까. 구렁이가 이렇게 뚤뚤 뭉쳐서 머리만 딱 들고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더러운 거냐, 깨끗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른데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급하면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더러우냐 깨끗하냐 이걸 묻느냐고 그랬어요, 외려. 반문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똥 마려우면 똥을 눠라.' 이러는 거예요. 만약 지금만 같아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옛날에 나이 적었을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기를 '어, 일체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더럽고 깨끗한 것이 따로 없구나. 새는 새대로 사는 생활과 삶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삶과 모습이 있고, 모두가 제각기 모습이 있고 삶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그게?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는 까닭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똥을 누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싹 또 그게 없어지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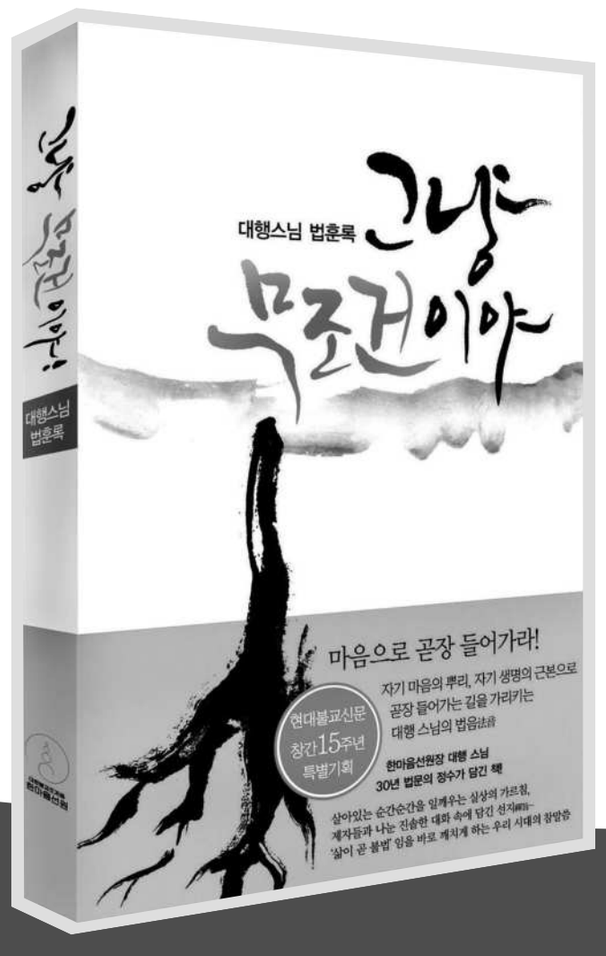
그 구렁이가 보이는데 구렁이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만 노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 글쎄, 그거를 같이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었죠, 생각이 날 때까지. 영 일어나지도 않고 눈도 이렇게 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뭐,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허허허…. 아이, 그냥 똑바로 마주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얼마쯤 앉아 있으니까 그 지금 고개 들고 있는 구렁이가 똥그랗게 있는 모습과 길게 가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서 '응, 기어가면 한 일(一) 자고, 똥그렇게 뭉쳐서 머리 들면 흰 백(白) 자고, 이것이 그냥 똥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로구나. 하나라고 가르치는 거로구나. 저게 나를 가르치려고 이랬구나. 저것도 바로 내 주인공과 둘이 아니야. 너도 그렇지?' 그러는데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그냥 가 버려요, 그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무섭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마주 쳐다본 게 한 너덧 시간 됐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얼른 생각이 났으면 그게 얼른 갔을 텐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이 날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든 뭐든, 내가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는 모습으로는 영 보여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뜻으로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랬죠. 여기 처음 이사 와서도 눈이 자박자박하게 왔는데 발자국이 탁 나 있어요. 산에서 토굴에 있을 때 만났던…, 앉았다 간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이, 왔다 갔구나. 이렇게 모습으로 오지 않아도 될 텐데 넌 왜 모습으로 왔니?'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모습으로 안 오고….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도리를 아신다면은…. 참, 사람이 짐승이 돼서 짐승의 대접을 받고 사는 것들을 또 봐 보세요. 그걸 아신다면 그런 짐승들을 보면 뭐,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되죠. 사람이 됐다가 짐승이 돼서 산다면…. 개도 그런 개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짐승이 사람으로 된 사람은 많고요. 처음으로 사람이 돼서 살면서 사람으로 또 태어나기가, 재생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도리를 좀 알고 가야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한 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세 번을 죽어서 거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부처님의 그 한자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고 저기고 간에 똑같이, 그런 분들에 한해서 마음공부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이다음에는 '이건 죽어도 살아도, 떠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없구나. 은하계가 그렇게 많고 우주가 그렇게 많아도 떠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 떠나고 하는 게 없이 헤어지고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찰나찰나 화해 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자유스럽게 사는 거구나!' 하고 그럴 때는 내 생각도 많이 나시겠죠. 허허허….

그럼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무식하니까 무식하게만 만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무식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대로 적응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 법문은 1999년 10월 3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소통, 분노사회 치료한다



이화행 교수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참혹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장 강력 처벌" 국민 공분

병적 분노사회가 단순 원인 아냐
의사소통 구조 변화도 주목해야
개인 중심되는 온라인 공간 소통
집단 응집력 · 사회적 합의 약화

분노 아닌 '관용사회'를 지향해야
오프라인, '공생의 장'으로 회복을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의자는 분노로 인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사건의 살해 정황이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토대로 사회 전체를 병적 분노 사회로 치부하는 일부 선정적 보도는 논리 비약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노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크게 그르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개인 인성의 문제로부터 사회의 구조적 모순, 정치적 미성숙, 시대적 환경의 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부터 미시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필자는 정보시대의 도래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구조 변동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에서 분노사회의 원인과 배경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인류 공동체의 기본 속성이다. 대행 선사가 말씀하신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하며 사는 인간 삶의 원리이다. 이 원리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과거 농경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사회에서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주를 이뤘다. 사람들은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였던 것이다.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의 만남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 놓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어적 요소와 사회적 실재함이 결여된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절제하면서 서로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형성해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 요소가 적을수록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더욱더 비인간적인 양상을 갖는다. 컴퓨터나 휴대폰의 자판을 거쳐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사람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증대시켜 비인간적이고 이로 말미암아 집단 간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개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위계와 같은 집단규범적 요소가 약화한다. 사회집단 구성원간에 형성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공동체는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다. 인간적이면서도 분절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분노가 아닌 인내와 관용의 확산을 추구하는 사회, 그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인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의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오프라인 공간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공생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사찰 응급교육 상설화 필요

지난 10월 3일 제주 관음사 관음굴에서 60대 남성 K씨가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관음사 신도 임인숙 씨(불교자비원 前재가복지센터장)와 조은성 씨(관음사 관음자비량합창단장)는 신속한 대처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이 남성을 살렸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되기 불과 몇 주 전 관음사에서 배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떠올리며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그 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 남성은 곧 깨어나 안정을 취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 사고는 흔한 질병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심장질환과 관련해 사망한 이은 10만명당 43.6명으로, 암과 뇌혈관질환에 이은 세 번째 질환 요소로 꼽힌다. 이 심장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심장마비로 급사율이 80%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사찰에서의 심장마비 사고가 드물지만 제주 관음사의 사례처럼 고령화로 인해 사찰 내 방객의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심장마비 사고 빈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찰은 대부분이 산중에 위치해 있어 그 위험성은 더욱 높다.

소방재청 119신고 접수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 18초에 달한다. 사찰이 처한 환경적 요인으로 실제 구급차가 사찰에 도착하는 시간은 8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에서 사고 발생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일까. 심폐소생술에 대한 대중화와 불자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보급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비롯해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도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한 교육 등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 사고가 발생시 살아나는 환자는 4.6% 밖에 되질 않는다.

반면 미국은 생존율 40%를 보이고 있고, 기타 선진국들도 평균적으로 15%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생존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있기에 미국의 심정지 환자 소생율이 40%에 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본지의 연속 기획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라이나전성기재단의 후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찰에 보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총 29개 사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됐다. 보다 많은 사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야 함과 동시에 미처 보급되지 못한 사찰에서는 이 기계 없이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사찰방재의 날처럼 사찰안전의 날을 따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심장자동충격기와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생명을 살린다.

제주 관음사의 안전교육 사례처럼 지금부터는 사찰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응급조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사찰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社說

'불복장 작법' 지정 예고에 부쳐

불상과 불화 내부에 불교 관련 물목(物目)들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 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지정 예고를 10월 30일에 발표했다.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가 함께 인정 예고됐다. 별 이변이 없는 한 불복장 작법은 앞으로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지정이 확정된다.

불복장 작법은 1500년대부터 간행된 〈조상경(造像經)〉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활발하게 설행됐지만, 앞선 고려 시대부터 설행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불복장 작법은 봉안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 · 불화에 신앙적 가치가 부여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불복장 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이 같은 역사적 · 종교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런 성과는 2014년 설립된 불복장의식보존회와 조계종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실제 불복장의식보존회는 시연회를 비롯해 학술대회, 전시 등을 통해 비장(秘藏)됐던 불복장 작법을 대중들에게 알렸고, 종단은 이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제는 지정 이후의 사업들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된 불복장 의식을 정립해야 하며 보존회 소속 5명 스님들에게 전해졌던 작법들도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 불복장의식보존회에서는 '불복장 작법'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도 추진하다고 하니 기대해 볼 일이다.

앞으로도 불교 무형유산 발굴 · 보존 사업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

투명한 해외구호 계획 기대한다

지난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인한 현지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조계종이 NGO단체들과 현지 구호 공동대응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등 불교계 NGO를 비롯해 아시아협력기구, 태화복지재단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들의 중단된 학업문제 해소에 나선다. 무엇보다 천막을 활용한 교육공간 구축, 학습물품 등 교육기자재 구비, 정수시스템 및 위생설비 구축 등 구체적인 공동 구호 계획을 세워 눈길을 끈다.

반면 지난 9월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15조2900억 루피아(한화 약 1조1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불교계 지원은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다. 지진 발생 약 2주가 지난 뒤 (재)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에 불자 모두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모금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후 조계사와 화계사가 10월 16일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기탁하며 모금에 대한 불씨를 키웠지만 본지 취재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최 측은 11월 말까지 모금한 뒤 모금액 규모에 따라 12월 중 계획을 세우겠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본래 모금사업은 모금 이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취지에 맞게 모연해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간 불교계도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다. 인도네시아 지원사업도 성황리에 이뤄지기 위해선 분명한 계획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귄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참선수행의 최고 안내서’이자 ‘수행 고백서’

원오심요 역주



‘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중국 송대의 선의 종장인 원오극근 선사가 법을 묻는
이들에게 보낸, 선의 요체를 담은 가르침!

원오극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976쪽/값 45,000원

참선하여 도를 깨치는 문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 합주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의 ‘이부경전二部經典’으로 불리는
『증도가』의 대표적 주석서 4가지!

남명 법천 외 저/철우 역주/신국판 양장/496쪽/값 25,000원

선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禪經!

안반수의경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되는 수식관을 상세히 설하고 있는
『안반수의경』과 지관쌍수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도지경』을 상세한 주석과 함께 만난다!

안세고 漢譯, 석법성 역주/신국판 양장/240쪽/값 14,800원

佛光祈願文

부처님 광명 기원문

부처님께 드리는 100가지 기도!
원성스님의 마음 푸근한 동자승 그림!



발원은 수행의 방향이자 힘이다.
기도는 나와 내 주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신심을 고취시키고 자비와 지혜를 증진시키는
기도발원문!
간결하면서도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100가지
발원문이 불자들에게 감동과 평온을 선물할 것이다.

성운대사 글, 조은자 옮김/국판 양장/440쪽/전면컬러/값 23,000원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료하고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 책은 전해오는 수많은 윤회와 인과의 이야기들 중에서,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골라 엮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보다 선하고 의미있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석운광 지음/국판/200쪽/값 10,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일평생 유마의 삶을 꿈꿔온 한 재가 수행자의 공부처!

숫타니파타 독후감

‘청년 붓다’를 만나다

부처님의 원음이 가장 온전히 담겨 있는 초기 경전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숫타니파타』에는 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수행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재가자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김광하 저/국판/256쪽/값 13,800원

자기 안의 선지식

선은 방석 위에 가둘 수 없다!
선이 존재해야 하는 곳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일상의 시공간이다.

선이란 무엇인가? 선은 현실 속의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옛 선사들의 삶과 일화를 오늘에 투영시켜, 선의 참된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김광하 저/국판/312쪽/값 14,800원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친우서 親友書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3672-7181 ● 다음카페 :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여래의 아난, 탄허의 우담



서우담 대표는… 1970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출가했다. 삼덕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환속 후 1979년 교림출판사를 설립해 스승인 탄허 스님의 유업을 받들어 40여 년 간 탄허 스님의 저술을 출판해왔다.

산문 밖의 禪 서우담(81 · 교림출판사 대표)

선지식 탄허를 만나다

20세 때 월정사서 출가
탄허 문하서 한문 공부
한문경전 이해 두각
이른 시간 수제자로
〈신화엄경합론〉 출간 위해
해인사서 3만 배 기도
1974년 〈신화엄경합론〉 출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1983년 6월 5일, 오대산 월정사 방산굴. 50여 명의 수좌들이 모여 있다. "스님, 여여하십니까?" 시봉 상좌가 스승에게 여쭈었다. 스승은 그러하다고 답하고 원적에 들었다. 5년 전 본인의 예언대로였다. 원적에 든 스승은 한국불교사에서 방대한 역경불사와 유불선 3교 회통 사상으로 불교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한국불교사를 넓힌 탄허(1913~1983) 스님이다. 그렇게 스님은 한국불교사에서 대작 중의 대작 불사를 이루고 원적에 들었다. 그런 스님의 대작이 한 시대의 불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작의 가치를 알아본 밝은 눈과 남다른 원력 불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의 방대한 역경불사를 보다 많은 대중이 누릴 수 있도록 출판불사를 이어온 도서출판 교림의 서우담 대표가 그 밝은 눈과 원력불사의 주인공이다. 40여 년 탄허 스님의 역경 원고만을 책으로 만들어 온 그 불사 역시 한국불교사를 또 한 번 넓힌 대작 불사다.

또 한 번 칠엽굴… 교림출판사

서울 종로구 경운동 건국빌딩 본관 202호. 서 대표가 탄허 스님의 대작 불사를 다시 대작 불사로 이어온 교림출판사다. 문 앞엔 '도서출판 교림'과 함께 '화엄학연구소'라는 현판이 함께 붙어있다. 화엄학연구소는 1973년 탄허 스님이 서울 종로구 낙원빌딩에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1979년 그곳에서 도서출판 교림의 역사도 시작됐다. 그리고 1980년 화엄학연구소와 교림은 지금의 건국빌딩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 대표는 이곳에서 탄허 스님의 육필 원고(역경)를 정리하고 출판하며 평생을 보내고 있다. 탄허 스님은 이곳에서 말년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춘성, 고암, 경산, 청담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이곳에 만났다. 또한 한 시대의 많은 고민대중들이 스님의 법을 듣기 위해 찾았던 곳이다. 작은 공간이지만 역사에 관여한 많은 이야기들과 생각들이 오고 간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 역사적인 작은 공간 한 구석엔 또 하나의 역사가 쌓여 있다. 아니 잠자고 있다. 그동안 교림에서 출간된 책들의 인쇄용 필름 원판들이다. 〈신화엄경합론〉 등 탄허 스님의 글자들이다. 그 필름들은 대작불사라는 불교사적 의미와 더불어 출판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된 사진식자 인쇄용 필름이기 때문이다. 교림에서 출간된 탄허 스님의 경전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의 출판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것이다. 서 대표는 출판사 한 구석에 쌓여 있는 필름 박스들을 가리키며 "저 기록들은 문화재가 되어야 할 것들이다"며 "작은 출판사 구석에 쌓여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출판사 벽엔 탄허 스님의 사진과 육필 원고 사진들이 걸려있다. 그리고 벽면 한 쪽 서가엔 그 동안 교림에서 출간한 탄허 스님의 책들이 꽂혀있다. 이제 더 이상 교림은 출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림은 역사적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속에서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처님 열반 후 부처님의 말씀으로 가득 했던 칠엽굴처럼 교림이라는 작은 공간엔 부처님의 말씀과 '탄허'의 글자들로 가득하다. 그때는 아난이었고, 지금은 우담이다. 또 한 번 칠엽굴을 본다.

출가… '탄허'를 만나다

서 대표는 스무 살에 출가했다. 스무 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시절의 '세상'이란 하 수상한 것. 스무 살의 서 대표 역시 피는 끓고 또 끓었고, 시절은 하 수상하기만 했다. 그렇게 끓고 또 끓는 스무 살 서 대표의 비등점은 '불연(佛緣)'에 가 닿았다. 서 대표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던 탄허 스님을 스승으로 하여 머리를 깎고 불가의 이름을 받는다. '우담'은 탄허 스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당시 해인사 대중이던 법정 스님의 인연으로 서 대표는 탄허 스님의 글자를 보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글자를 위해서, 그 글자에 의해서, 그 글자로 살고 있다.

"처음엔 탄허 스님이 받아주시질 않았어요."

서 대표는 대학 선배인 법정 스님의 도움으로 오대산 월정사에 주석하고 계신 탄허 스님을 찾았지만 탄허 스님은 서 대표를 선뜻 받아주지 않았다. 인연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풀렸다. 선조들의 인연이었다. 서 대표의 16대 선조는 조선의 천재 유학자로 불렸던 서화담이었다. 그리고 탄허 스님은 화담의 수제자 토정의 16대 집안의 사위였다. 탄허 스님과 서 대표는 서로의 내력을 알게 됐고, 서 대표의 가계를 알게 된 탄허 스님은 비켜섰던 마음을 고쳐 서 대표에게 물었다.

"공부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제의 인연은 그 두 문장이면 충분했다. 그 자리에서 서 대표는 삭발염의했다. 공부의 시작은 '한문'이었다. 족보의 덕이었을까. 서 대표는 한문과 잘 맞았다. 서 대표는 3개월 만에 탄허 스님이 붙여준 사수를 뛰어 넘는다. 그리고 탄허 스님의 그림자와 점점 가까워진다. 서 대표는 한문에 있어 빨랐다. 덕분에 한문경전에 대한 이해력과 기억력이 어느 누구보다 빨랐다. 이를 본 탄허 스님은 서 대표에게 서화담이 다시 왔다는 뜻의 '우담(又潭)'이라 이름을 주었다.

위대한 불사 탄허의 〈신화엄경합론〉

당시 산문에서의 공부는 한문이 첫 번째 산이었다. 모든 경전이 한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불교는 중국을 거쳐 왔다. 그 시작이 한문일 수밖에 없다. 그 산을 넘어야 경전을 공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 대표는 "지금도 한문으로 된 경전을 온전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승과 속을 통틀어 10%도 안 될 것이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사문에게 있어 경전을 읽어야 하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 한문이라는 산을 넘으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는 쉬워진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명나라 중엽 소암덕보

B5
문화
불교중앙박물관 '금석문 탁본전'

B6
학술 · 문화재
수덕사 소조불 복장서 고려경전 발견

탄허 저술 출판 매진… 스승 가르침 세상에 알려



1966년 12월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 대학생불자연합회 수련회에 참석한 탄허 스님(두번째 줄 왼쪽서 다섯 번째)과 서우담 대표(첫 번째 줄 왼쪽서 첫 번째).



교림에서 출간된 탄허 스님 도서.



〈신화엄경합론〉 등 인쇄 필름 원본.

'서우담 대표' B1면에서 계속

그 산을 먼저 넘어선 이가 스승이 되어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스승'이라는 말이 딱 필요한 대목이다. 그 대목에서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이 '탄허'이다. 탄허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선사이자 대강백이다. 특히 역경과 교육에 쏟은 원력은 따라올 이가 없을 것이다. "법당 100채를 짓기보다 인재 한 명을 기르는 게 더 낫다"고 했을 정도로 스님은 인재불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탄허 스님에게 역경과 교육은 하나였다. 스님의 업적 중 첫 번째로 꼽히는 방대한 양의 역경불사는 바로 후학들의 교육을 위해 시작됐다.

탄허 스님의 핵심 사상은 화엄사상이다. 그리고 〈화엄경〉은 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부 중의 공부다. 본래 제목이 〈대방광 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인 〈화엄경〉은 우리 강원의 중요 경전이다. 산스크리트 완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승불교 초기의 중요한 경전으로 한역본은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번역한 60권 본(418~420), 실차난타(實叉難陀) 역의 80권 본(695~699), 이통현 역의 40권 본(795~798)이 있다. 스님은 44세 때인 1956년부터 오대산 수도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화엄경〉 번역을 시작했다. 10년 만에 번역을 마쳤고, 스님은 힘겨운 노력과 오랜 기다림 끝에 1974년 화엄학연구소를 만들고 〈신화엄경합론〉 47권을 출간한다. 번역을 시작한 지 18년 만에 이룬 불사였다. 그 불사의 중심엔 서 대표가 있었다.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은 실차난타 역의 80권 본 〈화엄경〉과 이통현의 40권 본 〈신화엄경론〉을 합본한 〈화엄경합론〉에 대한 현토역해본으로 〈화엄경〉 관련 저술 287권을 집대성한 것이다. 원효 스님 이후 1300년 만의 집대성이다. 이 공로로 탄허 스님은 조계종 종정상과 동아일보사가 제정한 제3회 인촌문화상을 수상한다. 이차돈의 순교 이래 최대의 불사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한국불교사에서 불사 중의 불사다. 하지만 당시 탄허 스님은 "하루 저녁 푹 잠을 자고난 기분으로 썼다"고 했다. 하지만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은 결코 가벼운 불사가 아니었다. 하루에 14시간 씩 원고지 6만 3천여 장을 써야 하는 고행이었다. 탄허 스님은 생전에 총 20종 80권의 역저서(譯著書)를 남겼다.

대작 불사의 시작 화엄학연구소

탄허 스님의 방대한 역경 불사는 그렇게 후학들을 위해 시작됐다. 그리고 그 불사가 다시 산문을 넘어 사바의 많은 대중에게까지 닿을 수 있기까지는 서 대표의 불사가 있었다.

당시 경전의 출판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화엄경〉과 같이 방대한 양의 경전은 말할 것도 없었다. 탄허 스님의 첫 번째 출간물인 〈신화엄경합론〉이 나오기 전인 1970년, 서 대표는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 원고의 교정 작업을 마친 뒤 3만 배 기도를 발원하고 해인사로 향했다. 개인 기도라는 이유로 해인사에서는 기도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지만 서 대표는 장경각 입구에 거적을 깔고 기도를 시작했고, 작은 다락방에 거처를 마련해 기도를 이어갔다. 이를 본 일타 스님이 불사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일타 스님은 "탄허 스님의 불사는 신라의 원효 스님 이래 큰 불사다"며 서 대표의 기도를 대중공사에 부쳤고, 장경각의 문은 열렸다. 서 대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출판 불사는 시절 인연을 만나기 시작한다. 화주가 시작됐다. 그리고 1973년 화엄학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많은 일들이 화엄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인연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마침내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이 출간됐다.

산문 밖으로…탄허의 아난

1979년 교림출판사 설립

탄허 법어집〈부처님~〉 출간

강원 교재 제작 보급

〈신화엄경~〉 3차례 재간행

〈초발심자경문〉 〈치문〉 등

40여 년 탄허 저술만 출판

"국내 최초 사진식자 출판

불교사 · 출판사적 의미 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화엄경〉

마지막 출판 계획 서원

산문 밖으로… 도서출판 교림

서 대표는 출가한 지 16년 만에 환속한다. 산문 밖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서 대표가 환속은 했지만 육신의 거처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서 대표와 탄허 스님과 인연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탄허 스님은 〈화엄경〉을 출간하고 나서는 역경을 그만두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 출간은 한국불교사에서 대작 중의 대작 불사다. 그만큼 어려웠던 불사였던 것이다. 18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이다. 탄허 스님의 심정에 다른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서 대표는 스님의 불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우리 불교를 위해 스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스님, 어차피 〈신화엄경합론〉이라는 대작 불사를 회향하셨으니 나머지 경전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님은 다시 마음을 내셨고 1979년 서 대표는 탄허 스님과 함께 교림출판사를 시작한다. 오직 탄허 스님의 역경 출판만을 생각한 출판사였다. 서 대표가 산문 밖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었다.

"산문에 있을 때도 느꼈던 것이지만 탄허 스님의 공부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런 스님의 공부가 산문만이 아닌 산문 밖 많은 대중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림은 현행 표준 교과과정 도입 이전 승가대학의 사미, 사집, 사교, 대교반 교재를 제작 보급했다. 탄허 스님의 법어집 〈부처님이 계신다면〉을 시작으로 1980년 〈초발심자격문〉, 〈치문〉, 1981년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기신론〉을 출간했다. 이후 〈주역선해〉, 〈도덕경〉을 출간했으며, 1976년 화엄학연구소에서 나온 〈서장〉, 〈도서〉, 〈절요〉, 〈선요〉를 재출간했다. 그리고 1974년 출간된 〈신화엄경합론〉을 3차례에 걸쳐 다시 출간했다. 2009년 가로쓰기 80화엄원문 현토 5권을 간행해 전세계 약 500여 곳의 동양학연구소에 기증했다. 2011년에는 세로쓰기 법공양본을 간행해 국공립도서관과 전국 사찰 강원에 기증했다. 그리고 2018년 화엄게송 현토역해 탄허본을 출간했다.

"스님 가시고 난 후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는 책이 떨어졌으면 다시 책을 더 찍어야지 왜 찍지 않느냐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책이 다 소진되고 없을 때였죠."

서 대표는 그렇게 다시 책을 찍었다. 어려웠지만 고마운 인연들이 책을 만들었다. 그렇게 도서출판 교림은 40여 년 간 탄허 스님의 글자만을 책으로 만들어 왔다. 부처님 열반 후 아난이 "如是我聞(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하며 살았던 것처럼 서 대표는 "나는 이와 같이 배웠습니다"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림은 더 이상 책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서 대표는 마지막으로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이라고 했다.

"3년 전 쯤에 스님 한 분이 출판사를 찾아왔는데, 생전에 뜻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화엄경〉 한 번 온전히 읽어보는 것이 원이라고 했어요."

서 대표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되살려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만여 자에 한글 음을 달았다. 하지만 그 옛날 그랬듯이 출간은 아직 시절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과 탄허 스님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글자와 이 시대의 아난인 우담의 원력이 좋은 시절인연과 만나기를 기원한다.



민첩하고 포용성 함축한 선법 전개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⑳ 명나라 중엽 소암덕보



그림 · 강병호

소암덕보(笑岩德寶 · 1512-1581)는 명나라 중엽 선종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컸던 임제종의 선사이며, 대혜종고의 간화선을 수정하기도 했다. 소암덕보의 자는 월심(月心)이고, 호는 소암(笑岩)이다. 속성은 오 씨이며 금대(金台)사람이다. 그는 명문귀족[錦衣世家] 출신으로 일찍이 부친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공맹의 서적을 배우지 못했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失讀孔孟之書, 缺承父師之訓). 그는 〈화엄경〉 '십지품'의 한 구절을 보고 홀연히 출가의 뜻을 가졌다. 22세에 도문 광혜사(都門 廣慧寺)의 대적능(大寂能)선사에게 삭발하였고, 2년 후에 구족계를 수지했다. 그는 출가 후에 오랫동안 남북 각지를 유역하면서 고명한 선사들을 참방하고 선법을 익혔다. 그 중에서도 천기본서(天奇本瑞 · ?~1503)문하의 무문명총(無聞明聰), 대각원(大覺圓)과 대휴삼(大休三) 등 세 분의 선사들이 소암덕보에게 비교적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이 가운데서 무문명총(無聞明聰)의 법을 이었다. 그는 후에 홍법을 하는 과정에서 "인연 따라 교화를 하고, 주처를 정하지도 않았다(隨緣開化, 靡定所居)"고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명진해내(名震海內)'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는 만력 5년(萬曆5年 · 1577)후에 연경유항(燕京柳巷 · 현재 북경의 어느 골목)에 은거했는데, 적지 않은 승려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다. 그는 만력 9년(萬曆 9年 · 1581)에 입적했다. 지금 북경의 서직문(西直門) 밖에 안장했다. 어록으로 〈월심소암보조남북집(月心笑岩寶祖南北集)〉 4권을 남겼고 륭경년간(隆慶年間 · 1567-1572)에 간행되어 유통되었다.

소암덕보는 명나라 중엽에 영향력이 비교적 컸던 선사로서, 당시 불교계의 추세로 볼 때 비교적 독자적인 한 파를 형성 했다. 그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공안과 어록 가운데서 증오(證悟)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했다. 즉 그는 조금 독특한 견해를 가졌는데, 〈전등록〉 혹은 조사어록 등은 해오(解悟)의 교량(橋梁)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오직 깨달은 이후에 비로소 모든 선지식들의 공안 어록 등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사의 깊은 뜻은 언구(言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언구(言句)를 의지해서 증오(證悟)를 구하면, 언구(言句)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공안 어록을 참학하는 것은 명심견성의 바른 수행법이 아니라고 여겼다. 곧 깨달음을 얻은 후에 비로소 선지식들의 관점을 바로 이해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새롭고 획기적인 선법을 창조한 것은 없으나, 다만 한 가지 '모두 자기 자신의 몸을 관찰하라(審思于諸己躬)'라는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고, 밖으로 구하거나 서적(어록)을 가지고 쟁론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주장 했던 자오(自悟)의 방법은 대혜종고가 발명한 간화선에 의지한 것이었다. 다만 그는 대혜종고의 간화선을 바탕으로 적지 않은 수정을 가하였기 때문에 그가 수정한 내용은 조금 새로운 창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중요한 방법으로 세 가지의 내용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화두를 참구하는 것과 화두를 염하는 것을 결합한 것이다. 화두를 참구할 때 소암덕보 이전의 선사들은 화두를 들거나, 화두를 참구하거나 혹은 화두를 간(看)하거나 할 때 모두 내심(內心)으로 참구하기를 권했다. 즉 모두 하나의 화두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기타 사유 활동 및 사량 분별을 소멸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나 소암덕보에 이르러서 '두구묵절(杜口默切 · 입을 봉하고 침묵하다)'과 '출성추심(出聲追審 · 소리 나는 곳을 살핀다)'을 결합해서, 내심으로 참구하기를 요구했으며, 또한 입으로 염송할 때 어떻게 염송하는가의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그는 입정(入定)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소리를 내어서 염송하는 것이 내심으로 묵묵히 참구하는 것보다 더욱 더 심리적인 안정 및 입정에 이르기 쉽다고 보았다. 때문에 참선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방법을 쓰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의 화두를 들 때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즉 '일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 어느 것이 나의 본래면목인가? 혹은 이르되, 일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느 것이 나의 본래면목인가?'라고 소리를 내서, '혹은 2회, 혹은 5회, 혹은 수회(數回)에 이르러서 묵묵히 심의(審定)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한 구절 한 구절이 분명해져서(字字分明),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게 되어서(不緩不急), 마치 귀로 친히 들은 것과 같고(如耳親聞), 마치 눈으로 친히 본 것과 같아서(如目親睹), 즉심즉념(卽心卽念)이 되며, 즉념즉의(卽念卽疑)되고, 즉의즉심(卽疑卽心)이 되어서, (저절로)마음의 의심을 분별하지 않게 되고(心疑莫辨), 흑백이 분명해지면((黑白不分), 하나의 응어리가 일성을 폭발해서(爆燃團地一聲), 명철한 견해로서 한바탕의 웃음거리를 밝힐 것이다.(灼見一場笑具)'고 했다. 즉 이때에 이르러서 문득 증오(證悟)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두 참구와 화두 염 결합
화두 참구와 염불 결합
해화(解話)와 화두 참구 결합

두 번째는 화두 참구와 염불의 결합이다. 염불은 정토종이 제시하는 수행의 기본 내용이며, 명대 중엽에는 적지 않은 선사들이 화두를 간(看)하는 것을 염불로 대신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일찍이 송대 이후는 '선정일치(禪淨一致)'가 유행하기 시작했었다. 오대 송초 시기의 영명연수선사는 적극적으로 염불을 참선에 도입해서 염불선을 제시한 적이 있다. 영명연수가 말하기를 "선도 있고 정토가 있는 것은, 마치 호랑이에게 뿔이 달린 것과 같다(有禪有淨土, 猶如戴角虎)고 하였고, 또 선은 있고 정토가 없으면, 열사람 가운데 아홉 사람은 길을 잃어서(有禪無淨土, 十人九錯路), 음경(陰境)이 홀연히 현전해서, 잠깐 사이에 다른 곳에 떨어진다.(陰境忽現前, 瞥爾隨他去)"고 하기도 했다. 즉 정토수행법과 선법수행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다. 송대 운문종의 일대효승(一代孝僧)이라고 일컫는 명교계숭(明教契嵩)선사도 일찍이 선정합일(禪淨合一)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송대로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선정합일을 주장했던 선사가 적지 않다. 때문에 소암덕보가 장차 참선과 염불을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바로 당시의 추세로서 그도 또한 그러한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것이다.

그는 일찍이 대적능(大寂能)화상에게 가르침을 구한 적이 있다. 대적능화상은 그에게 염불을 지도해 주었다고 한다. 또 그는 하남(河南)에 가서 대천(大川)선사를 친견한 적이 있는데, 대천선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염불에는 염불의 공덕이 있는데, 어찌 깨달음을 계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는가? 만약에 '무(無)'자 화두를 들지 않으면 아름다울 뿐이다."고 하자, 그는 '무(無)'자 화두를 고쳐서 참구했다. 후에 또 제공(際空)선사에게 가르침을 구하자, 제공선사는 그에게 오로지 염불하기를 권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위의 세분의 선사로부터 계몽을 받았다. 그는 그의 어록에서 말하기를 "무자는 후퇴가 있는데, 도리어 염불은 매우 빠르다"고 하고 있다. 그는 최후에 가서 본인이 반복적으로 체득한 것을 근거로 참선을 실천하는데 염불을 수용해서 사용했다. 그는 사실 아미타불명호를 직접적인 '화두'로 사용하면서, 또한 기타 화두와 같이 취급한 것이다. 곧 그는 정토신앙을 선의 영역으로 융합해서 사용했다.

세 번째는 해화(解話)와 화두 참구의 결합이다. 그의 총체적인 사상은 바로 내성(內省 · 안으로 살피다)을 주장하고, 지해(知解 ·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와 사려를 반대한 것이다. 다만 해답(解答)을 요구하는 학인들에게는 완전한 거절을 한 것은 아니다.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푸는 방법을 채용했고, 응병여락(應病與藥 ·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의 제접 방법을 썼다. 그가 금릉(金陵 · 지금의 남경)에 있을 때, 어느 거사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만법공안을 참구한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심중(心中)이 불쾌하니, 스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분명하게 파해주십시오"라고 하자, 그가 해답하기를 "만법귀일의 뜻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日歸何處)이며, 옛사람은 이것으로부터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문득 지금의 허공, 산하, 대지, 사람과 축생, 사물 내지 자기의 신심(身心)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이름이 모두 만법이 된다. 그 하나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의 사람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생불멸 묘적명심(妙寂明心)이다. 이것을 진심(眞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록 다명(多名)이 존재하지만, 모두 하나의 일심일 뿐이다"고 했다. 이 해답은 한사람의 거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그의 선법 방편의 묘용을 알 수 있듯이 그는 매우 융통성이 있었고, 또한 매우 민첩하고 포용성을 함축한 선법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암덕보는 비록 어릴 적에 글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도리어 강해(講解)에 특별한 재주가 있었고, 또 적재적소에 알맞은 언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다고도 한다. 일찍이 명총(明聰)스님이 그에게 묻기를 "본래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있다. 그대의 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人人有個本來父母, 子之父母今在何處?)"라고 하자, 그는 게송으로 화답하기를 "본래 진짜 부모는 일찍이 만겁을 여의지 않았다(本來眞父母, 萬劫不曾離)"고 했다. 이른바 '본래부모'는 곧 본심불성을 가리키며, 이 게송은 그의 불성본유에 대한 관점과 명견본심(明見本心)의 견해가 어떠한가를 표현한 것이다. 명총 스님이 이 게송을 본 후에 "오직 이 하나의 게송이 감히 나의 종을 이었다(只此一偈, 堪紹吾宗)고 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또 그는 임기응변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수문수답(隨問隨答)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게송과 시가를 잘 짓기도 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것은 명대 중엽에 유행하고 있던 선사들의 자질을 두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전법종사의 중요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던 선사라고 여겨진다.

〈동국대 강사〉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6 ~ 11/1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2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	원효/공파스님	운주사
3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5	경전의 힘	정운스님	담앤북스
6	오늘, 담마빠다 한구절 (법구경과 함께하는 365일 마음 일력)	불광편집부	불광출판사
7	삶이 지금 어딜 가느냐고 불러세웠다	원영스님/이소영	수오서재
8	그대 지금 간절한가 (무문관 일기)	동은스님	모과나무
9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10	박범훈의 불교음악 여행	박범훈	불교신문사

"붓다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곰브리치의 불교강의

리처드 곰브리치 지음/송남주 옮김

불광 펴냄/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초기불교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예술사의 고전 〈서양미술사〉의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아들이기도 한 리처드 곰브리치 박사. 그는 붓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붓다는 인도 브라만교의 업(業, karma)과 제의(祭儀)라는 오래 묵은 사유를 윤리화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지적 도약을 이루어냈다. 붓다의 윤리관은 철저한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 뒤따른다. 윤리적 행동과 책임은 각자에게 있고, 여기에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외부의 강요가 아닌 올바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대에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2,600여 년 전 계급 사회였던 인도에서 이러한 사상이 태동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는 놀랍게도 19세기 유럽의 후기 계몽주의 사상과 유사할 만큼 혁신적이었다.

인도 사회서 업과 윤회, 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의는 붓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깊게 뿌리내린 종교적 토대로 계급사회를 더 공고히 하는 데 활용됐다. 하지만 붓다는 이를 과감하고도 대담한 방법으로 재해석해 윤리화시킴으로써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붓다는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풍자와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풍자와 비유로 인해 후대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붓다의 제자들조차 붓다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곤 했다. 특히 브라만교의 교리를 차용한 내용일수록 이 문제가 자주 불거졌다. 저자는 초기불교 경전과 브라만교 경전의 세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오해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붓다의 진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규명한다. 이를 통해 종교의 창시자로서의 붓다가 아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흄과 같은 사상가의 범주서 붓다를 조명하고, 붓다의 위대한 독창성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한다.

붓다의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고 시도하기보다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선입견부터 갖게 된다. 이 책은 먼저 독자들에게 그러한 마음 상태에 주의를 준다. 붓다를 오로지 종교 지도자로만 보고 신비하게 여기는 것은 무익하며, 불교를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대단히 지적이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이었다. 붓다는 설령 스승이라도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잡을 의무를 진다는 규칙마저 세웠을 정도였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런 붓다 사유의 근간에는 모든 개인이 각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있다. 스승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

붓다 사유 근원 다가간 과감한 탐험
종교 걷어내면 비로소 보이는 '붓다'
붓다의 진정한 사유 밝히는데 초점

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고대 인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던 브라만교 입장에서 보면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발상이었다. 붓다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가르쳤을 뿐, 장대한 이론체계를 만들거나 고매한 이상 같은 것은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번잡한 이론과 신비로움으로 치장된 브라만교의 용어를 적극 차용하여 일반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붓다는 자신의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그것이 가장 상대방을 설득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단어로 업(karma)과 법(dharma)이 있다.

붓다는 브라만교서 '제의를 거행하는 성스러운 작업'을 뜻하던 업의 의미를 일반인의 행동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브라만교만의 종교적 의미였던 '업'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행위'라는 보편적 의미로 재해석했다. 이 점이 붓다 사유의 독창성이며, 이것은 후에 '방편(方便)'이라고 불리는 붓다만의 독특한 설법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방편은 비유와 반어법을 풍부하게 사용한 설법 방식이다. 하지만 방편과 브라만교 교리의 차용은 많은 사람들이 붓다의 사상을 오해하게끔 만들었다.

이 책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그래야만 붓다의 진정한 사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의 초기경전과 브라만교의 베다 성전을 비교 분석하여 오해를 밝히고, 진정한 붓다의 생각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곰브리치는 업설(業說)이야말로 붓다 세계관 입문에 가장 좋은 시작점이라고 말한다. 업은 붓다가 삶을 조망하는 근본 사상일 뿐만 아니라 기본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업을 기본으로, 다양한 불교 용어의 사례를 짚으며 붓다 사유의 근원을 알려주는 이 책은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붓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불교보다 '붓다'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우선순위로 필독해야 한다.

리처드 곰브리치는 미술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 〈서양미술사〉를 쓴 세계적인 미술사학자 에른스트 곰브리치(Ernst Gombrich. 1909~2001)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양미술사〉가 복잡한 서구의 미술사를 알기 쉽게 정리, 미술사가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와 닿아 있는 생생한 연결고리임을 보여 주었듯, 이 책은 2,600여 년 전 붓다의 독창적 사유를 치밀하게 좇으며 불교에 대한 다음 의문에 답한다.

- 붓다는 왜 위대한 사상가인가?
- '업(業)은 작용이지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 붓다는 브라만교와 자이나교의 교리를 훔쳤는가?
- '무아(無我, No Soul)'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 '열반(涅槃)은 언어의 세계를 초월한 상태'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이 책은 믿을 만한가?

저자 **리처드곰브리치**는?

세계적인 불교학자인 그는 1970년 옥스퍼드대학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기불교 권위자인 그는 '옥스퍼드 불교학센터(Oxford Centre for Buddhist Studies)'를 설립했으며, '영국불교학협회(UK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회장이기도 하다. 2004년 옥스퍼드대 교수직을 정년 퇴임할 때까지 28년 동안 산스끄리뜨 강좌 주임교수(Boden Chair), 발리올(Balliol)대학 교수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200여 편의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지의 대학에서 강연을 계속중이다.

"불교는 곧 연기를 알고 믿는 것"



부처님이 깨친 연기(緣起) 이야기

김성규 지음/통섭출판사 펴냄/3만원



저자, 전법만 생각하는 '전법광'
'연기'에 관한 명쾌한 설명 특징
"지혜의 근본 속성은 바로 연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불교에서 '연기(緣起)'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당연한 이치라 여겨 오히려 무시되는 경향까지 있다. 하지만 진짜로 '연기'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가운데 불법 전법광(狂)이 있다. '광'이란 뜻은 말 그대로 '미쳤다'는 표현이다. 그는 "그만큼 좋아하고, 앉으나 서나 부처님 말씀 이외에는 소중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붙여진 '전법광'의 이유를 설명한다. 5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 전법의 삶을 서원한 김성규 교수〈사진〉는 "부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신심'과 '진리가 주는 환희'가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고백한다.

앉아도 일어서도 오로지 '전법'만 생각하는 삶, 그의 전법 열정이 또 하나의 책을 만들어냈다. 제목은 〈부처님이 깨친 연기(緣起) 이야기〉이다. 1990년, 김 교수가 처음으로 불교의 연기론과 물리학을 상대론으로 접목 시킨 저서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을 낸 후 28년 만에 다시 연기론에 관한 전문 불교 서적을 세상에 펼쳐내 보인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먼저 "불자들이 정작 인과를 믿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부연 설명을 잇는다. "지금 우리는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49%는 못 믿고 51%는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현재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살아온 모습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51%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통해 100%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100% 완전히 믿는 삶이 주는 변화를 강조한다. 그런 삶을 일깨우기 위해 김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통해 '연기'를 강조하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불교를 믿는다 했을 때는 연기를 믿는 것"이라며 "철저히 알고 인식하면 인과응보를 믿고 인과 법칙을 믿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총 5장 22강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불교란 무엇인가'에서는 무아와 무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부처에 대한 기본 이념을 쉽게 정리했다. 제 2장과 3장서는 불교 교리의 체계와 존재에 대한 이해를 연기적 관점서 구체적으로 엮어 설명한다. 4장서는 연기의 체계 및 구조를 명쾌히 밝혔다. △시간연기_육육법연기 △오온연기 △오온연기의 발생양식 △12연기_시공간연기 △12연기의 성립 등 어려워 보이는 교리 개념까지 설명해 둬 깊이 있는 불교학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기의 실천을 강조했다. "지혜의 속성은 연기"라고 말하는 김 교수는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지혜는 부처님께서 깨치신 연기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연기의 내용인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나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의 속성은 연기이며, 무아와 무상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에게 쌓이는 그 능력과 성품이 바로 자비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저자인 김성규 교수의 법명은 정명(淨名)이다. 그는 1955년 경주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내며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전법 활동을 펼쳐왔다. 1987년 영남대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2013년 불교 운동을 아우르는 (사)통섭불교를 설립해 월간지 통섭불교, 통섭불교강의 등을 통해 전법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1990년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을 시작으로 〈화두〉 〈이것이 불교다〉 〈마음은 보석〉 〈대승기신론〉 〈2600년 불교의 역사〉 등 다수가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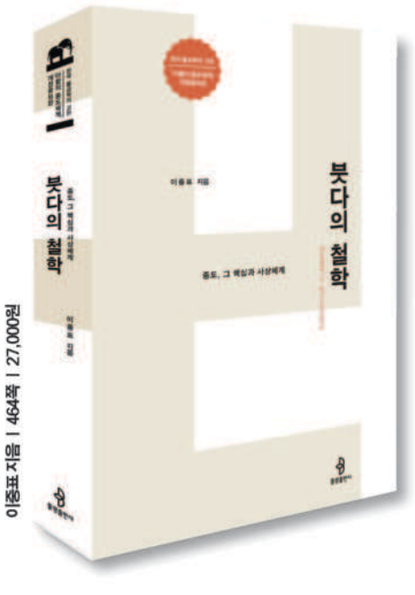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27년 만에 『붓다의 철학』으로 새롭게 개정증보 발간!

서양철학 그 이상의 붓다 철학을 논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학자 이중표 교수의 역작!

"학자는 불교가 어떻게 철학의 제(諸)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의문을 해소할 것이다." _저자의 말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개정증보판



붓다의 철학

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지음 | 464쪽 | 2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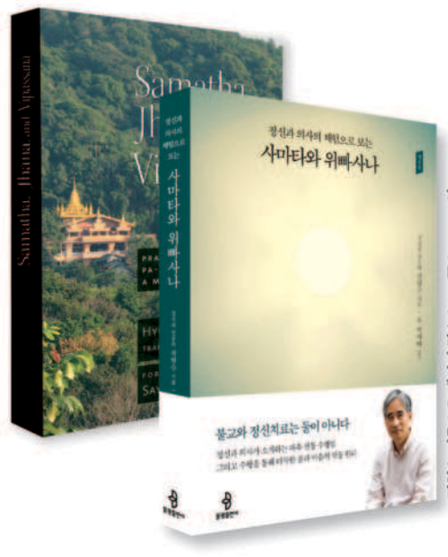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의 영문판 출간에 이어 한국어 개정판 출간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우 레와따, 크리스토퍼 거머 추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전한다." _우 레와따 스님(세계적인 명상의 스승)

"붓다의 본래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바탕으로 수행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교 경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_크리스토퍼 거머(마음챙김 심리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현수 지음 | 우 레와따 감수 | 320쪽 | 17,000원

우리 금석문의 예술성 · 역사성을 본다

불교중앙박물관 2018 두 번째 테마전
'금석문 탁본전–경북의 역사를 두드리다'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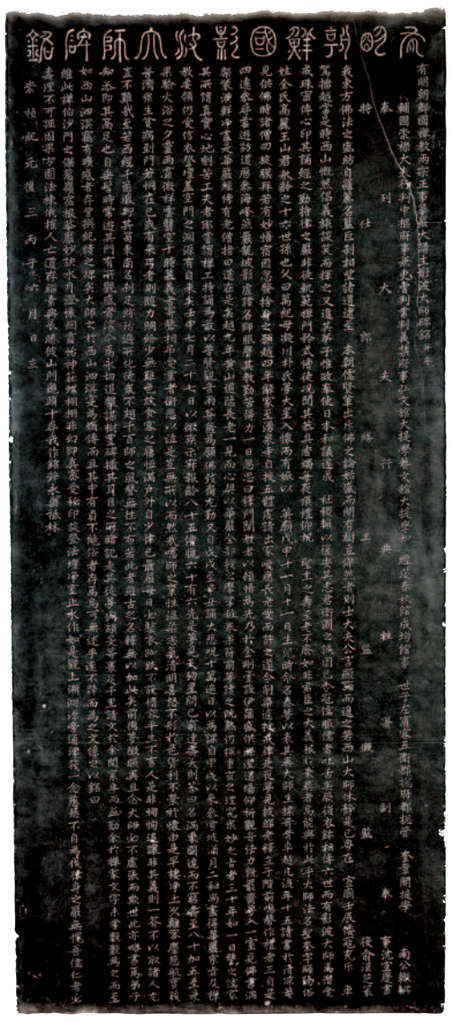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나라 금석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송하)은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2018년 두 번째 테마전으로 '금석문 탁본전-경북의 역사를 두드리다'를 개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한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 중 대구 · 경북지역의 금석문 200건을 정리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2건, 보물 3건, 경북유형문화재 4건을 포함한 총 34개 비의 탁본이 전시된다.


냉수리 신라비(503 · 국보 제264호)

국보 2건 등 34개 비 탁본
서체별, 비의 형태별로 전시
"서법 연구, 교본으로 이용"
서법과 비의 역사 한 눈에


영천 은해사 영파대사비(1816)

전시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서법(書法) - 선인들의 범본이 되는 글씨'에서는 '고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등 금석문을 서체별로 구분하여 포항 냉수리 신라비(503 · 국보 제264호), 은해사 영파대사비(1816), 호수 정세아 신도비(1760), 동강 김우옹 신도비(1723 · 경북 유형 제260호), 충신의 사단비(1793 · 경북 기념물 제133호) 등을 선보인다.

조선시대의 탁본은 서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 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세종은 서법으로 삼기 위해 전국의 비를 탁본하여 바치게 할 정도로 서법 연구를 위해 탁본을 활용했다. 17세기에는 〈금석청완(金石淸玩)〉,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등의 탁본첩이 편찬됐으며, 이러한 탁본첩에는 적게는 60여 종에서 많게는 약 300여 종의 금석문 탁본이 수록되었다. 다만 이들 탁본첩 역시 서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의 전체 탁본이 아닌, 서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을 오려서 수록했다. 선인들은 비첩에 수록된 탁본들을 감상하며, 옛 글씨에 대해 토론하고 탐구했다. 이는 서법 연구와 전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부 '다양한 비 - 선인들의 행적을 기리다'에서는 '탑비', '사적비', '유허비', '묘비', '신도비' 등 탁본을 비의 형태별로 선별해 선봉사 대각국사비(1132 · 보물 제251호), 불영사 사적비(1933), 명암 서학 유허비(1847), 퇴계 이황 묘갈(1905), 회재 이언적 신도비(1577 · 경북 유형 제376-1호) 등을 선보인다.

비는 선인들의 행적이나 사적을 알리고 오래도록 후세에 전하기 위해 돌, 쇠 등에 글을 새긴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비는 삼국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고구려 비로는 414년 조성된 '광개토대왕릉비'와 신라의 비 '포항 냉수리 신라비', 진흥왕이 세운 4개의 순수비가 대표적이다. 삼국시대의 비는 자연석을 거의 가공하지 않고 글을 새겼다. 비의 형식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661년에 조성된 '태종무열왕릉비'부터다. '태종무열왕릉비'는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의 영향이다. 이후 비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의 행적을 기리는 탑비가 주를 이루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능묘비가 중심이 된다. 각종 묘비와 신도비 등이 세워졌으며 용도에 따라 다양한 비들이 건립되었고 비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금석문 조사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선본(善本) 탁본은 우리나라 금석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탁본을 선정하여 전통방식으로 장황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금석문 서체 등의 예술성을 감상하고 다양한 종류의 비를 알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금석문의 예술성과 역사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11월 7일(오후 2시~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8 금석문 조사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02)2011-1954.

백자의 현대적 이해

박명숙 도예전
서울 인사동 'G&J 광주 전남 갤러리'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도예가 박명숙 작가가 서울 인사동 'G&J 광주 전남 갤러리'에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가마를 고수해오고 있는 박 작가의 지난 3년 동안의 기물 중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관심이 크다.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도 백자 유약을 전통 백자처럼 기물 안팎에 바르지 않고 기물 안에만 바른 것이 특징이다. 형태는 주로 연꽃 이미지다. 작가는 연꽃 이미지를 고수한 배경을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타는 가뭄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늘 의연했습니다. 마치 시련을 극복한 인생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인생을 찬탄하는 찬가, 열정 같았습니다. 이번 개인전 작품들은 그런 연꽃의 일생을 여러 가지 형태로 형상화시켜 보고자 했습니다."

또, 작가는 항아리의 전(입술)은 한 개가 전통적 방식인데 발상을 전환해 이중전과 빛깔 있는 연꽃을 고수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박명숙 作, 찬가4

"3년 전 오스트리아 빈의 암파크 갤러리 초대전에서 제가 처음 시도했던 이중전(두 겹의 전)과 빛깔 고운 연꽃에 대한 현지인의 감동적인 반응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듬해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 개인전 때의 호평에 힘입어 확신을 갖고 꾸준히 작업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항아리 입술(전)을 두 겹으로 하여 연꽃 이파리의 이미지도 드러내고, 옷으로 비유하자면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효과를 모색했다는 것이다. 작가는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형태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게 된 동기를 〈장자〉를 수십 독(讀)하고 선(禪)수행을 체험한 결과라고 말한다.

박명숙 작가는 전남 도립대학 도예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도예가 지헌 김기철 선생 문하에서 6년 사사, 한국화가 외산 김기봉 선생 문하에서 4년 사사했다. 2013년 〈연꽃에 내린 달빛〉 등 4회의 개인전과 초대전 등을 열었다. 박재완 기자

"우리 문화재는 우리 곁에 있어야"


박명옥 作, 아미타삼전도

나우회 '일본 유출 문화재 재현전'
월정사서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일미술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승작가들의 모임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나우회가 2018 나우회 전통문화의 둘레길 만들기 기획전 여덟 번째 이야기 '일본 유출 문화재 재현전'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평창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이어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미국' 편과 '프랑스' 편에 이은 이번 전시에서는 건축, 불화, 목조각, 석조각, 종이조각 등 전승 작가 8명이 참여해 일본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재현한 작품 11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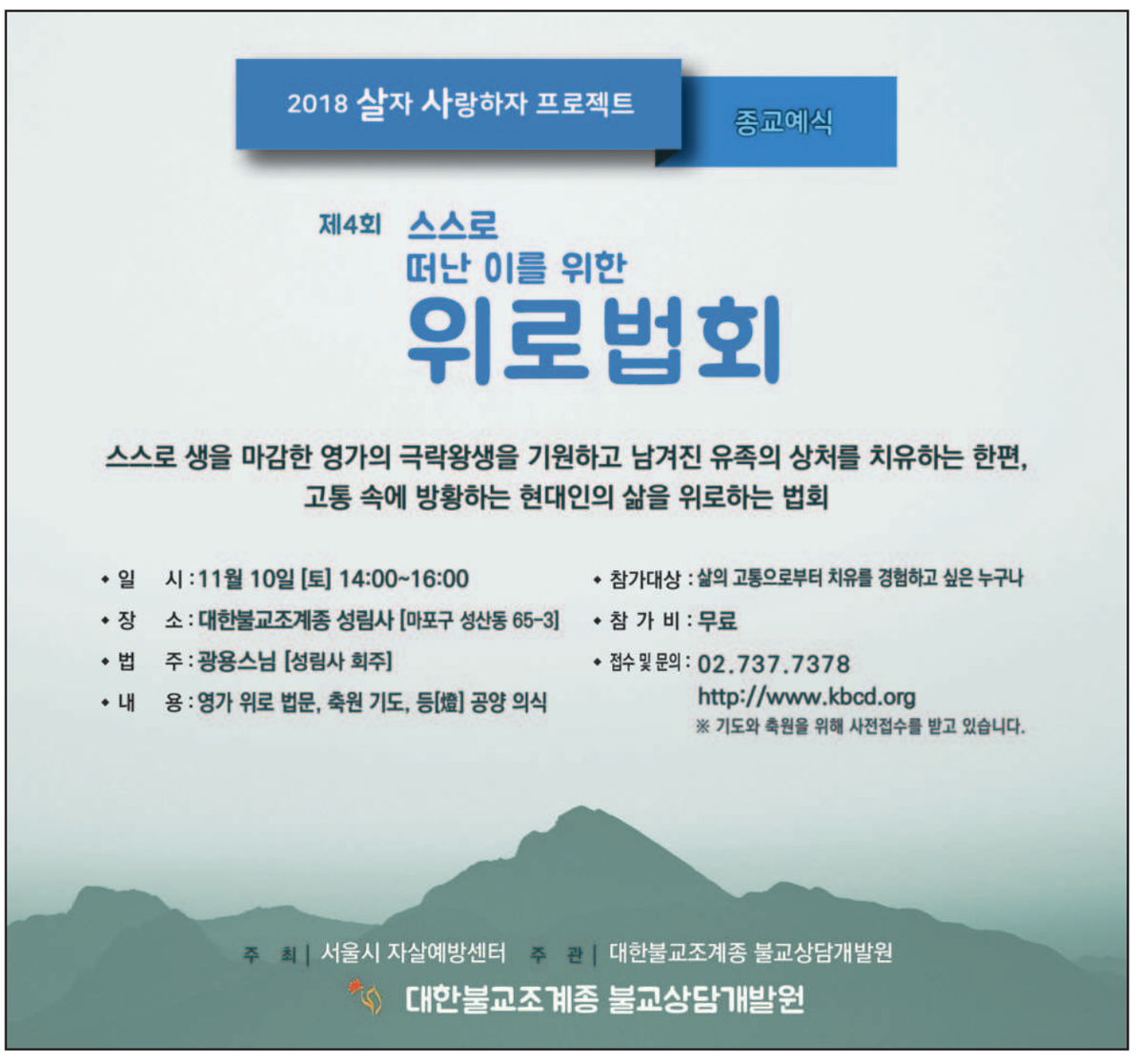
지금까지 매년 '전통문화의 둘레길 만들기'라는 큰 제목으로 전시를 열어온 나우회는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찾기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해외 유출 문화재를 재현해 알리고 있다. 현재 우리 문화재 중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약 16만 건에 이른다. 그 중에서 약 40%가 일본 유출 문화재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본 유출 문화재 재현전'은 의미가 가볍지 않다.

출품작은 ▲김범식(경북무형문화재 제37호) 대목장이 1/10 목조모형으로 제작한 '벽제관 육각정' ▲한봉석(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이 재현한 '가릉빈가(일본 동경 박물관소장)' ▲노정용(문화재 조각기능 제1732호) 조각가의 '토우동물상' ▲박연규(문화재 조각기능 제1867호) 조각가의 '석불좌상' ▲류종상(무형문화재 불상조각장 이수자) 조각가의 '수월관음 황토탱화' ▲김형진(디자인샐러드 대표)의 '생각하는 사람(Thinker)' ▲박명옥(명화페이퍼아트 대표) 종이조각가의 '여기...살다...' ▲이연욱(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57호) 불화장의 '직부사자도'이다. 모두 일본 유출 문화재이다.

한봉석 회장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번 '일본 유출 문화재 재현전'은 어느 전시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 곁에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번 전시가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해외 유출문화재가 환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033)339-6800

박재완 기자





수덕사 소조불서 고려 희귀 경전 발견



정각 스님, 11월 3일 수덕사 학술대회서

수습된 '묘법연화경' 최이가 발문

'자비도량참법' 사경본 처음 확인

최은령 위원, 서산 일락사 여래상

성분조사 결과 철불 아닌 '금동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 복장 유물에서 고려시대 희귀 경전들이 확인됐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은 11월 3일 충남 홍성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덕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수덕사 소조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고찰'을 통해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 복장물의 연원과 가치를 분석했다.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은 지난 2017년 3월 수덕사 근역성보관 연구원들에 의해 복장물이 수습됐다. 당시 복장물로는 △다라니 △유리구슬 △개금발원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제79~81, 91~93 △〈묘법연화경〉 3종 △〈사아함모초해〉 권하 △〈자비도량참법〉 권제7 등이 나왔다.

정각 스님의 조사 결과 고려시대 희귀 경전들이 대거 확인됐다. 〈묘법연화경〉 3종의 경우 1240년 간행된 권7 완본이 주목된다. 권7 완본에는 당시 권력자 최이(崔怡)의 발문이 실렸는데 동일 인출본 5건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과 복장 유물로 수습된 〈묘법연화경〉. 해당 〈묘법연화경〉에는 당시 권력자 최이의 발문이 담겼다.

정각 스님은 "〈묘법연화경〉권제7은 1240년 최이가 조판을 명령해 간행한 것으로 표지 가장자리 표현에 공민왕대에 정착된 태선-세선-당초문-세선-태선-세선 형식이 쓰이고 있어 경전 인성 시기는 1377년 즈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각국사 의천이 송에서 제작·간행한 교장 중 하나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권제79~81, 91~93이 수습됐다. 이중 권제79, 80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유일본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복장 수습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교장 원간본을 재판각한 것으로 송에서 유래한 판각 외에 한국 판각의 〈대방광불화엄경소〉 교장본이 고려 말~조선 초에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수습된 〈자비도량참법〉 사경본도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자비도량참법〉은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 약 10여 종의 목판본이 간행됐지만 그간 사경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각 스님은 "〈자비도량참법〉 사경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행 13자 판식은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됐다. 수덕사 복장 출토의 사경본은 고려나 조선 초에 제작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덕사 소조 여래좌상은 15세기 이후 조성된 불상"이라며 "불상의 복은 1390년 당시 조성된 모(某) 불상의 불복장 내지 1489년 조성된 또 다른 불상의 불복장이 수습돼 현재 수덕사 소조 여래좌상 복장에 납입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덕사 말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 중 서산 일락사 여래좌상을 새롭게 조명한 연구도 눈길을 끌었다.

문화재청 최은령 문화재감정위원은 '서산 일락사 금동여래좌상 연구'에서 "서산 일락사 미타전 여래상은 최근까지 철불로 알려졌지만 성분분석을 통해 금동불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락사 금동불상은 고려후기 13세기 불상의 전통을 계승하여 세부표현에서 단순하고 절제된 형식으로 변모돼 14세기 충청 지역의 공방서 조성됐을 것"이라며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292년, 1302년경의 다라니는 일락사 금동불상의 조성시기를 14세기로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동반 자료"라고 설명했다.

한편,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정묵)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가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의 연구' △김요정 충북대 초빙교수의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의 수종과 연륜연대 분석' △이승희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김지혜 수덕사 근역성보관 학예연구사의 '당진 성당사 제석천도 연구'가 발표됐다.

불암사·칠보사 불보살상 보물 지정

문화재청 지정 공고

두 불상·보살상 모두

조선 중기 대표 수작





보물 제2003호로 지정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좌상〈사진 왼쪽〉과 보물 제2004호로 지정된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사진 오른쪽〉.

17세기 조성된 불보살상 2구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4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또한 "보물 제455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의 명칭은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로 변경했다"고 고지했다.

보물 제2003호로 지정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세기 전반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해 총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49년(인조 27년)에 완성한 불상이다.

높이 67cm의 단아한 규모에 머리에는 연꽃과 불꽃문양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寶冠)을 썼으며, 가사는 두벌 겹쳐 입은(이중착의법) 모습에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렸다. 전체적으로 비례가 알맞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양감이 돋보인다.

얼굴은 이마가 넓고 턱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역삼각형을 이루었으나, 날렵하고 갸름하게 처리한 턱선, 높게 돌출된 코, 자비로운 인상에 실재감 있는 이목구비의 표현 등 1650년대를 전후로 아담하고 현실적인 조형미를 추구한 무염이 참여한 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불암사 목조관음좌상은 정확한 제작 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해 17세기 중엽 불교 조각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보물 제2004호로 지정된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622년(광해군 14년) 광해군의 부인인 문성군부인 유 씨(장렬왕후)가 왕족들과 친정 부모의 천도를 목적으로 발원해 왕실 원찰(願刹)인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한 11존(尊) 불상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玄眞)과 수연(守衍), 응원(應元), 인균(印均) 등 당대 유명 조각승들이 합작해 만든 불상으로, 조각승들의 제작 특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다.

머리와 상반신을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에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고 왼손은 다리 위에 둔 항마촉지인을 한 모습이다. 상반신은 허리가 짧고 어깨가 넓지만 하반신은 다리가 높고, 턱을 수평으로 깎은 네모진 얼굴에 양 볼이 볼록하게 양감이 살아 있으며, 작고 가는 눈에 오뚝한 코, 미소가 있는 작은 입 등 단정하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 등은 현진과 수연의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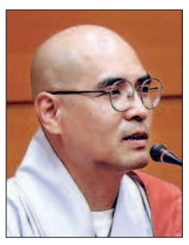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기법이 화려하지 않고 비교적 간결하지만 중후한 기품과 위엄이 느껴지며, 17세기 전반 불상 중에서 수준 높은 작품성을 보여준다"면서 "예술적 가치가 월등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탄허 교육관 '법당 100채보다 승려교육'

자현 스님, 10월 26일 탄허강숙 세미나서



"탄허의 교육관은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승려교육이 중요하다'는 강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승려교육의 확대와 정립만이 불교 정화를 완성하고, 불교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탄허의 교육인식에 따른 결과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사진〉은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탄허강숙(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주최로 열린 2018 학술세미나서 탄허 스님의 교육관을 이 같이 정리했다. 세미나는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현토역해본의 가치와 의의'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현 스님은 '한암과 탄허의 승가교육이념과 실천양상'을 주제로 발제했다.

자현 스님은 세미나에서 한암 스님의 교육관에 대해 선 수행을 중심으로 교학과 계율을 아우르는 것으로 봤으며, 탄허 스님의 교육관을 '화엄학을 바탕으로 한 동양학 전체의 회통'으로 정의했다.

자현 스님은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이 같은 교육관을 잇는 매개가 일제강점기 상원사에 세워진 '삼본사연합승려수련소'임을 밝혔다. 자현 스님에 따르면 한암 스님은 삼본사수련소 설치를 허락하지만 실질적인 방식과 교육은 한암에 의해 일제 영향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탄허 스님이 한암 스님에 의해 삼본사수련소 조교로 활동하며 경전을 수학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암 스님의 불교관이 탄허 스님에게 계승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삼본사수련소의 경험은 이후 탄허 스님이 1956년 4월 월정사에 오대산수도원을 개설하고, 불교 전통강원 교재를 포함해 총 18종 78권에 달하는 경전 번역에 매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스님은 "탄허는 불교정화와 이후 혼란기 속에서 교육을 통한 한국불교의 재정립을 추구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신이 몰락하는 그의 유년기 이후 현실문제와 관련해 불교중심의 동약학 회통과 부활까지도 모색했던 것"이라며 "이는 탄허의 시대적 요청과 문제의식을 뛰어넘는 온고지신적 교육관에 따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돈의동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재소자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㉑ 무기수 나윤주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고 온 비극

1960년대 말 대구교도소에는 사상범이 많았다. 내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재소자는 한국전쟁과 '반공법'에 얽힌 비극적 운명의 무기수 나윤주다.

1967년 4월, 나는 대구교도소 재소자교화사업회장을 맡고 있었다. 모범무기수라고 소개받은 나윤주(남 · 당시 42세) 씨는 교도소 내 불교신도회장이었다. 나는 이미 독실한 불자인 나 씨와 교도소 방문마다 비교적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의 인생사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

나 씨는 전남 함평의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동향의 아내 정복희 씨와 중매결혼을 했다. 나 씨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며 두 아들을 낳고 걱정 없이 사는 듯 했다. 나 씨 부부가 결혼한 지 5년 된 해인 1950년, 두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고 만다. 6 · 25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나 씨는 집이 시골인 데다가, 설마 초등학교 선생님인 자신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싶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전란을 피해 고향을 떠나지 않은 일은 그에게 평생의 회한이었다.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나 씨는 타의에 의해 빨치산 부대원이 됐다.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죽이겠다는 남로당 지하조직의 협박에 '빨갱이'가 되겠다는 서약을 했기 때문이다. 나 씨 자신이 빨갱이가 돼도 가족들을 지킬 수는 없었다. 나 씨는 국군이 나 씨의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가족 11명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공산군 측이 민심을 잃으면서, 빨갱이와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주민들의 화살마저 나 씨의 아내로 향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빨갱이 남편을 둔' 정 씨와 어린 아들들은 고향에서 쫓겨난 덕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단 사실이다.

그 사이 나 씨는 영민한 두뇌로 빨치산부대 문화부 대장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나 씨는 열악한 산중 생활에 회의를 느꼈다.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이 본격화되고 경찰까지 가세하자, 나 씨는 '여긴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탈주를 결심했다.

지하조직망과 작전계획 등 빨치산 기밀문서를 훔쳐 반역을 저지르겠다는 작전이었다. 동시에 남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계획이었다.

나 씨는 보름간 칡뿌리로 연명하면서 험준한 산을 탄 끝에 마침내 정 씨가 지내는 곳에 다다랐다. 나 씨는 칠흑 같은 새벽을 틈타 탈취한 기밀문서를 정 씨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 자초지종을 들은 정 씨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나 씨는 "난 어차피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오. 이 문서를 경찰서에 갖다 주면 분명 알아볼 것이니 날이 밝는 대로 가시오.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니…, 난 오늘로 내 마지막 목표를 이뤘으니 죽을 때만큼은 편하게 죽고 싶소"라며 챙겨온 총으로 자결할 뜻을 전했다.



무기수 나윤주 씨의 비극적인 투옥생활을 20년 이상 뒷바라지한 그의 아내 정복희 씨(오른쪽).

6 · 25때 빨치산부대 강제 입산
기밀문서 훔쳐 경찰서에 자수
공헌 인정, 전 혐의 사면된 후
보안법 소급 적용 무기형 선고
22년 만에 대통령 특사로 출소
25년 뒷바라지한 아내와 이별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나 씨에게 잠시만 기다리라 한 뒤, 자는 아이들을 깨워 자기 뒤에 일렬로 세웠다고 한다.

"총알이 몇 발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발이면 우리 셋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목숨을 끊으시려거든 우릴 죽이고 당신도 자결하세요."

참으로 현명하고 속 깊은 아내였다. 차마 그럴 수 없던 나 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가족과 함께 경찰서에 자수를 했다.

말 못할 가혹행위를 당할 것이란 온갖 각오를 하고 간 것이 무색하게도 나 씨에게 살 길이 생겼다. 경찰 당국은 나 씨가 멸공을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중요문서를 조달한 공로를 인정했다. 나 씨의 모든 죄가 사면됐다. 이후 나 씨 부부는 수년간 농사를 지으며 행복한 일상을 되찾는 줄로만 알았다.

1958년 자유당 말기, '신국가보안법'이 제정 통과됐다. 이로 인해 나 씨는 과거 부역행위가 소급적용돼 다시 구속되고 말았다. 나 씨는 또 다시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기약 없는 무기수가 됐다.

나는 이토록 기구한 운명으로 교도소서 불심을 닦은 나 씨와 만났다. 나는 나 씨와 다른 재소자들에게 "현재의 옥고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극이나 이는 전생에 여러분 스스로가 저지른 인과에 의해 벌을 받는 것이니 저항하지 말고 부처님의 공덕을 쌓으라"는 설법을 할 뿐이었다.

나 씨 곁을 지킨 정 씨의 내조는 인간 이상의 지극함이었다. 정 씨는 빨치산 3년, 수인생활 22년 도합 25년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버텼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책임지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견딘 정 씨와 함께 나 씨 역시 묵묵히 모범수로서 복역을 이어갔다.

나 씨는 감형된 22년의 형기 가운데 3개월을 앞둔 1979년 12월, 당시 최규하 前 대통령 취임특사로 가석방됐다.

나 씨는 내 권유로 그간의 참극을 적은 수기 〈누가 반역자냐〉를 펴냈다. 참혹한 산중 생활부터 자신 때문에 총살당한 부모형제들, 빨치산 생활을 청산하고 자수해 문제없이 살다가 다시 무기수가 된 파란만장한 삶을 기록한 책은 많은 이에게 울림을 줬다.

이 같은 사연은 TV 6 · 25특집극으로 방송됐다. 나 씨 이야기가 해외 잡지에 실리는 등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나 씨는 결국 그의 아내를 저버리고 변심했다. 긴 세월 모진 수모를 감내하고 옥중 뒷바라지를 한 정 씨는 다른 여인과 몰래 동거하는 나 씨를 알아차리고도 담담히 받아들였다.

나 씨가 더없는 인품을 가진 아내 정 씨를 놓친 것은 다시없는 비극이었다. 남편을 위해 한평생 다 바친 정 씨에게도 나 씨의 외도와 배신은 슬픈 엇갈림이었다.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전쟁이 남긴 상흔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재소자와의 인연이었다.

정리=김지원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㉑ 무진장 스님 · 노보살님

우리 시대의 부루나 존자이시다. 불교대학원에서 포교학을 강의하실 때 인연이 되었다. 진리는 밥상의 밥그릇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법인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둡고 먼 탓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또한 산다는 것은 소모하는 것이니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죽는 날까지 중생을 위해 다 써버려야 한다고 하셨다.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마지막도 포교"라고 말씀하실 때는 결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반면, 엄숙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일지라도 간혹 선승(禪僧)다운 유머로 풀어 주실 때도 있었다.

언덕에 누워 본 적이 있으신지요? 소의 잔등에 기댄 것처럼 숨 쉬는 언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바람만이 아는 일.

노보살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며느리를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맡기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난 선물(?)을 받았다며 살았고 내심 흐뭇해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선물(膳物)이 아니고 선불(先拂)이 되었노라고 글이 써진다. 시간의 더깨가 쌓여 뒤집어 생각해보니 노보살님께 전해 받은 온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기분이다. 내 앞에도 내 며느리가 앉아 있는 나이가 되었다. 곧, 하늘이 높아질 것이다. 발길엔 꽃이 피고 이야기는 바람이 되어 가겠지. 내 나이 일흔이 되니 하루하루가 뜨겁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 · 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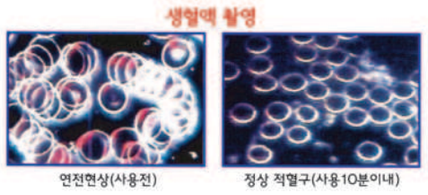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에이스 삼강 : 혈액건강 세포건강 구강건강

BLOOD MATE® 비누 한번으로 혈액건강·세포건강. ORAL MATE® 치약으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켜서 구강건강.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이상을 사전에 예방할것입니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 촬영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발모촉진 검 버 섯 제거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BLOOD MATE®

CS137(세슘)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 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입을 물로 헹궜으나, ORAL MATE® 치약을 개발한 41년생 남자 본인은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4년여 동안 보약 먹는 기분으로 먹고 있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①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치주염, 잇몸에 피, 시린이, 구취, 구내염, 흔들림, 치아솟음 등 모든 잇몸질환)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 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꾸르륵 꾸르륵하는 장운동 소리가 자주나면서 속이 편안해진다.

②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묶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성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 유효기간은 행정규약일 뿐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ORAL MATE®는 원료가 숙성되어 효과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탄력있는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산소를 발산하며 물분자를 활성화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악취 제거 탁월. ▸충치예방과 입냄새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C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 ☎ 02)353-9692 / 010-2791-3696